이투데이

ECONOMY TODAY
2023년 10월 5일 목요일
etoday.co.kr

제3231호

대표전화 : 02)799-2600 / 구독 : 02)799-2684

KB증권
BUY KOREA BUY BOND
채권 투자는 KB증권
*투자 전 설명청취 및 상품설명서·약관 필독 *예금자보호법 상 보호상품 아님 *<자산가격변동>,<환율변동>,<신용등급하락>등에 따른 원금손실(일부 또는 전액)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발행사 신용위험에 따른 원금손실 가능 *AAA/AA·A·BBB 각 +,0,-순으로 투자적격등급 구분

코스피(4일) 2405.69(-59.38P) ▼ | 코스닥 807.40(-33.62P) ▼
환율(달러당 원화) 1363.50(+14.20원) ▲ | 금리(국고채 3년물) 4.108%(+0.224%P) ▲



한화로보틱스 공식 출범… 글로벌 시장 정조준 2



1~8월 세수 47.6兆 감소… 법인·소득·부가세 '뚝' 8

高금리의 '뉴노멀화'… 글로벌 증시 대혼란

美연준 긴축정책 장기화 전망에
10년물 국채금리 16년 만에 최고

코스피 2.41%·닛케이 2.28%↓
원·달러 환율 1363.5원 또 연고점



미국 긴축 장기화 우려로 코스피가 급락하고 원·달러 환율이 연고점을 경신한 4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관계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59.38포인트(2.41%) 내린 2405.69, 원·달러 환율은 14.20원 오른 1363.50원, 코스닥은 33.62포인트(4.00%) 내린 807.40으로 거래를 마쳤다. 신태현 기자 holjjak@

글로벌 금융시장이 미국 국채(10년물) 금리 급등 쇼크로 일제히 하락했다. 코스피는 하루 만에 2.5% 가까이 급락하면서 2400 선으로 후퇴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고금리 정책이 예상보다 오래갈 것이란 전망에 힘이 실리면서 3일(현지시간) 미국 10년 만기 국채금리는 연 4.81%(장중)를 찍었다. 연 4.8% 선을 넘어선 것은 16년 만이다.

▶관련기사 6·13·21면

글로벌 금융시장은 미국의 장기 국채금리 상승과 관련해 고금리 시대가 한동안 새로운 흐름이 될 것이란 신호로 받아들이고 있다. 개인과 기업의 대출 금리가 오를 가능성이 커지고, 글로벌 증시에는 악재로 작용하게 된다.

미국 국채 금리 급등 공포에 이날 미국 3대 증시는 1%대 하락했다.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와 S&P500지수는 각각 1.29%, 1.37% 내렸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은 1.87% 급락했다. 시장 금리가 오르면 기업의 빚 부담이 커지고, 주식 투자에 대한 매력이 떨어진다.

국채 금리 급등의 여파는 4일 아시아 증시로 도미노처럼 번졌다. 한국 코스피는 2.41%, 코스닥은 4% 하락했다. 일본 닛케이225는 2.28% 급락해 3만 선이 위협받고 있고, 홍콩 항셍(-0.78%)도 크게 하락했다.

유럽에서도 독일DAX30(-1.06%), 프랑스CAC40(-1.01%) 등의 지수가 모두 약세를 보였다.

한 증권사 고위 임원은 최근 "미국 10년 만기 국채 금리는 전 세계 시장이 가장 주목하는 지표"라고 말했다. 이 국채의 유통금리를 토대로 글로벌 기업들의 회사채 발행 금리, 회사와 가계 대출 금리 등이 순차적으로 정해진다. 중앙은행이 정하는 기준금리가 그대로여도 국채의 유통 금리가 오르면 개인·기업이 돈을 조달해 쓰기가 전보다 어려워진다. 증시를 포함해 시장에 풀린 돈이 말라갈 가능성이 크다는 뜻이다.

경제 지표가 강한 모습을 유지하자, 투자자들은 연준이 기준금리를 추가로 올릴 가능성을 우려했다. 이날 오전 발표된 8월 민간기업 구인 건수는 961만 건으로 전달보다 69만 건가량 증가했다. 시장 예상치인 880만 건을 웃돌았다. 고용시장이 뜨겁다는 것은 미국 경기가 그만큼 강하다는 것을 뜻한다. 연준이 현재 연 5.25~5.5%인 기준금리를 더 올릴 가능성도 커지게 된다.

미국 정치권발 불확실성도 채권 금리 상승을 부채질했다.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은 이날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하원의장직에서 해임됐다. 임시예산안 처리에 반발한 같은 당 소속 강경파 의원들이 해임안 처리를 주도했다.

연준 당국자들도 최근 고금리 필요성을 언급해 오고 있다. 로레타 메스터 미국 클리블랜드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전날 "기준금리를 연내 한 차례 더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셸 보먼 연준 이사도 "인플레이션을 2%로 되돌리기 위해선 추가 금리 인상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미국 국채 금리 급등의 영향은 외환시장까지 뒤흔들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14.2원 오른 1363.5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11월 10일(1377.5원) 이후 가장 높다.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연 4.108%로 연고점을 갈아치웠다. 국고채 10년물과 회사채(무보증 3년) AA-는 각각 연 4.351%, 연 4.871%를 기록했다.

권태성 기자 tskwon@
손민지 기자 handmin@

반도체가 견인한 8월 생산 30개월 만에 증가폭 최대

올해 8월 산업생산이 30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반도체 생산이 대폭 늘어난 영향이다. 설비투자도 3.6% 증가해 1년 만에 최대 폭으로 늘었다. 다만 소비는 2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통계청이 4일 발표한 '2023년 8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8월 전(全)산업 생산(계절조정·농림어업 제외)은 전월보다 2.2% 늘었다. 2021년 1월(+2.3%) 이후 30개월 만에 최대 증가 폭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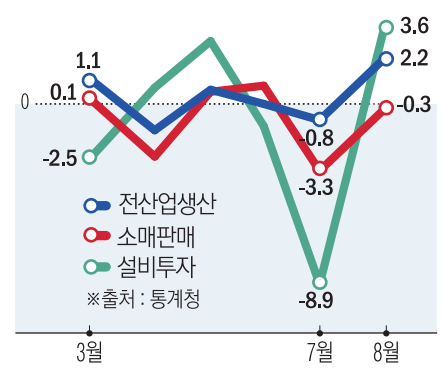
전산업 생산은 올해 5월(0.7%) 반등한 뒤 6월(0.0%) 보합세를 보였다가 7월(-0.8%) 감소 전환했다. 전산업 생산 증가를 주도한 것은 광공업이었다. 광공업 생산은 광업과 제조업, 전기·가스업에서 모두 생산이 늘어 전월보다 5.5% 늘었다. 38개월 만에 최대 증가 폭이다. 이 중 제조업 생산은 5.6% 늘었다. 제조업 평균가동률은 전달보다 3.4%포인트(p) 상승한 73.4%를 기록했다. 지난해 8월(74.3%) 이후 1년 만에 최고 수준이다. 반도체 생산이 전월보다 13.4% 늘어 올해 3월(+30.9%) 이후 가장 많이 증가했고, 기계장비 생산도 9.7% 늘어 전산업 생산 증가를 주도했다. 서비스 생산도 기상여건 개선 등에 따른 외부활동 확대로 여가(+6.2%), 음식·숙박(+3.0%) 중심으로 0.3% 늘어 증가세를 지속했다.

7월 -8.9%의 감소율을 보였던 설비투자는 3.6% 늘어 작년 8월(8.9%) 이후 가장 큰 증가 폭을 기록했다. 전월과 비교해 설비투자가 증가한 것은 기저효과가 크게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건설투자(기성)는 전월 집중호우 등으로 부진했던 토목(13.8%)이 크게 반등하고, 건축도 1.8% 늘어 4.4% 증가했다. 다만 건설수주는 주택 등 건축(-59.9%) 및 기계설치 등 토목(-55.0%)에서 모두 줄어 59.0% 감소했다.

소비 동향을 보여주는 소매 판매는 승용차를 비롯한 내구재와 의류 등 준내구재의 소비가 줄어 전월보다 0.3% 감소했다. 2개월 연속 감소세다. 현재 경기를 나타내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99.4로 전월보다 0.2p 하락했다. 향후 경기를 예측하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99.3)는 보합세를 보였다.

세종=서병곤 기자 sbg1219@

산업활동 증감
(단위 : %, 전월 대비) ※ 7·8월은 잠정치



디지털화폐 도입 첫발… '예금토큰' 실거래 실험 나선다

한은·정부, TF 구성 활용성 테스트
규제 샌드박스 통해 법적 근거 마련
내년 4분기부터 국민도 참여 가능

한국은행과 금융당국이 디지털화폐 시대의 첫 단추를 끼웠다. 내년 4분기에 은행의 '디지털 예금'인 예금토큰을 활용해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실거래 테스트를 실시하기로 했다. 테스트에 앞서 금융당국은 은행 등과 실무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관련 법·제도를 살피고 이용자 보호조치를 마련한다.

▶관련기사 3면

4일 한은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인 'CBDC(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활용성 테스트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이번 테스트와 관련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로 했다. 우선 현행법과의 정합성을 고려해 테스트 참여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정한다. 일부 활용 사례의 실거래 테스트는 예금 토큰(Ⅰ형 통화)만을 활용하는 등 제한적으로 진행한다.

CBDC란? ※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형태의 새로운 화폐(은행권·주화와 동일한 가치)

범용	가계, 기업 등 경제주체들에게 발행되어 일상생활에서 사용
기관용	금융기관에 발행되어 금융기관 간 자금거래·최종 결제 등 활용
2023년 1~9월	관계기관 협의 법·제도적 이슈 점검
10월 4일	테스트 기본 계획 발표 시스템 개발 용역 공모
10월 이후	참가은행 모집 활용 사례 구체화 테스트 상세 계획 발표
2024년 중	시스템 구축 개념 검증 실시
4분기	테스트 실시(일반 국민 참여)

※ 출처: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예금토큰은 은행이 기관용 CBDC를 기반으로 분산원장 기술 등을 이용해 발행하는 디지털자산이다. 현행 수시입출금식 예금에 최대한 가깝게 설계돼 계좌이체하듯 다른 사람과 거래할 수 있고, 언제든지 은행의 일반 예금으로 전환될 수 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예금토큰은 기존 예금 대비 즉각적인 대금 수령이 가능하고,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결제를 지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금융당국은 이번 테스트에 한해 예금토큰의 발행과 유통을 은행의 수행 가능 업무로 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행법상 은행이 예금을 토큰화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금융당국은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할 방침이다. 한은의 기관용 CBDC와 연계된 이번 실험에 한해 은행이 해당 업무를 영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용자 보호에 필요한 부가 조건 등을 부과한다. 이머니 토큰(Ⅱ형 통화)과 특수 지급 토큰(Ⅲ형 통화)은 우선 개념검증 등 가상의 테스트만 실시한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테스트의 단계적 확대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다.

가상자산 규율체계 준비 현황, 관련 제도적 이슈 및 민간 가상자산 시장과의 정책적 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추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테스트 과정에서 분산원장의 기록과 은행의 장부 기록을 일대일로 실시간 연계해 지급결제의 법적 효과도 보장한다. 현재 은행이 거래의 법적 효력을 보장하기 위해 예금과 이체 등의 거래 내역을 장부에 기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이용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세부 모델 설계 과정에서 거래기록 암호화, 접근 권한 등에 대한 기술적 조치, 이용자 재산권과 관련한 은행의 설명 조치 등 장치도 마련한다.

금융당국은 이달 시스템 개발 사업자와 테스트 참여 은행을 모집, 선정해 설명회를 개최한다. 실제 테스트가 이뤄질 구체적인 활용 사례에 대해서는 참여 은행, 정부·감독당국과의 협의를 거친 후 11월 별도 공개한다.

서지희 기자 jhsseo@
유하영 기자 haha@

창간 13주년 기획기사 안내
웹3.0 창조적 파괴 ····· 4·5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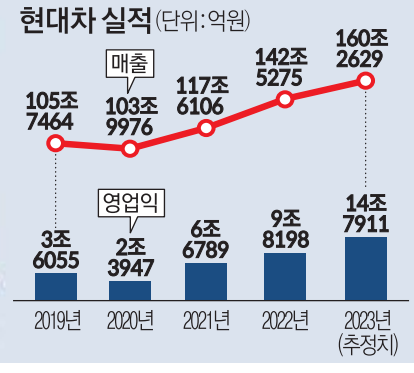
〈9월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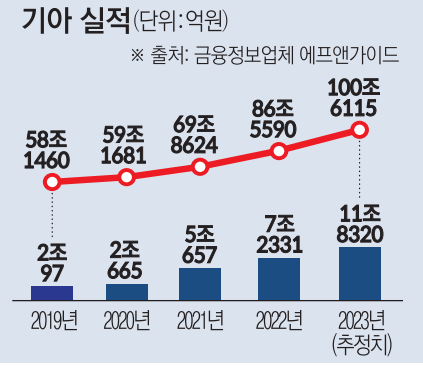
현대차·기아, 美 판매 '역대 최고'… 연매출 260兆 '청신호'

현대차그룹 '글로벌 승전보'

친환경차·SUV, 최다판매 견인
올 매출 14%·영업익 56%↑추정
美 18.4%↑…해외서 호실적 행진
전기차 확대, 시장 불확실성 대응







현대자동차·기아의 올해 연간 합산 매출액이 사상 최대인 260조 원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합산 영업이익은 26조 원을 넘길 것으로 점쳐진다.

4일 현대차그룹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 등에 따르면 현대차·기아의 올해 연간 매출액 추정치는 전년 대비 13.9% 늘어난 260조8744억 원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 전망치는 56.1% 급증한 26조6231억 원으로 추산된다.

현대차·기아는 올해 2분기까지 3개 분기 연속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3분기 실적은 2분기에 비해 다소 줄 것으로 예상되지만, 역대 3분기 기준으로는 최대 실적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대차의 3분기 매출액은 39조4752억 원, 영업이익은 3조4882억 원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4.7%, 124.8% 증가한 수치다. 기아의 3분기 매출액 추정치는 전년 동월 대비 7.7% 증가한 24조9441억 원, 영업이익은 263.1% 늘어난 2조7895억 원으로 집계됐다.

3분기 실적 전망이 전 분기보다 줄어든 원인으로는 내수 판매 위축이 꼽힌다. 현대차는 지난달 국내에서 5.3% 감소한 5만3911대를 판매했다.

현대차와 기아는 해외 시장에서는 호실적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달 작년 같은 달보다 0.9% 증가한 30만3240대를 해외 시장에 팔았다. 특히 친환경차와 스포츠 유틸리티차(SUV)를 앞세워 미국 시장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현대차그룹은 지난달 현대차(제네시스 포함)와 기아의 미국 판매량이 14만2869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8.4% 증가했다고 밝혔다. 역대 9월 기준 최고 실적이다.

업체별로는 현대차가 17.5% 늘어난 7만5605대를, 기아가 19.5% 증가한 6만7264대를 미국 시장에서 팔았다. 현대차의 고급 브랜드인 제네시스의 판매량은 6644대로 35.4% 늘었다. 이는 역대 월간 최다 판매 기록이다.

친환경차와 SUV가 실적을 견인했다. 현대차와 기아의 친환경차 판매는 각각 1만5900대, 9801대로 집계돼 128.9%, 127.1%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다만 4분기에는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 우려와 전기차 수요 둔화로 인한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 고금리로 인해 소비 심리가 위축됐을 뿐만 아니라 주요 국가들이 전기차 보조금을 축소하고 있다.

현대차 관계자는 "생산 및 판매 최적화를 통해 판매 최대화를 이루고 고부가가치 차종 중심의 믹스 개선 등으로 불확실한 경영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며 "전기차 판매 확대 등을 통해 시장 점유율을 꾸준히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강문정 기자 kangmj@

한화로보틱스 공식 출범…"협동 로봇으로 세계 공략"

한화·호텔앤드리조트 공동 참여
3남 김동선 전략기획 부문 총괄
푸드테크·보안 서비스 로봇 개발

미래 핵심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로봇 시장'을 이끌 한화의 로봇전문기업 '한화로보틱스'가 4일 공식 출범했다. 한화로보틱스는 자체 보유한 첨단기술을 바탕으로 국내 협동 로봇 시장은 물론 글로벌 시장을 석권할 계획을 세웠다.

이번에 신설한 한화로보틱스는 한화 모멘텀 부문의 자동화(FA) 사업부 중 협동로봇, 무인운반차(AGV)·자율이동로봇(AMR) 사업을 분리했다. 지분은 한화가 68%, 호텔앤드리조트가 32% 보유한다. 초대 대표이사는 서종휘 한화 모멘텀 부문 FA사업부장이 맡는다.

숙박·레저·식음료 사업장을 운영하는 한화호텔앤드리조트는 △음식 조리 △시설 관리 △보안 업무 등 사업장 곳곳에서 로봇 기술을 활용하기 위해 공동 사업 참여를 결정했다.

한화로보틱스의 전략 기획 부문을 총괄하게 된 김동선 전략담당 전무는 "로봇은 앞으로 인류의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 사업이 될 것"이라며 "사명감으로 푸드테크(Food Tech), 보안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할 수 있는 로봇 개발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로봇 분야는 미국, 유럽, 일본, 중국을 중심으로 기술 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 한화가 공을 들이고 있는 협동로봇은 최근 들어 시장 규모가 눈에 띄게 증가했다.

시장조사 기관 마켓앤마켓에 따르면 세계 협동 로봇 시장 규모는 2020년 약 1조 원에서 지난해 2조2000억 원으로 2배 넘게 증가했다. 2025년에는 6조4500억 원 수준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도 글로벌 협동 로봇 시장이 매년 40% 이상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화로보틱스는 사람과 같은 작업 공간에서 협력하는 협동 로봇을 중심으로 시장을 확대한다. 기존 산업용 협동 로봇뿐 아니라 고객을 직접 응대할 수 있는 서비스용 애플리케이션 개발로 라인업을 늘려갈 계획이다. 건물관리 로봇 등 자율주행 기술을 접목한 제품 출시도 추진한다.



김동선(오른쪽) 한화로보틱스 전무가 판교 한화 미래기술연구소에 방문해 협동 로봇 성능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제공 한화로보틱스

글로벌 시장에도 적극적으로 진출한다. 현재 한화로보틱스는 미국, 유럽 등 전 세계 30곳 이상의 거점을 통해 글로벌 시장 점유율을 점차 확대하고 있다.

한화호텔앤드리조트가 공동 사업 참여자로 나선 만큼 푸드테크 등 유통 현장 곳곳에도 첨단 기술을 도입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달 18일 열린 독일 하노버 공작기계 전시회 'EMO 2023'에서 협동 로봇 'HCR-14'도 처음 선보였다.

김 전무는 "수익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들의 삶을 편안하고 효율적으로 만드는 게 로봇 산업의 핵심"이라면서 "3D 산업과 같이 위험성이 크고 구인난이 심한 분야의 로봇 대체도 추진하는 등 한화로보틱스를 통해 세상을 긍정적으로 바꾸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동욱 기자 toto@



중고거래·계좌이체 … 디지털화폐 내년 일반인에 '맛보기'

블록체인 인증서, 거래 투명성↑
결제 중개기관 개입 줄여 비용↓

소상공인 판매대금은 즉시 입금
현행 카드, 전표 매입후 통상 3일

은행권, CBDC 기술검증 마무리
개인 간 송금·결제·정산 테스트



한국은행이 4일 'CBDC 활용성 테스트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기자회견을 하는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과 CBDC 일러스트 합성. 연합뉴스

CBDC 활용성 테스트 추진

한국은행과 금융당국이 디지털화폐인 'CBDC(중앙은행 디지털화폐)' 활용성 테스트를 공동 추진하면서 내년 말부터 은행 예금을 기반으로 한 예금토큰 발행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테스트 이후 토큰화된 지급 수단이 도입되면 디지털지갑 속에 현금 개념인 CBDC가 가계와 기업 등 경제 주체들에게 발행돼 일상생활에서도 쓸 수 있게 된다. 다만, CBDC 도입이 최종 결정된 것이 아닌 만큼 현행법 안에서 실험이 진행된다.

◇**금융 혁신서비스 개발 촉진** = 금융당국은 CBDC가 상용화될 경우 혁신 서비스 개발을 촉진할 것으로 예상했다. CBDC를 통해 디지털자산의 안전한 결제가 가능해지고, 장기적으로는 금융산업 내 경쟁 제고를 통한 소비자 후생이 증대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4일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이번 테스트를 계기로 중고물품 매매, 보험 등 복잡한 거래의 처리 프로세스를 개선할 수 있는 다양한 혁신 서비스가 개발될 경우 소비자 편의성이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예컨대 중고 전기차 시장의 경우 정보 비대칭성이 크고, 배터리 분리 구독 등의 판매 방식 도입 시 분산원장 기반의 인증서, 디지털통화 등을 통한 투명성과 효율성이 개선될 여지가 높다는 것이다.

결제 수수료도 절감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예금토큰 등은 현행 계좌이체와 유사하다. 이에 따라 카드 등에 비해 수수료 측면에서 판매자 후생이 증진될 수 있을 것이라는 얘기다. 이 관계자는 "중개기관의 개입이 최소화되면서 예금토큰 등을 통한 결제 수수료를 낮은 수준으로 책정할 수 있다"며 "새로운 지급수단 도입으로 경쟁이 제고되고 지급서비스 시장 전체의 수수료 인하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물품·서비스 판매 대금을 실시간에 가깝게 수령할 수 있어 소상공인 등의 유동성 관리에 도움이 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통상 신용카드를 이용한 판매 시 카드사가 매출전표 매입 후 통상 3영업일 후 대금을 판매자 계좌로 입금된다.

금융당국은 10월 이후 시스템 개발 사업자 및 참가 은행 모집·선정, 테스트 대상 활용사례 구체화 등을 실시한다. 이후 내년 4분기 일반 이용자 대상 테스트 실시를 목표로 내년 중 시스템 구축 및 일부 사례에 대한 개념검증 등을 완료할 계획이다.

◇**은행권 블록체인 플랫폼 '속도'** = 은행들은 당국의 CBDC 테스트에 맞춰 만반의 준비를 갖춘 상태다. 향후 특정 영역에서의 실증사업 및 관련 사업의 현실화가 이뤄질 것을 대비해 정책 모니터링 및 기초 기술을 활용한 기술검증(POC) 형태로 내재화를 마무리했다. 한은이 당장 CBDC를 발행했을 때 즉시 대응하기 위해서다.

신한은행은 이달 중 글로벌 블록체인 인천 콘퍼런스에서 대체불가토큰(NFT)을 발행할 예정이다. 신한은행은 2021년 3월 CBDC 대응 기술검증 사업을 완료했다. 이를 통해 CBDC 유통 환경 구성 후 개인 간 송금, 결제·정산과정 테스트를 끝냈다. 지난해 11월에는 한은 CBDC금융기관 연계 실험을 끝내고 행내 CBDC 블록체인 시스템 도입 및 구축을 완료했다.

하나은행은 블록체인 기술 개발에 한창이다. 하나은행은 6월 미래에셋증권과 미래 디지털 금융을 선도하기 위해서 토큰증권 및 웹3.0 사업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우리은행도 지난해 1월 블록체인 플랫폼 기술검증 추진을 끝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한은 CBDC 모의실험 연구 민간기관 유통을 위한 기술검증을 완료한 상태로 향후 한은 CBDC 유통 실험(활용성 테스트)에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NH농협은행은 지난해 2종의 블록체인을 개발, 검증 환경에 구축, CBDC를 활용한 다양한 시나리오 기반 디지털자산 기술검증을 진행했다. 농협은행은 블록체인 기반 해외송금 시나리오를 실증하는 등 연구, 실험을 통해 실사용에 필요한 다양한 가능성과 쟁점이 될 만한 문제점 등에 대한 검토를 마쳤다. 김범근 기자 nova@

"CBDC, 가상자산서 제외 검토"

한은 "예금토큰, 현행 예금과 유사"

디지털화폐 시대가 한 걸음 더 가까워졌다. 한국은행과 금융당국은 내년 4분기에 일반인을 대상으로 예금토큰 테스트를 실시한다. 예금토큰은 은행이 기관용 CBDC를 기반으로 분산 원장 기술 등을 이용해 발행하는 예금과 유사한 형태의 디지털 자산이다. 예금토큰을 가상자산 범위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다음은 'CBDC 활용성 테스트 추진 계획'과 관련한 일문일답이다.

- 예금토큰은 무엇이고, 기존 예금 및 다른 지급수단 등에 비해 어떤 점이 좋아질 수 있나

"예금토큰은 현행 수시입출식 예금에 최대한 가깝게 설계됐다. 예금토큰 보유자는 현행 계좌이체와 유사한 형태로 다른 사람에게 예금토큰을 이전할 수 있다. 장점으로는 스마트계약 등 프로그래밍 기능을 통해 혁신적인 지급 및 결제 서비스를 손쉽게 구현할 수 있다. 중개기관의 의존도가 축소돼 판매자의 결제 수수료가 낮아지고, 별도 정산 과정이 필요 없어 즉각적인 대금 수령이 가능하다. 토큰화된 자산 거래 시 보다 안전하며 효율적인 결제를 지원할 수 있다."

- 어떤 사례들을 테스트해 볼 계획인가

"이번 활용성 테스트에서는 단순 자금이체보다는 디지털 통화의 혁신적 기능에 주안점을 두고 다양한 활용 사례를 구현·검증해 볼 계획이다. 구체적인 활용 사례들에 대해서는 11월 중 별도 공개할 예정이다."

- 일반인 참가 테스트는 어떻게 진행되나

"일반인들이 참가하는 실거래 테스트는 내년 4분기 예정이다. 해당 테스트는 예금토큰을 기반으로 기간, 금액, 참가 인원 등에 제한을 두고 진행할 예정이다."

- 디지털통화를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거래하거나 가상자산 구매에 사용할 수 있나

"활용성 테스트에 참가하는 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통화는 CBDC 네트워크에서만 발행·유통되기 때문에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거래되거나 가상자산 구매 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다."

- CBDC와 예금토큰은 가상자산인가

"한국은행의 CBDC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가상자산의 범위에서 제외된다. 예금토큰 또한 발행 형태에 차이가 있을 뿐 기존 은행 예금과 유사하다는 특성을 고려해, 가상자산법상 가상자산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서지희 기자 jhsseo@



금융혁신 불지핀 생성형 AI… '유니버설 뱅크' 머지않았다

빅블러 시대 '디지털 금융' 박차

블록체인·NFT 등 새 금융서비스 촉발
하나의 플랫폼서 보험·카드·증권 가능
주요 은행들, 슈퍼앱 플랫폼 구축 강화

KB-SKT, 하나-삼성전자 신상품 개발
신한은행, 日금융사와 디지털금융 확대



블록체인, 대체불가능토큰(NFT), 챗GPT와 같은 생성형 인공지능(AI)의 등장은 금융권의 디지털 전환이 속도를 내는 데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은행권은 이 같은 신기술까지 접목해 '디지털 유니버설 뱅크'를 향한 플랫폼 경쟁에 불을 붙였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과 비금융 간 경계가 허물어지는 빅블러(Big Blur) 시대가 도래하면서 은행들은 '디지털 전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금융지주사들은 디지털 전환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 금융과 비금융을 아우르는 '디지털 유니버설 뱅크' 구축에 나서고 있다.

은행권이 '디지털 유니버설 뱅크'를 추진하는 것은 지난해 금융위원회가 금융규제혁신안을 통해 은행, 카드, 보험, 증권 등 서비스를 하나의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유니버설 애플리케이션(앱)을 허용했기 때문이다.

◇**'디지털 유니버설 앱' 구축 박차… 너도나도 속도전** = 디지털 유니버설 뱅크 구축을 위해 디지털 전환에 가장 무게를 두고 있는 곳은 KB국민은행이다. 이재근 국민은행장은 지난해 취임 당시 "차별화된 고객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KB스타뱅킹' 등 KB 플랫폼이 고객 일상생활을 아우를 수 있도록 '디지털 유니버설 뱅크'의 완성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은행은 KB스타뱅킹 앱 하나만으로 그룹 계열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종합금융플랫폼화를 추진하고 있다. KB스타뱅킹 앱 내에서 각종 금융서비스뿐만 아니라 KB증권의 해외주식 소수점 매매, 공모주 청약, KB손해보험의 미니보험, 대출비교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다.

국민은행은 올해부터 디지털 강화를 위해 상품 부서를 플랫폼 조직으로 전환해 상품개발자와 IT 인력 간 유기적인 협업도 강화했다.

신한금융지주는 올해 말께 그룹 통합 앱 '신한 유니버설 간편 앱'을 출시할 예정이다. 지난해 조용병 전 신한금융 회장은 "업종 간 경계가 낮아지고 온·오프라인 구분도 사라진 빅블러 시대에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고객 관점에서 제공하고자 그룹의 디지털 역량을 '신한 유니버설 간편 앱'에 담겠다"고 말했다. 신한금융은 이 앱에 은행, 카드, 증권, 보험 등 업권별 경계를 넘어 서비스 전반을 다룰 예정이다.

하나금융은 '하나원큐' 앱의 고도화를 통해, 우리금융은 '우리(WON)뱅킹' 재구축 사업을 통해 '디지털 유니버설 뱅크'에 다가간다.

◇**IT업체와 협력 통해 웹3.0 투자 나선 금융권** = 웹3.0 시대를 맞아 관련 시장 진출을 위한 은행권의 움직임도 활발해지고 있다.

하나금융은 지난해 SK텔레콤, SK스퀘어와 손잡고 웹3.0 등 혁신기업에 공동 투자하기로 했다. 3사는 미래유망 영역에 대한 투자부터 AI 기술과 데이터 등을 활용한 혁신 사업 추진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블록체인, NFT, 탈중앙화자율조직(DAO) 등을 특징으로 하는 웹3.0 관련 정보통신기술(ICT)을 금융과 접목에 나선다.

하나금융은 올해도 삼성전자와 손잡고 △금융과 IT 기술의 융복합 관련 신상품 및 서비스 개발 △블록체인 기반 월렛, NFT연계 상품 개발 △웹3.0 기반 신규 비즈니스 모델 협력 등 미래형 금융서비스 개발에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국민은행은 지난해 SK텔레콤과 손잡고 '리브 넥스트(NEXT)'에서 대화로 금융거래가 가능한 AI 뱅킹 서비스 '콜리와의 대화'를 선보였다. 3D 캐릭터인 콜리가 고객과 대화하고 요청에 응답하는 이 서비스는 은행의 금융서비스와 IT 기술의 결합을 통한 신금융 서비스로 주목받았다.

신한은행은 일본 금융그룹과의 협업을 통해 디지털 강화에 나섰다. 신한은행은 5월 도쿄 키라보시 금융그룹과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 및 디지털 금융 사업 확대를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사는 △리테일·디지털 사업 전략 수립 및 추진 △일본 금융시장에서의 디지털·ICT 사업 협력 △운영위원회 구성 및 신사업 발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토큰증권발행(STO) 진출에도 적극 나서는 모습이다. 은행권 STO 컨소시엄에는 NH농협은행, Sh수협은행, 전북은행, IBK기업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까지 가세하며 토큰증권 생태계 활성화에 나서고 있다. 하나은행은 은행권 STO 컨소시엄에 합류하지 않고, 하나증권과 STO 사업 협력을 진행 중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의 '디지털 전환'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고, 웹3.0 시대에 맞춰 금융서비스도 진화되고 있다"며 "디지털 유니버설 뱅크 경쟁뿐 아니라 블록체인, NFT, AI 등 다양한 기술을 어떻게 금융서비스와 결합해 고객 니즈를 충족시킬 것인지가 은행의 경쟁력을 가리는 잣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영 기자 ljy0403@

손에 안잡히던 블록체인… 실물자산 업고 조각투자 시장 열렸다

뜨겁게 달아오르는 '토큰증권'

음원 저작권료·미술품·부동산·한우 등
블록체인 기반 토큰 발행…자산·금융화
조각투자 상품 이르면 내년 거래소 상장

국내 시장 2030년 367조, 세계는 2경
은행·증권사 STO사업 앞다퉈 뛰어들어

'토큰증권(Security Token)' 시장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음악 저작권료를 시작으로, 한우와 미술품, 부동산 등에 이르기까지 합법의 테두리 안에서 거래 장소나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적은 돈으로 조각투자가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시중은행과 증권사들은 토큰증권 시장 선점을 위한 발걸음이 분주하다. 다만 경제 상황이 악화하고, 치솟는 시장금리로 개미들의 주머니가 말라가는 탓에 ST 업황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점은 변수다.

◇**"토큰증권은 그릇, 증권은 음식"** = 토큰증권이 시장의 많은 관심을 받는 이유는 그동안 자산화, 금융화할 수 없었던 자산을 거래할 수 있어서다. 토큰증권의 대상으로 여겨지는 자산은 기존에 조각 투자를 비롯해 토큰 증권의 형태가 가능했던 부동산, 미술품, 한우 등이다. 자동차와 같은 실물은 물론 음원 저작권과 같은 디지털 기반 자산도 토큰 증권 발행 대상이 된다.

시장도 급성장 중이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가 보스턴컨설팅그룹(BCG)에서 발표한 글로벌 시장 전망을 토대로 전망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토큰증권 시장 시가총액은 2024년 34조 원에서 2025년 119조 원, 2030년 367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글로벌 단위로 따지면 시장의 성장 가능성은 더 크다. 보스턴컨설팅그룹(BCG)과 싱가포르ICHX테크가 설립한 토큰 증권 발행(STO) 플랫폼 ADDX에 따르면 글로벌 토큰증권 시장은 지난해 3100억 달러(약 410조 원) 규모로 추정된다. 2030년에는 16조 달러(약 2경 원)라는 거대한 규모로 성장할 거란 예측이다.



STO는 실물 자산을 블록체인 기반의 토큰 형태로 발행하는 방식으로, 조각투자를 가능하게 하는 핵심 요소다.

요즘 큰 관심거리로 부상한 투자 대상은 미술품, 음원 저작권 수익, 부동산, 한우 등이다. 미술품 조각투자 업체로는 △테사 △소투(서울옥션블루) △아트투게더(투게더아트) △아트앤가이드(열매컴퍼니)가 있다. 한우 조각투자 업체로는 △뱅카우(스탁키퍼)가 있다. 이들 업체의 조각투자 상품은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투자계약증권'으로 인정받은 상태다. 음악저작권료 참여 청구권 조각투자로는 △뮤직카우가 있고, 부동산 조각투자로는 △카사 △소유(루센트블록) △펀블 등이 있다. 이들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돼 규제 샌드박스의 적용을 받는다. 이외에도 시계나 가방 등 상품 조각투자 업체로는 △피스(바이셀스탠다드) △트레져러가 있다.

◇**조각투자 상품, 이르면 내년 초 거래소서 거래** = 금융당국은 올해 10월까지 조각투자 장내시장 개설을 위한 규제특례(샌드박스) 심사를 개시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향후 일정이 예상대로 흘러간다면 이르면 내년 초 조각투자 상품이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토큰증권이 한국거래소 상장시장에 상장될 경우 증권사를 통해 토큰 증권 거래가 가능해지는 만큼 조각투자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은행권도 ST사업에서 먹거리를 찾는다. NH농협은행은 최근 Sh수협은행, 전북은행 등과 최초로 STO 컨소시엄을 결성했다. 6월에는 신한은행, 우리은행, IBK기업은행도 합류했다. 최근 KB국민은행도 함께하기로 했다. 하나은행은 미래에셋증권, SK텔레콤과 손을 잡고 시장에 뛰어들었다.

국내 증권사들은 앞다퉈 STO 비즈니스에 뛰어들고 있다. 조각투자 회사와 증권사, 블록체인 기술 기업이 협력하는 사례가 늘고, STO에 관심을 가진 기업과 증권사 간의 업무협약(MOU)도 이어지고 있다.

미래에셋증권은 투트랙 전략으로 실무적인 협력체계(ST Working Group)와 플랫폼연합체(Next Finance Initiative)를 운영 중이다. 한국투자증권은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등 금융기관과 협의체를 결성, 한국투자증권의 발행 역량과 카카오·토스뱅크의 플랫폼 역량의 결합을 꾀하고 있다.

하나증권은 아이티센의 금 거래 플랫폼 '센골드'로 원자재 조각투자 혁신 금융 서비스를 신청한 상태다. KB증권은 KB금융 그룹의 핀테크랩 'KB이노베이션허브'와 연계프로그램을 지원할 예정이다.

신한투자증권은 이지스자산운용, EQBR와 함께 핀테크 기업인 에이판다파트너스를 설립했다. 키움증권은 뮤직카우와 신탁 수익증권 계좌 관리 기관 계약을 체결하고 제휴 서비스의 연내 출시에 나설 예정이다. 대신증권은 부동산 조각 투자 플랫폼 카사를 인수한 후 대신증권 계좌 연동 부동산 투자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이다.

◇**토큰증권 위험성은 없나** = 전문가들은 STO 규제가 시행되면서 시장 내 각축전이 심화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예측을 하고 있다. 증권업을 중심으로 STO를 활용한 다양한 조각투자 상품과 STO 플랫폼 서비스가 출시되고 증권사 이외의 참여자들이 확대되면서 STO 시장 경쟁도가 증가할 것으로 봤다.

다만 토큰증권 시장이 초기 단계인 만큼 투자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증권신고서에는 '금리 변동이나 경기 변동이 기초자산인 미술품의 시가 하락을 유발할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성욱 기자 sajikoku@

"웹3.0은 차세대 인터넷"… 각국, 총성 없는 패권 전쟁

선진국 중심 제도 정비 착수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인터넷 시스템 '웹3.0'에 대한 각국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그동안 코인 시장 거품에 가려졌던 웹3.0의 기술적 가치와 가능성이 점점 부각되면서 신기술의 영향력을 선점하기 위해 각국 정부와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움직임도 바빠지고 있다.

웹3.0에 대한 시장의 관심은 어제오늘 일은 아니다. 2021년 가상자산(가상화폐) 투자 열풍이 불면서 블록체인에 대중의 관심이 커지게 됐고, 높아진 관심은 자연스럽게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웹3.0으로 옮겨가게 됐다. 웹3.0은 가상자산과 메타버스와 대체불가토큰(NFT) 분야를 아우르는 기술이다. 예를 들어 메타버스와 NFT는 둘 다 웹3.0 기술을 활용해 가상세계를 만들고, 이곳에서 가상부동산, 대체 불가한 디지털 아트를 만들어 소유하는 개념이다. 웹3.0이 '차세대 인터넷'이라고 불리는 이유이기도 하다.

웹3.0 산업 육성 현황

국가	
일본	• 웹3.0 정책 추진실 설치 • 가상자산 소득세율 20% 경감 추진 • 기업 발행 토큰에 법인세 미징수 추진
미국	• 책임 있는 가상자산 개발 위한 행정명령서명
EU	• EU 디지털 10년 정책 프로그램 승인 • 세계 최초 가상자산 규제 법안 의결
중국	• '국가 주도 블록체인 서비스 네트워크(BSN)' 인프라 확장 • 디지털위안화 개발 속도
홍콩	• 웹3.0 생태계 구축 및 가상자산 육성 위한 TF 출범

기업	
메타	•오큘러스 인수 후 VR 사업 가속화
구글	• 웹3.0 개발자 위한 '블록체인 노드 엔진' 출시
애플	• MR 헤드셋 출시

일본 정부 웹3.0 백서 주요 내용

배경 일본, 가상자산 규제 강화와 과세 불명확성으로 투자자 이탈 진단

제안1	웹3.0 장관직 신설
제안2	세금 규칙 개정 제안 (단기 매매 의사 없는 가상자산 보유자 과세 시 시장가 아닌 취득원가 기준 적용)
제안3	명확한 회계 표준 마련, 스테이블코인 유통 개선 등 웹3.0 환경 조성

※출처 : 니혼게이자이신문

코인 버블 이후 NFT·메타버스 블록체인 기술 '조용한 대중화'

日 장관직 신설, EU 디지털 유로 정부 주도 웹3.0 생태계 육성

홍콩 '금융 허브' 지위 탈환 계획 美 VR·개발엔진 등 서비스 확대



생성형 인공지능(AI)이 만든 메타버스·웹 3.0 이미지. AI가 사용자들에게 필요한 정보와 지식을 추출해서 보여주는 지능화된 이미지로 웹3.0 시대를 형상화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웹3.0 기술 핵심은 블록체인

지난해 루나·테라 코인 사태 이후 코인 가격이 급락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전염병 대유행)에 맞물려 한때 붐을 일었던 메타버스와 NFT의 거품이 꺼지면서 투자시장에서 책정하는 웹3.0의 가치와 전망도 흔들리게 됐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초기 도입 단계의 거품이 꺼진 이후 웹3.0 생태계가 오히려 대중화된 서비스 시장에 진입할 것으로 보고 있다.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미래학자인 버나드 마(Bernard Marr)는 올해 5월과 8월 경제전문지 포브스 기고문에서 "웹3.0 기술은 블록체인이 핵심인데, 블록체인은 이미 다양한 산업 분야에 채택되고 있다"면서 "웹3.0은 이용자들에게 훨씬 더 매력적이고 풍부하고 현실적인 온라인 경험을 제공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주요국들도 웹3.0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일본은 각종 웹3.0 산업 육성에 가장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다. 지난해 7월 '웹3.0 정책 추진실'이라는 정책 개발 전담 부서를 설치한 데 이어, 최근에는 개인 가상자산 소득세율 20% 경감, 기업의 자사 발행 토큰에 대한 법인세 미징수 방안 등을 추진하고 있다. 웹3.0 장관직 신설 계획도 있다. 집권 자민당은 4월 발간한 웹3.0 백서에서 웹3.0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부처와 기관을 넘나드는 협의를 주도하는 장관직 신설을 제안했다. 세제 개정도 검토하고 있다. 단기 매매 의사가 없는 가상자산 보유자에 대한 과세 시 시장가가 아닌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적용하는 방안이다.

美·EU·中·日 등 발빠른 대비

빅테크를 앞세워 오랜 기간 웹2.0 시대의 패권을 쥐고 있던 미국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해 3월 '가상자산의 책임 있는 개발을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디지털 자산의 제도정비에 본격 착수했다.

유럽연합(EU)은 지난해 11월 블록체인 인프라에 투자하는 'EU의 디지털 10년 정책프로그램'을 승인했으며, 이를 통해 2018년 설립된 유럽 블록체인 서비스 인프라(EBSI)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올해 4월 유럽의회가 세계 최초로 가상자산 규제법안(MiCA)을 의결, 2025년 1월부터 전면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중국도 2020년 출범한 '국가 주도 블록체인 서비스 네트워크(BSN)'를 중심으로 인프라를 확장 중이다. 비트코인을 비롯한 '탈중앙화' 된 민간 가상자산 거래는 전면금지하면서도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개발에는 속도를 내는 이유에는 국가 주도로 웹3.0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의도가 담겼다. 홍콩은 중국 본토와 별개로 웹3.0 글로벌 리더가 되는 것을 목표로 관련 산업 육성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7월 웹3.0 생태계 구축과 가상자산 산업 육성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출범했다. 웹3.0을 통해 국제금융 허브 지위를 되찾겠다는 의도다. 주요 정부 인사는 물론 유명 금융 기술기업들의 임원들이 TF 멤버로 참여했다. 특히 단순히 가상자산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닌 블록체인과 메타버스 등 다른 웹3.0 기술 분야 혁신을 적극적으로 촉진할 계획이다.

킬러서비스 물밑 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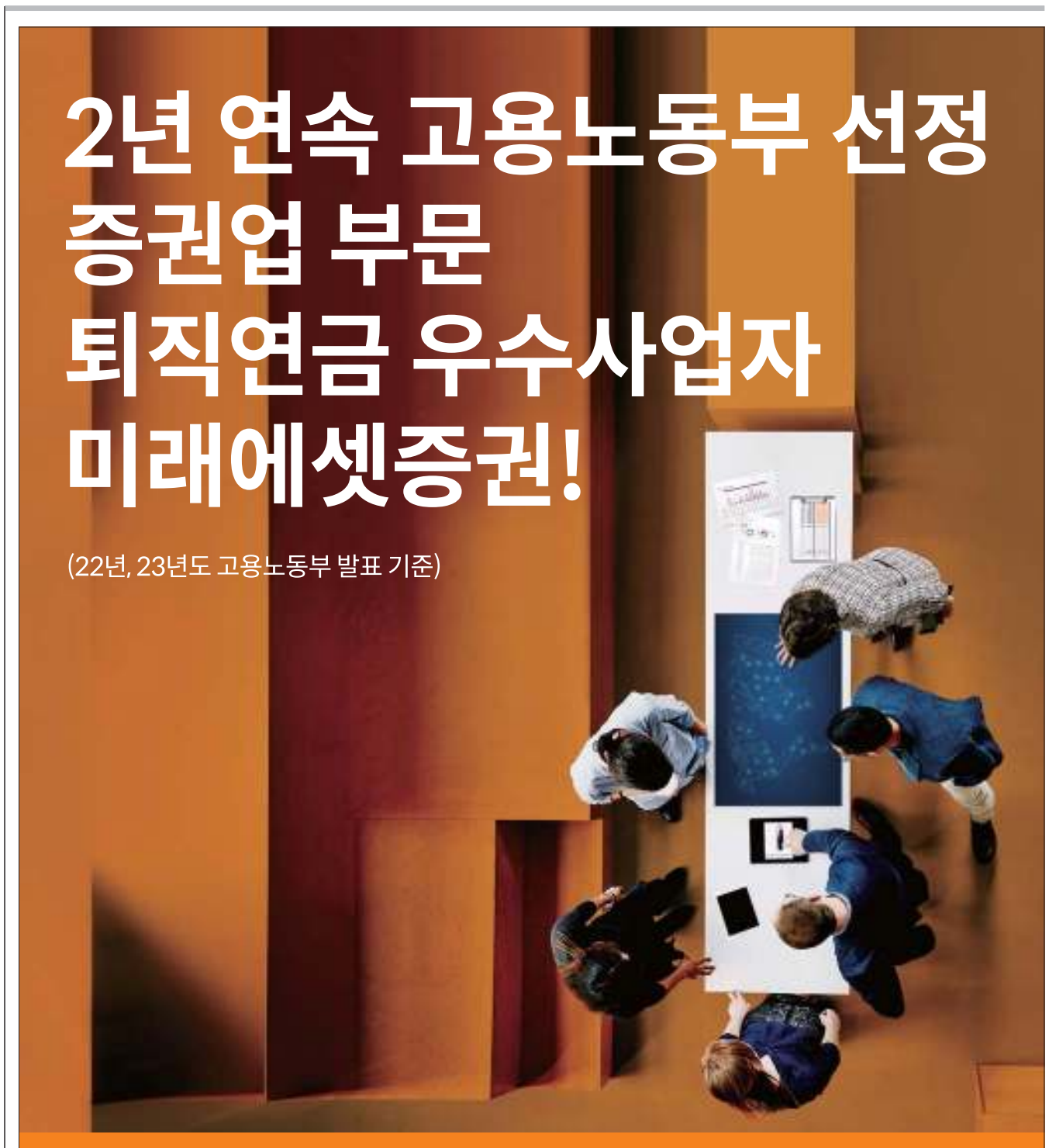
빅테크도 웹3.0 관련 기술 개발에 적극적으로 뛰어들면서 영향력 선점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결국 웹2.0을 대표하는 페이스북과 트위터처럼 웹3.0 시대에서도 대중화 요소를 가진 '킬러 서비스'를 내놓는 회사가 '네트워크 효과'를 누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기업이 메타다. 2021년 10월 페이스북이었던 사명을 메타로 바꾸면서 메타버스로 대표되는 웹3.0 기술 개발에 사활을 걸고 있다. 메타는 2014년 헤드셋 업체인 오큘러스를 인수한 이후 가상현실(VR) 기기 산업에 공을 들이고 있다.

구글은 지난해 10월 웹3.0 개발자를 위한 '블록체인 노드 엔진'을 출시했다. 스타트업들이 개별적으로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참여할 수 있는 '노드(Node)'를 구축하려면 비용도 많이 들고 관리가 쉽지 않은데 이를 해결해 주겠다는 의도다.

애플도 혼합현실(MR) 헤드셋 출시를 통해 기존 애플 생태계와 웹3.0 기술 접목을 모색하고 있다. 김나은 기자 better68@

고대영 기자 kodae0@



〈美 10년물 국채금리〉

4.8%로 치솟은 '美 국채 토네이도'… 국내기업 돈줄 말리나

금리 상승에 회사채 발행 위축
신규투자·부채상환 조달 막혀
신용 낮을수록 고금리 불가피
투자자 줄며 기업경영 악순환



#석탄 화력발전 업체인 삼척블루파워(이하 신용등급 A-)는 지난달 주력 사업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흐름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피해 가지 못하면서 2050억 원 규모의 수요예측에서 240억 원의 주문만 받았다. 메가박스 운영사인 콘텐트리중앙(BBB)도 영화관 산업의 회복이 순탄치 못하자 300억 원을 목표로 한 1년물 수요예측에서 100억 원을 모집하는 데 그쳤다.

롯데케미칼(AA0)은 같은 달 1년 만기로 1000억 원 규모의 기업어음(CP)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했다. 한 자산운용사 채권 운용 담당자는 "앞으로 금리가 더 오르면 채권 가격이 내려갈 수 있어 기관들이 관망하는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미국의 국채금리(10년 물) 급등의 후폭풍으로 국내 기업들의 자금난이 심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업들은 회사를 운영하거나 신규 투자, 기존 부채 상환 등을 위해 회사채를 찍어 시장에서 돈을 빌린다. 그러나 금리 상승에 따른 채권값 하락과 경기 침체 우려에 투자자들이 돈을 빌려주길 꺼리는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자금 마련에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

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3분기 비금융 일반 사기업 회사채(SB)는 직전 분기 대비 37% 급감한 17조1000억 원이 발행됐다.

신용도가 높지 않은 기업들의 회사채 발행은 더 험난해졌다. 올해 3분기 신용등급 'AA' 미만 회사채의 발행액은 1조8000억 원으로 전체 발행액의 10.3% 비율에 그친다. 직전 2분기(4조6000억 원) 대비 절반도 못 미치는 셈이다. 9월 수요예측에 나선 기업의 신용등급을 살펴보면 'AAA'(KT&G) 또는 'AA'(SK, 현대트랜시스, 포스코퓨처엠 등) 우량 등급들이 빼곡하다. 일부 'A-' 또는 'BBB' 등급 기업은 수요예측에서 투자자들의 자금을 끌어모으지 못하고 '미매각'이라는 굴욕을 겪어야 했다.

이날 AA-급 회사채 금리(3년물)는 연 4.871%를 기록했다.

올해 초 1월 2일 5.262%에서 3월 24일 3.928%까지 떨어졌던 금리는 7~8월 이후 상승세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고금리 정책이 기존 예상보다 오래갈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리면서 3일(현지시간) 미국 국채 금리가 2007년 이후 16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한 여파다. 10년 만기 미 국채 금리는 이날 장중 연 4.81%를 기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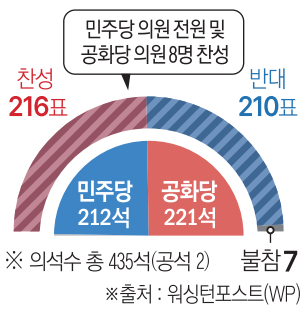
채권시장이 불안해서 연초처럼 5%대로 금리가 올라설 경우 국내에서 '채권 대학살' 사태가 나타날 수 있다는 비관적인 전망까지 나온다. 채권 대학살은 1994년 앨런 그린스펀 연준 의장의 금리 인상으로 채권값이 폭락하면서 한 해 동안 투자자 손실 등으로 1조 달러가 넘는 자금이 증발한 사건이다.

미국 국채 금리가 오르면 한국 국채 금리도 덩달아 오를 수밖에 없다. 신용도가 좋은 미국(무디스 기준 신용등급 Aaa급)이 이자를 더 주면, 자금이 미국 국채 시장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신용도가 낮은 한국(Aa2급)은 더 많은 이자를 줘야만 자금을 조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국채보다 신용도가 낮은 회사채 금리는 더 가파르게 오를 수밖에 없다. 기업들은 고금리를 얹어주고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돈을 빌리거나 자금 조달을 포기할 수밖에 없게 된다.

정회인 기자 hihello@

美 사상 초유의 하원의장 축출
어수선한 경제 '셧다운' 먹구름

임시예산 놓고 분열 심화
국가 신용강등 위험 고조
국채금리 상승세에 기름



미국에서 역사상 처음으로 하원의장이 해임됐다. 정치권의 극심한 분열과 대립으로 미국은 경제적 불확실성이 커지는 위기를 맞게 됐다.

3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하원에서 표결에 부쳐진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 해임 결의안이 찬성 216표, 반대 210표로 가결됐다. 가결 직후 스티브 워맥 의원이 하원의장직 공석을 선언했고 하원은 휴회에 들어갔다.

이번 표결은 공화당 강경파가 주도했다. 연방정부 셧다운(일시 업무정지)을 막기 위해 처리된 임시예산안에 자신들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게 해임을 추진한 이유였다. 전날 맷 게이츠 하원의원이 매카시 의장 해임결의안을 제출했다.

공화당 강경파 의원 8명이 찬성표를 던지고 민주당마저 야당의 내분을 바라면서 표결 전 해임 찬성을 당론으로 내걸어 매카시 의장은 축출됐다.

하원의장은 미국 내 서열 3위로, 해임은 미국 역사를 통틀어 이번이 처음이다. 초유의 사태에 정국은 안갯속으로 들어갔다. 현재 공화당과 민주당은 정부지출 삭감과 우크라이나 지원, 남부 국경 강화 등 수많은 안건을 놓고 대립하고 있다. 패트릭 맥헨리 금융위원장이 임시 하원의장에 지명됐지만, 임시직이어서 법안 통과 등 중요 업무를 할 수 없다.

정치적 불확실성이 장기화하면서 미국 경제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앞서 통과한 임시예산안은 45일짜리인 탓에 연말 또 한 번의 대충돌이 확실시된다.

그 와중에 하원까지 마비되면서 정부 셧다운 가능성은 한층 커졌다. 스테파니 바이스 의원은 "현재로선 셧다운을 막기 위한 하원의 작업이 중단될 가능성이 크다"며 "재정적 책임을 회복하는 데 43일 남았다"고 경고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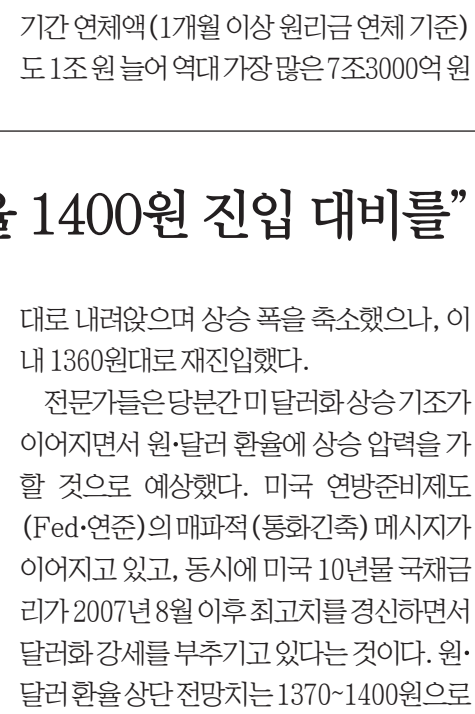
셧다운이 일어나면 현재 유일하게 미국 국가신용등급을 최고등급으로 유지해온 무디스도 강등 행렬에 동참할 수 있다. 지난주 무디스는 보고서에서 "셧다운으로 미국 경제가 붕괴할 가능성은 작지만, 미국의 시스템과 통제력이 다른 'Aaa' 등급 국가보다 취약하다는 점을 분명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 혼란은 최근 고공행진을 벌이는 미국 국채 금리 상승세를 한층 부추길 수 있다. 스티펠의 브라이언 가드너 정책 전략가는 "시장은 정부 기능 장애에 부정적으로 반응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고대영 기자 kodae0@

자영업자 대출 1043조·연체 7.3조 '역대 최대'

한은 자영업자 대출 현황
2분기 대출잔액 9.5조·연체 1조 증가
비은행 2금융권 대출 부실 조짐 뚜렷



자영업자들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빌린 뒤 원리금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올해 2분기(4~6월)에만 자영업자 대출 잔액과 연체액이 각각 9조 원과 1조 원 이상 늘어 역대 최대 규모에 이르렀고, 연체율도 2금융권을 중심으로 8년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까지 치솟았다.

4일 한국은행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자영업자 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2분기(기말 기준) 현재 자영업자의 전체 금융기관 대출 잔액은 1043조2000억 원으로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이 수치는 한은이 자체 가계부채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개인사업자대출 보유자를 자영업자로 간주하고, 이들의 가계대출과 개인사업자대출을 더해 분석한 것이다.

대출 잔액은 지난해 3분기(1014조2000억 원) 이후 4분기 연속 1000조 원을 넘어섰고, 1분기(1033조7000억 원)와 비교해 불과 3개월 사이 9조5000억 원 불어났다. 같은 기간 연체액(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 기준)도 1조 원 늘어 역대 가장 많은 7조3000억 원에 이르렀다. 연체율 상승세도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다. 2분기 기준 자영업자의 전체 금융기관 연체율은 1.15%로, 1분기(1.00%)보다 0.15%포인트(p) 높아졌다. 1.15%는 2014년 3분기(1.31%) 이후 8년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자영업자 연체율이다.

자영업자 대출의 부실 조짐은 비(非)은행 2금융권에서 뚜렷했다. 2분기 기준 은행권과 비은행권 자영업자 연체율은 각 0.41%, 2.91%로 집계됐다. 석 달 사이 은행에서 0.04%p 오르는 동안 비은행권에서는 0.37%p 급등했다.

은행권 연체율은 2016년 3분기(0.43%) 이후 6년 9개월 만에, 비은행권 연체율은 2015년 4분기(3.05%) 이후 7년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세부 업권으로 나눠보면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2.52%), 저축은행(6.42%), 카드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1.97%)의 2분기 연체율이 3개월 사이 0.30%p, 1.25%p, 0.17%p씩 높아졌다.

서지희 기자 jhsseo@

돌아온 '킹달러'…"환율 1400원 진입 대비를"

원·달러 1363.5원… 두 달새 최대폭
"美국채 금리 진정돼야 상승 멈출 것"

원·달러 환율이 2개월여 만에 최대 폭으로 급등했다. 미국 국채금리 상승으로 인한 달러화 강세 영향이 컸다. 시장 전문가들은 1400원대 진입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한다고 조언한다.

4일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14.2원 오른 1363.5원에 장을 마감했다. 종가 기준으로 작년 11월 10일(1377.5원) 이후 최고치이며, 올해 8월 2일(1298.5원) 14.7원 급등한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오른 것이다.

이날 원·달러 환율은 1360원으로 개장한 이후 줄곧 등락을 반복했다. 장 초반 1350원대로 내려앉으며 상승 폭을 축소했으나, 이내 1360원대로 재진입했다.

전문가들은 당분간 미 달러화 상승 기조가 이어지면서 원·달러 환율에 상승 압력을 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매파적(통화긴축) 메시지가 이어지고 있고, 동시에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2007년 8월 이후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달러화 강세를 부추기고 있다는 것이다. 원·달러 환율 상단 전망치는 1370~1400원으로 예상되고 있다.

백석현 신한은행 S&T센터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지금 시장을 움직이는 건 미국채 금리이고, 미국채 금리 상승세가 진정되면 원·달러 환율의 추가 상승도 멈출 것으로 보고 있다"며 "미국채 금리가 언제 진정되느냐에 달려 있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이어 "미국채 금리만 진정되면 여기서 당장 꺾여도 이상할 게 없는 상황이지만, 단기적으로 미국채 금리 때문에 원·달러 환율이 조금 더 올라갈 여지는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1370원대까지도 가능은 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민경원 우리은행 연구원 역시 "미국 연준의 매파 스탠스가 거론되면서 금리 추가 인상에 대한 부담감이 분명히 상존하고 있다"며 "여기에 미국 국채 금리가 올라가는 게 결국 상승 압력을 가하고 있다고 본다"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외환 당국의 구두개입 등 시장 변동성 확대에 따른 경계심리가 원·달러 환율의 급등을 제한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유상대 한국은행 부총재가 이날 주재한 시장 상황 점검 회의에서 "국내 가격변수 및 자본 유출입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필요시 시장 안정화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서지희 기자 jhsseo@

지구를 위한 그린플루언서 SK incheon petrochem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SK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더 나은 지구와 인류의 미래를 위한 행동,
World EXPO 2030 BUSAN의 시작!



[이 작품은 다음 키워드를 기반으로 SK이노베이션과 AI가 함께 그린픽쳐입니다]
#에너지 및 자원순환 #선한 에너지 #선제적 혁신 #효율적 에너지 솔루션 #이해관계자와 함께 성장

작품명 세상을 지키는 선한 에너지

SK인천석유화학은
에너지 공급과 자원의 재순환을 통해
세상을 선한 에너지*로 채웁니다

*선한 에너지는 탄소를 줄여 나가는 에너지 전환을 통해
모두에게 이로운 혜택을 전하고자 하는 SK인천석유화학의 지향점입니다

Hi SK인천석유화학의 그린픽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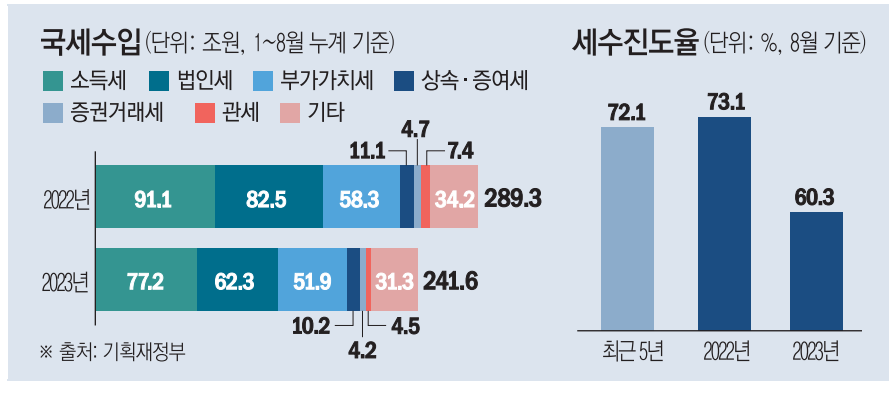
SK innovation SK energy SK geo centric SK on SK enmove SK incheon petrochem SK trading international SK ie technology SK earthon

〈1~8월〉

국세 47.6兆 덜걷혀… '세수펑크' 올 60兆 현실화

기재부 '8월 국세수입 현황'

법인세·소득세·부가세 모두 뚝
241.6조로 세수진도율 60.3%
민생회복 가용재원 총동원 방침



올해 1~8월 세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7조 원 넘게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기업 영업이익 감소와 중간예납 납부세액 감소, 부동산 거래 부진 등에 따른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주요 세목의 세수 감소 확대가 전체 세수 감소폭을 키웠다. 정부는 올해 국세수입 결손분이 59조1000억 원에 달할 것 보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4일 발표한 '8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해 1~8월 국세수입은 241조6000억 원으로 전년대비 47조6000억 원 줄었다. 8월 국세수입(24조 원)이 1년 전보다 4조3000억 원 줄면서 1~8월 세수 감소분이 1~7월(-43조4000억 원)보다 더 확대됐다. 8월 국세 수입 예산 대비 진도율은 60.3%였다. 이는 작년 8월 실적 대비 진도율(73.1%)과 최근 5년 평균 실적 대비 진도율(72.1%)을 크게 밑도는 것이다.

올해 남은 기간 지난해와 같은 수준의 세금을 걷는다고 해도 올해 세수는 세입예산(400조5000억원) 대비 52조3000억 원 부족하다. 세목별 세입 현황을 보면 1~8월 법인세수는 62조3000억 원으로 전년대비 20조2000억 원 감소했다. 지난해 기업 영업이익 감소 및 올해 8월 중간예납 납부세액 감소 등이 영향을 미쳤다. 8월 한 달간 법인세는 3조1000억 원 감소했다.

8월까지 소득세(77조2000억 원)도 부동산 거래 감소(양도소득세 감소) 및 기저효과 등으로 13조9000억 원 덜 걷혔다. 부가가치세도 수입 감소 및 세정지원 기저효과 등으로 6조4000억 원 감소했다. 8월만 놓고 보면 각각 1조2000억 원, 2000억 원 줄었다. 8월까지 관세(4조5000억 원)도 수입감소 등으로 2조8000억 원 줄었다.

정부는 세수 부족 흐름이 지속되자 지난달 세수 재추계 발표를 통해 올해 국세수입이 341조4000억원 걷힐 것이라고 예상했다. 당초 예측치보다 59조1000억 원 줄어드는 셈이다. 정부의 예상대로 걷힌다면 올해 본예산 대비 역대 최대 세수 결손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기업 영업이익 급감, 자산시장 위축 등을 이유로 올해 국세수입 전망치를 기존 400조5000억 원에서 341조4000억 원으로 대폭 낮춰서다. 정부는 올해 대규모 세수 결손으로 민생·경제활력 지원 등 주요 재정사업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가용재원을 총동원해 대응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세계잉여금(4조 원 내외),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 등 기금 여유재원(24조 원 내외)과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등에 대한 통상적 예산 불용(작년 7조9000억 원) 등으로 세수 결손분을 대체할 계획이다.

세종=서병곤 기자 sbg1219@



한덕수(가운데) 국무총리가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을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다음카카오 '아시안게임 中응원' 댓글, 해외세력 조작…

韓 "여론조작 방지 범부처 TF 구성"

〈한덕수 국무총리〉

80%가 네덜란드 등 해외경유 접속
"가짜뉴스는 심각한 사회적 재앙
입법대책·재발방지책 마련" 지시

한덕수 국무총리가 4일 아시안게임 한 중전을 전후해 포털서비스 다음카카오에 중국 응원 댓글이 수천만 건 쏟아진 사태와 관련해 '여론 왜곡 조작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범부처 태스크 포스(TF)를 시급히 구성하라고 지시했다.

한 총리는 이날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긴급 현안 보고를 받은 뒤 "방통위를 중심으로 법무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유관 부처와 함께 '여론 왜곡 조작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범부처 TF를 시급히 구성하라"고 지시했다고 국무조정실이 전했다.

한 총리는 "가짜뉴스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심각한 사회적 재앙"이라며 "과거 '드루킹 사건'과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범부처 TF를 신속하게 꾸려 가짜뉴스 방지 의무를 포함한 입법 대책과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앞서 1일 열린 항저우 아시안게임 남자축구 한국과 중국의 8강전 당시 다음 응원 페이지에서는 중국팀을 클릭해 응원한 비율이 한때 전체의 91%에 달해 논란이 일었다.

방통위는 해당 경기 전후로 다음 응원 페이지에 뜬 '응원클릭' 약 3130만건(확인 IP 2294만건)을 긴급 분석한 결과 "댓글 중 약 50%는 네덜란드를, 약 30%는 일본을 경유해 들어온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고했다. 특히, 해외 세력이 가상사설망(VPN)을 악용해 국내 누리꾼인 것처럼 우회 접속하거나 매크로 조작으로 중국 응원 댓글을 대량 생성하는 수법이 활용됐다고 방통위는 분석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은 "뉴스타파(김만배 씨 녹취록 왜곡 편집) 보도의 충격이 가지기도 전에 건강한 민주주의를 지키는 공론장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을 또 보여줘 국민 충격이 정말 크다"며 "이런 게 발전하면 바로 국기 문란 사태가 된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러한 여론 왜곡이 네덜란드, 일본 등 외국의 인터넷을 우회한 소수의 사용자에 의해 벌어진 바, 국민 여론을 분열시키는 행위가 국내는 물론 해외 세력에 의해서도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확인된 것"이라면서 "방통위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에 한계가 있다. 이른바 입법 미비 상태이기 때문에 범부처 TF에서 논의를 좀 해서 실태조사가 이뤄지고 검찰 수사도 이뤄지면 제재 방안도 나오고 제도적 개선도 따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곽도흔 기자 soqood@



'계열사 부당지원' 호반건설, 과징금 608억 취소소송

참여연대, 김상열 회장·두 아들 검찰에 '업무상 배임 혐의' 고발

호반건설, 불복 행정소송 제기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부 수사檢 수사·法재판 동시 진행 전망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608억 원을 부과받은 호반건설이 이에 불복하는 취지의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4일 법원에 따르면 호반건설 측은 지난달 28일 공정위를 상대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청구' 소송을 서울고등법원에 접수했다. 이 사건은 서울고법 행정재판 전담 재판부에 배당될 예정이다.

공정거래법상 과징금 부과 등 행정소송은 서울고법이 관할한다. 공정위 심결은 1심 재판 성격으로, 불복소송은 서울고법(2심)과 대법원(3심)에서 진행된다.

앞서 호반건설 측은 8월 31일 공정위로부터 의결서 '기업집단 호반건설 소속 계열사들의 부당지원행위 등에 대한 건'을 수령했다. 공정위의 의결서는 법 위반 판단 근거 등이 담긴 판결문 격이다. 호반건설이 수령한 이 의결서는 호반건설의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공정위의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내용을 담고 있다.

6월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은 608억 원이다. 이는 잠정 금액으로 이후 호반건설 측이 수령한 의결서에는 최종적으로 확정된 액수가 담겼을 것으로 보인다.

호반건설이 행정소송을 진행하더라도 우선 과징금은 납부해야 한다. 향후 행정법원이 행정소송에서 과징금이 과하다는 판단을 내리면 일정 부분을 다시 돌려받게 된다.

6월 15일 공정위 발표 자료에 따르면 호반건설은 김상열 회장 두 아들이 소유한 회사를 부당하게 지원했다. 김 회장이 지배하는 회사 호반건설이 장남 김대헌 호반그룹 기획총괄 사장의 회사 호반건설 주택과 차남 김민성 호반산업 전무의 회사 호반산업을 지원하는 식이다.

2013~2015년 건설사들의 공공택지 수주 경쟁이 치열하던 당시 호반건설은 다수의 계열사를 동원해 추첨입찰에 참가시키는 소위 '벌떼입찰' 방식으로 공공택지를 확보했다. 이 과정에서 호반건설이 2세 회사의 공공택지 입찰신청금을 414회에 걸쳐 무상으로 대여해주는 등 부당하게 지원했다는 의심을 받는다.

공정위는 "국민의 주거안정 등 공익적 목적으로 설계된 공공택지 공급제도를 악용해 총수일가의 편법적 부의 이전에 활용한 행위를 적발 및 제재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밝히며 과징금액 608억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검찰도 이 같은 내용을 들여다보고 있다. 참여연대는 8월 29일 벌떼입찰과 관련해 김 회장과 그의 두 아들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용성진 부장검사)에 배당됐다.

검찰의 형사사건 수사가 진행되는 동시에 서울고법에서도 행정소송이 동시에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경우 행정소송이 검찰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사건이 동시에 진행되면 검찰은 행정소송 결과를 참고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김이현 기자 spes@

이수진 기자 abc1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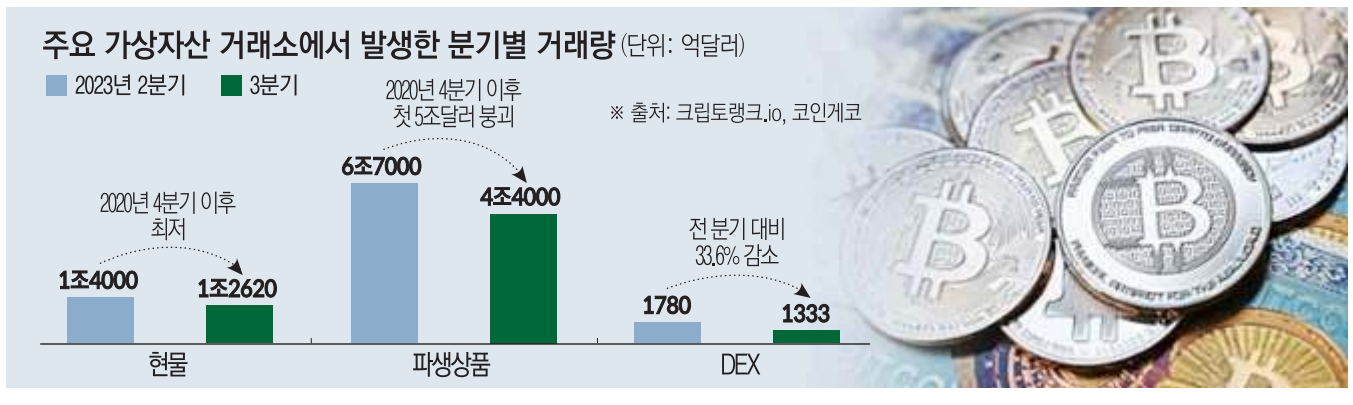
'크립토 윈터' 장기화… 가상자산 거래량, 2020년 4분기 이후 최저

3분기 파생상품 첫 5조달러선 붕괴

현물거래 2분기보다 1380억달러↓

업계, 4분기부터 반등 기대하지만

'비트코인 ETF' 승인 연기가 변수



올해 3분기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의 현물 및 파생상품 거래량이 2020년 4분기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며 가상자산 시장의 겨울이 깊어지고 있다. 대장주 비트코인 역시 이더리움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출시로 반짝 상승했지만, 3분기 11% 하락하며 약세장이 지속되는 모습이다. 업계는 여전히 대규모 자금이 유입될 수 있는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4일 가상자산 분석 플랫폼 크립토랭크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의 현물 및 파생상품 거래량이 2020년 4분기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올해 2분기 약 1조4000억 달러를 기록했던 현물 거래량은 3분기 들어 약 1조2620억 달러까지 감소했다. 같은 기간 파생상품 거래량 역시 5조 달러선이 붕괴했다. 지난 2분기 파생상품 거래량은 약 6조7000억 달러였다. 주요 탈중앙화거래소 거래량은 2분기 대비 33.6% 하락한 약 1333억 달러를 기록했다. 대장주 비트코인도 큰 힘을 쓰지 못하는 모습이다. 비트코인 가격은 지난달 기준 2만6900달러 대를 나타내며 9월 동안 약 4% 상승했으나, 3분기 기준으로는 약 11% 하락 마감했다.

다만 4분기에 접어들면서 시장이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조금씩 커지는 중이다. 이날 오후 3시 기준 2만7397 달러를 나타내며 9월 말 가격을 넘어섰고, 2일에는 약 한 달 반 만에 2만8000달러 대를 돌파하기도 했다. 이 같은 상승은 같은 날 있었던 이더리움 선물 ETF 출시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업계는 이더리움 선물 ETF를 현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검토 중인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전초전으로 인식하고 있다.

기대 속에 출시된 이더리움 선물 ETF지만, 성적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3일 에릭 발추나스 블룸버그 ETF 분석가는 자신의 X(구 트위터)에 "통상적인 ETF라고 보면 정상적인 수준이지만, 거래 시작 15분 만에 2억 달러가 거래된 BITO(프로셰어스 비트코인 전략 ETF)와 비교하면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업계는 더욱 비트코인 현물 ETF에 기대를 걸고 있는 상황이다. 비트코인 현물 ETF를 통해 대규모 기관자금이 시장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일례로 코빗리서치센터가 지난달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이후 1년 안에 적어도 200억 달러의 자금이 가상자산 시장으로 유입될 것으로 예측된다.

다만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지난달 29일부터 30일 사이 발키리·비트와이즈·블랙록·인베스코·피델리티·위즈덤트리·반에크가 신청했던 비트코인 현물 ETF의 승인을 모두 연기했다. 이로 인해 당초 이달 중순이었던 승인 마감 기한은 대부분 내년 1월로 미뤄진 상황이다.

이시온 기자 zion0304@



목동 한가운데 찾아온 그리너리 공간, 보타닉 하우스

현대백화점 목동점 본관 7층

보타닉 하우스는 현대백화점 목동점이 새롭게 선보이는 식물 공간입니다.
800여 평의 탁 트인 공간에서 정원과 햇살, 파리에서 온 최상급 스페셜티 커피 로스터리 떼르 드 카페와 함께 일상 속 작은 쉼표를 만드세요.

현대백화점그룹 통합멤버십 H.point 현대백화점 | 현대아울렛 | 현대백화점면세점 | 더현대닷컴 | 현대홈쇼핑 | 현대H몰 | 현대그린푸드 | 한섬 | 더한섬닷컴 | 현대리바트 | 현대L&C | 지누스 | 현대렌탈케어 | 현대드림투어 | 현대어린이책미술관

지금 둘러보기

민생경제 뒷전, 정쟁에만 몰두… 10월 국회도 '가시밭길'



국감 종합상황실 현판식 이광재(왼쪽 두 번째) 국회사무총장과 권영진(세 번째) 입법차장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사과 앞에서 열린 국정감사 종합상황실 현판식에서 참석자들과 현판을 걸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한국과 미국 국회 모두 여야 대치로 국정이 마비되고 있다. 민생경제를 내팽개친 듯한 모습도 닮은꼴이다. 미국이 스태그플레이션(고금리에 물가가 오르는 상황) 위험에 노출되는 가운데 한국도 이 여파로 대출 금리가 상승하는 등 금융 불안이 심각해질 가능성이 커졌다.

3일(현지시간) 공화당 케빈 매카시 의원은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하원의장에서 해임됐다. 매카시 전 의장 개인 차원에서는 공화당 강경파를 진압하지 못하면서 벌어진 결과지만, 국회 차원에서는 여야가 그 어떤 합의점조차 찾지 못하면서 생긴 결과다.

국내 상황도 다르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고, 이에 따른 법원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여야 공방은 거세지는 모습이다.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에 민생 영수회담을 제안했지만, 국민의힘은 이를 정치적인 수사로 규정해 "연목구어(緣木求魚·나무에 올라 물고기

'영수회담' 놓고 여야 신경전 팽팽
김행·유인촌 인사청문회 기싸움도
노란봉투법·방송법… 본회의 뇌관
국감선 '전·현정권 책임공방' 전망

를 얻으려 한다)"라고 비판했다. 지난달 29일 이 대표가 회담을 제안한 뒤 5일 동안 이를 두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10월 국회에도 옮겨붙었다. 당장 5일 예정된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부터 무산 위기까지 갔지만, 극적으로 봉합됐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27일 단독으로 인사청문회를 열기로 의결하면서 국민의힘이 반발했기 때문이다. 김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들을 두고 여야 공방이 예상된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지명 철회를 요구한 가운데 같은 날 열릴 문체부 청문회도 여야 싸움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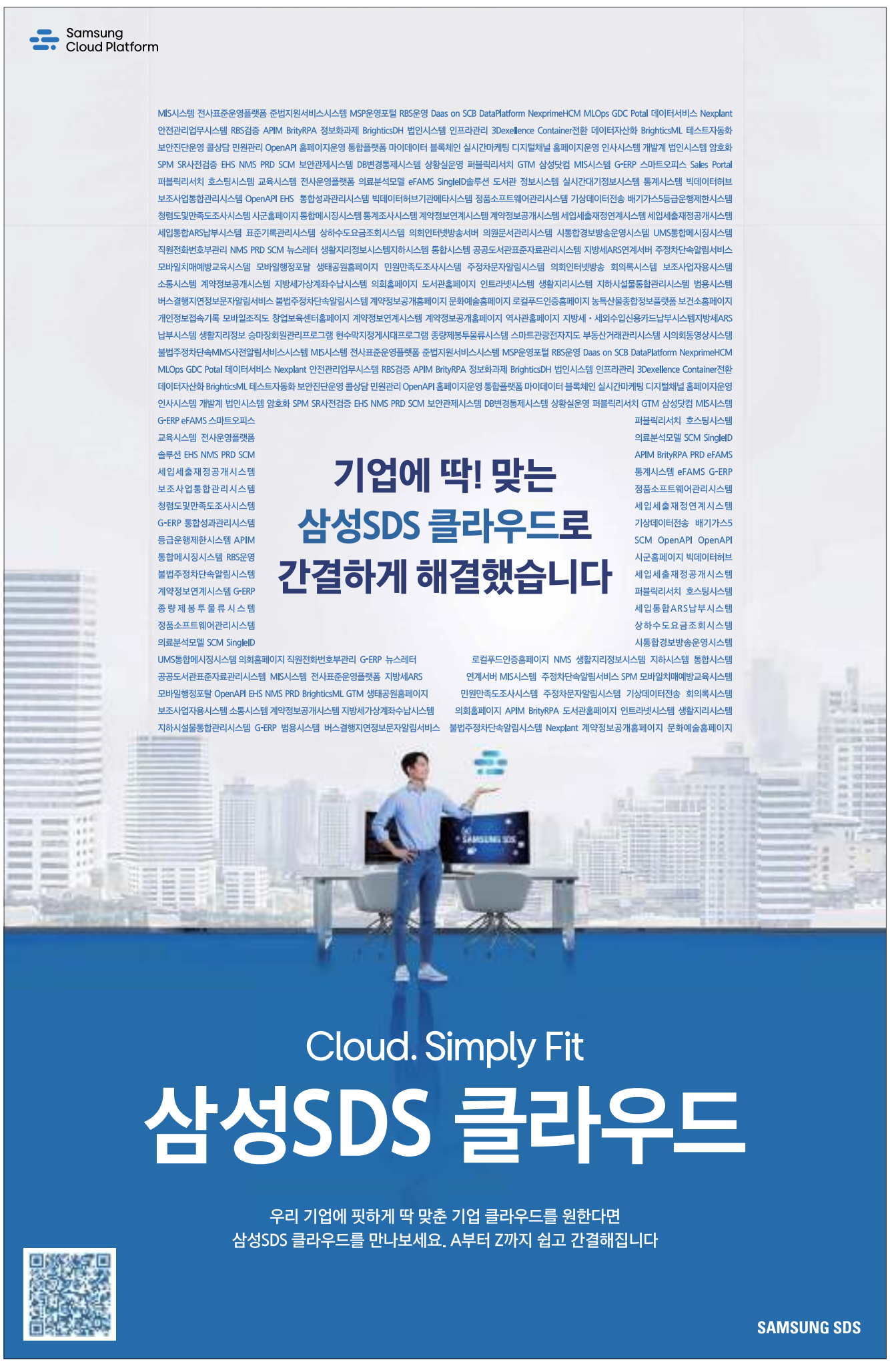
6일 열릴 국회 본회의가 특히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 민주당 윤영덕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 후 기자들에게 "당론으로 채택해야 한다는 분들이 다수"라며 "6일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채택할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부결된다면, 사법부 수장의 공백 장기화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지연 등의 여파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또 해병대 채 모 상병 사망 사건의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특검법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지난달 21일 본회의에서 강행하려다 김진표 의장에 반려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법 개정안도 본회의 뇌관이 될 수 있다. 해당 법안들이 상정될 경우 민주당은 의석(168석)으로 해당 법안을 처리할 심산이다. 국민의힘은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면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예고했다.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11일)를 기점으로 여야 비판 수위는 한층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내년 총선의 전초전으로 여겨지는 선거인만큼 각 당에 의미하는 바가 크다. 선거 승패에 따라 정국의 주도권을 쥐려고 할 움직임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오는 10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되는 국정감사에서도 '문재인 정부 대 윤석열 정부' 책임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서울 양평고속도로 논란 △새만금 잼버리 대회 파행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등 여야 쟁점 이슈들이 의제로 떠올랐다. 국감 후 민주당의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안 가능성도 점쳐지는 상황이다.

이난희 기자 nancho0907@



민주당 내전 격화…결국 분당 수순?

'가결파 숙청론' 힘싣는 친명
이재명 대표 조만간 당무 복귀
징계·공천배제 기류 현실화 땐
비명 중심 대규모 탈당 가능성
시점은 늦어도 내년 1월 이내

구속 위기를 넘어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당무 복귀가 임박하면서 체포동의안 가결 과정에서 정점에 달한 친명(친이재명)계·비명(비이재명)계 간 내전이 분당으로 종지부를 찍을지 주목된다.

이미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을 거치며 더욱 공고해진 친명 지도부가 비명계 중심 가결파 숙청론에 무게를 싣고 있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당내 징계·공천 배제 기류가 현실화할 경우 집단 '엑소더스'(대탈출) 가능성이 제기된다. 탈당파가 교섭단체 구성 요건인 20명을 넘어서면 총선의 핵심 변수로 급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는 구심점 확보를 전제한 비명계의 탈당 가능 시점을 늦어도 내년 1월 내로 전망했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장기 단식으로 입원 중인 이 대표는 곧 회복 치료를 마치고 당무에 복귀할 예정이다. 당장 국정감사·예산 정국 등 굵직한 현안이 기다리고 있지만, 동시에 반년 앞으로 다가온 총선 준비 작업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때문에 공천권을 쥔 이 대표가 비명계와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지 당 안팎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친명계는 이미 비명계의 가결 투표를 해당행위로 규정하고 사실상 숙청론을 거론하고 있다. 선봉장은 정청래 최고위원이다. 그는 2일 페이스북에 "(비명계는) 구속영장이 가결(발부)됐다면 '이 대표 사퇴하라'고 즉각 주장했을 것 아닌가"라며 "그런데 기각됐다. 사퇴를 꿈꿨을 가결파는 어떻게 처신해야 할 것인가"라고 적었다.

전문가는 이 대표 체제로 총선을 치를 가능성이 유력한 상황에서 친명계가 비명계에 '불이익 시그널'을 명확하게 보낸 만큼, '공천 파동→탈당→분당'으로 이어지는 시나리오를 유력하게 보고 있다.

박성민 정치컨설팅 민 대표는 이날 SBS라디오 인터뷰에서 "반명, 비명은 금태섭 의원이 어떻게 제거, 공천 탈락했는지 봤다. 경선을 거치면 출마도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천 파동이 올 것"이라며 "이 대표가 통합 행보를 할 건지는 지켜봐야겠지만 민주당 내 역학관계상, 총선이 다가오는 것으로 봐선 쉽지 않다"고 분석했다.

이어 "가결파 의원들은 통합비대위 전환, 체포동의안 가결을 통한 선제적 (지도부) 붕괴 모두 안 되면 탈당할 수밖에 없다"며 "안에서 죽나 밖에서 죽나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정호영 기자 moonrise@

IBK기업은행

금융으로 만나는 새로운세상

실 력 있 는

기 업 들 이

마 침 내

세 상 을

바 꿀 수 있 도 록

가장 진화된 금융으로

기업을 앞으로

1:1 밀착 멘토링에서 투자유치까지
IBK창공

혁신·벤처 스타트업의 해외진출 지원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디지털 경영지원 플랫폼
IBK BOX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3-3947호(2023.08.29) 유효기간(2024.08.28) • 금융상품 관련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상품(서비스)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IBK기업은행은 금품·향응을 받지 않습니다. 윤리경영 위반 사실이나 개선이 필요한 경우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02-729-7490, e-mail : ibkethics@ibk.co.kr)

엔데믹發 의료이용 급증… 작년 건보 급여비 9.3% 증가

〈총 76조원〉

건보공단 집계

본인 부담 합산 땐 9.5% 늘어

의원·약국 급여비 증가분 쏠려

전체 진료비 중 43% 노인 사용

지난해 건강보험 급여비가 전년보다 크게 늘면서 진료비가 10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기 억눌렸던 의료수요가 일상회복과 함께 급증한 결과다. 전체 진료비의 43%를 인구의 17%에 해당하는 노인 인구가 사용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진료비가 102조4277억 원으로 전년보다 9.5% 증가했다고 4일 밝혔다. 같은 기간 건강보험 급여비는 76조7250억 원으로 9.3% 늘었다. 진료비는 공단부담금과 본인부담금의 합계이며, 급여비는 공단부담금 중 현물급여의 요양급여비를 뜻한다. 진료비 대비 급여율은 74.9%로 전년(75.0%)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진료비와 급여비는 2021년 이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급여비 증가율은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라 2018년 13.0%, 2019년 11.2%로 치솟았으나,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유행한 2020년에는 의료이용이 위축되면서 0.5%로 떨어졌다. 이듬해 7.2%로 오르더니, 일상회복이 시작된 지난해에는 9.3%로 치솟았다. 입·내원일수의 경우 2020년 11.5%, 2021년엔 0.5% 감소했으나, 지난해 10.5% 증가로 반등했다. 급여비 증가율이 높아진 건 일상회복 이후 의료이용 증가의 영향이다.

총 보험급여비는 81조5260억 원으로 전년보다 9.3% 늘었다. 현물급여비는 78조7094억 원으로 9.3%, 현금급여비는 2조8166억 원으로 7.7% 각각 증가했다. 현물급여비에선 진료비에 포함되는 요양급여비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현금급여비에선 임신·출산진료비(3349억 원)가 지원금 상향 영향으로 117.9% 급증했다. 반면,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사후환급금은 2조1352억 원으로 1.1% 줄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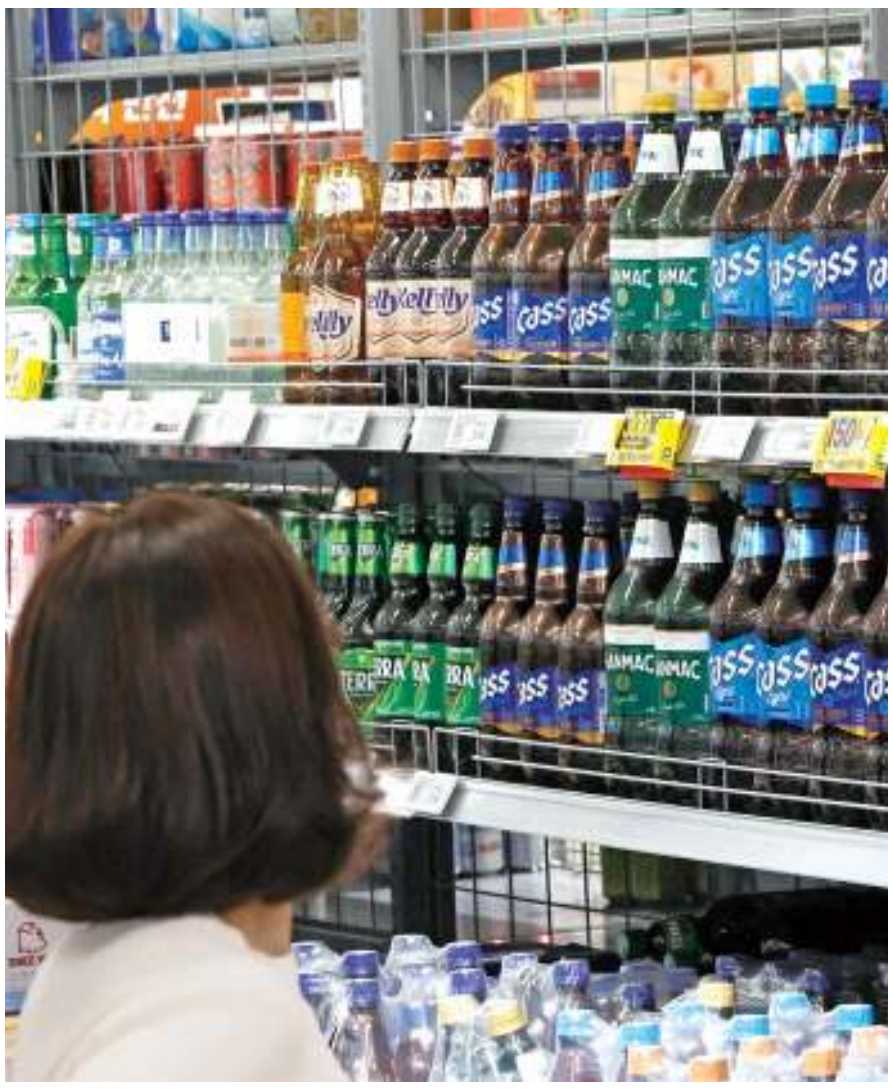
종별 급여비(요양급여비) 점유율은 종합병원급이 34.3%였다. 상급종합병원이 17.8%, 종합병원은 16.6%다. 병원급은 15.6%, 의원급은 30.0%를 각각 차지했다. 보건기관 등은 0.1%, 약국은 19.9%를 점유했다.

전년과 비교해 종합병원급과 병원급의 급여비는 각각 3.0%, 5.6% 느는 데 그쳤으나 의원급과 약국은 각각 18.2%, 11.7% 급증했다. 늘어난 의료수요가 주로 의원급에 쏠린 결과다.

65세 이상 진료비는 44조1187억 원으로 전체 진료비의 43.1%를 차지했다. 65세 이상 건강보험 적용인구 1인당 월평균 진료비는 42만9585원으로, 전체 적용인구(16만6073원)의 2.6배 수준이었다.

의료기관을 외래 혹은 입원으로 찾은 사람의 수도 급증해, 전체 입·내원 일수는 10억5833만일로 직전년보다 10.5% 늘었다. 2020년과 2021년 각각 11.5%, 0.5% 줄었다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 작년 진료비의 43.1%인 44조1천187억원은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사용했다. 노인인구의 진료비 비중은 직전년의 43.4%보다는 소폭 줄어든 것인데, 이는 전체 진료비 증가폭(9.5%)보다 노인 인구의 진료비 증가폭(8.6%)이 상대적으로 작았기 때문이다.

세종=김지영 기자 jye@



오비맥주, 11일부터 가격인상 오비맥주가 11일부터 원부자재 가격 상승·국제유가 급등에 따른 물류비 상승으로 카스, 한맥 등 주요 맥주제품의 공장 출고가격을 평균 6.9% 인상한다. 다만 가정용 시장에서 많이 팔리는 카스 500㎖ 캔 제품은 현행 가격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4일 서울 시내의 한 대형마트 주류코너에 맥주 제품들이 진열되어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의사 못구해… 나무병원 절반 뿌리째 뽑혔다

전국 1447개서 738로 반토막

시험 난이도 조절 지적 잇따라

올해부터 나무의사 제도가 유예기간을 거쳐 본격적으로 시행됐지만 자격증을 가진 의사가 부족해 정작 나무병원이 존폐 위기에 놓인 것으로 나타났다. 필요한 의사는 많지만 매년 10% 남짓한 합격률로는 병원 운영이 힘들다는 지적이다.

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국회의원이 산림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나무의사 제도가 시행된 올해 6월 이전 전국 1447개였던 나무병원은 제도 시행 이후 738개로 절반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수목의 질병 등 각종 피해를 진단·처방하고 그 피해를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활동을 관련 전문가만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2018년 도입 이후 5년간 유예기간을 뒀고 올해 6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제도 시행에 따라 수목진료는 나무의사와 수목치료기술자 두 종류의 국가전문자격자를 보유한 1종 나무병원에서만 수행할 수 있다. 나무의사 2명 혹은 나무의사 1명과 수목치료기술자 1명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또 식물보호기사 등의 자격자만을 보유하고 수목진료를 했던 1종 나무병원은 소속 근로자가 나무의사 자격을 신규로 취득하거나 나무의사를 고용해 등록기준을 갖춰야 한다. 하지만 전문적인 수목 진료체계를 구축한다는 당초 목표와 달리 나무의사가 부족해지면서 나무병원이 폐업으로 내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무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관련 학과를 졸업하고 자격증 취득 후 실무에 종사한 사람 중 산림청이 지정한 양성교육기관에서 150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고 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까지 5년간 나무의사 시험의 평균 합격률은 10.9%로 집계됐다. 올해는 13.9%의 합격률을 나타냈지만, 합격률이 낮을 때는 5.1%까지 떨어지기도 했다.

지금까지 총 응시자 수는 1만93명으로 이 중 1152명이 자격증을 받았다. 합격률이 10%대에 불과한데다 양성기관도 전국 13개에 불과해 나무의사를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가 됐다.

이 때문에 올해 5월 전국 1447개 였던 나무병원은 제도 시행 이후인 8월 기준 738개로 급감했다. 경기 183곳을 비롯해 인천과 충남에서도 각각 78곳, 64곳의 나무병원이 문을 닫았다. 제도 시행 이전 수준의 나무병원이 운영되기 위해서는 매년 1000명 이상의 나무의사가 필요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윤 의원은 "수목 관리 전문성 향상을 위해 부족한 양성 교육기관 수를 늘리고 선 시험 후 합격자에 한해 양성 교육을 이수하는 등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며 "나무의사 시험제도를 다른 시험과의 형평성이나 난이도 조절을 위해 대부분의 국가 기술자격시험처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이해곤 기자 pinvol1973@

외국인 근로자 4명 중 1명 실직하니 돈 더 받아

"실업급여가 월급보다 많아"

지난해 실업급여를 수령한 외국인 근로자들은 4명 중 1명꼴로 실직 전 소득보다 실업급여가 더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 실업급여 수령자 1만2100명 가운데 기존 임금보다 많은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은 3200명(26.4%)으로 집계됐다.

외국인 근로자 중 임금보다 많은 실업급여를 받는 '역전현상'은 수 년째 이어지고 있다.

2016년~2022년 실업급여를 타간 전체 외국인은 6만7800명이었는데, 이중 32.1%(2만1800명)가 월급보다 많은 실업 급여를 받았다.

'역전 수급자'도 2016년 1100명(23.9%)에서 2020년 5700명(37.3%)으로 증가했다. 이후 지난해에도 4명 중 1명꼴인 26.4%가 기존 임금 대비 많은 실업급여를 받았다.

이들이 수령한 실업급여 총액은 지난해 196억6000만원이었다. 지난해 외국인 근로자에게 지급된 실업급여(762억4000만원) 중 25.8%는 역전 수급자에게 돌아간 셈이다.

외국인 근로자의 1인당 실업급여는 2016년 420만원에서 2022년 860만원으로 104.8% 증가했다. 같은 기간 내국인 근로자의 1인당 실업급여는 490만원에서 910만원으로 85.7% 늘었다.

김상훈 의원은 "실업급여 역전 현상은 실직자의 재취업을 장려하기보다 자칫 근로 의욕을 떨어뜨리는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며 "제도의 허점을 검토해 탈법적 누수를 최소화하고, 내국인과 외국인 간 형평성 문제는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은재 기자 silverash@

김동철 한전 사장 "전기요금 25.9원 인상 필요"

2~3주 내 전기요금 발표 예고



김동철〈사진〉 한국전력 사장이 4일 전기요금 관련 "(kWh당) 25.9원 인상이 이번에 필요하다"고 말했다. 4분기에 접어들었지만 정부는 전기요금 정상화 여부 발표를 미루고 있는 상황이며 사실상 올해 전기요금 정상화는 쉽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김 사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정부가 원래 연료비 연동체를 2021년에 시행하면서 45.3원(kWh당)을 인상했어야 하는데 그에 못 미친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전기료 인상은 지금까지 못 올린 부분을 대폭 올리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지만, 정부의 국정운영에 있어서 여러 고려사항이 있기에 정부 측에서 판단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기요금이 인상되지 않고서는 한전의 재무상황은 악화될 수밖에 없다"며 "언젠가는 회사채를 비롯해 차입에도 한계에 부닥칠 것이고 그렇게 되면 한전의 모든 일이 결국 중지되지 않겠나"라고 우려했다.

그는 전기요금을 올리지 않을 경우 발생할 후폭풍도 우려했다.

김 사장은 "전기요금을 올리지 않고 계속해서 부채로 충당하게 된다면 언젠가는 사채든 차입도 막히게 되기 때문에 결단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한전이 차입을 계속해 사채를 늘리면 사채 시장을 교란시켜서 채권금리 인상요인이 되기 때문에 더 많은 금리가 인상될 수밖에 없고, 그런 것들이 국민 경제에 미치는 부담도 있다"고 말했다. 또 "한국은행 총재도 물가라는 것이 꼭 전기요금을 안 올려서 물가가 부담을 덜 주는 것이 아니라 전기요금이 적정하지 않으면 에너지 과소비가 일어나고 더 많은 에너지를 수입하고 국제수지에 부담 주고 그것도 물가에 압박을 주게 된다"며 " 적정수준의 전기료 인상은 반드시 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김 사장은 "자구노력을 계속해서 검토 중인데 앞으로 2~3주 안에는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를 고려할 때 전기요금은 이달 중순에서 말 사이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4분기 전기요금 정상화(25.9원 인상)는 쉽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 관계자는 전기요금 관련 "상황(물가, 국제에너지가격, 한전 재무구조 추가 개선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사장은 전기요금이 원가를 반영할 수 있도록 요금 결정 체계의 개편 필요성도 언급했다. 김 사장은 "요금도 독립된 규제기관이 원가에 연동해 (결정)하는 것이 어떤 정부가 됐든 국정 운영 부담도 덜고 국민 수용성도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박병립 기자 riby@

〈달러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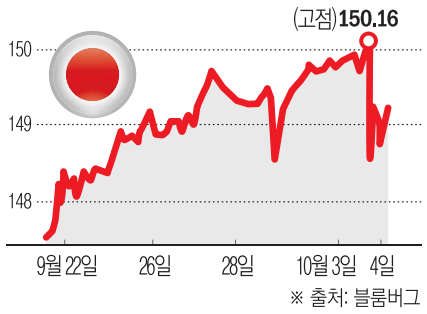
환율 비상 걸린 일본, 150엔 터치에 긴급 개입 의혹

엔·달러 환율 1년 만에 최저 수준
당국 "외환 개입 언급은 삼가겠다"
작년 비슷한 사태 때도 일단 부인
美에 투자금 몰려 다른 통화 약세

일본이 멈추지 않는 엔화 가치 추락에 비상이 걸렸다.

3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엔·달러 환율은 이날 뉴욕 외환시장에서 장중 한때 150.16엔까지 치솟았다. 엔·달러 환율이 달러당 150엔을 돌파한 것은 지난해 10월 하순 이후 약 1년 만이다. 엔·달러 환율이 상승했다는 것은 엔화 가치가 그만큼 하락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엔·달러 환율 (단위: 엔, 현지시간 기준)



※ 출처: 블룸버그

엔저 현상의 주된 원인으로는 미국과 일본의 금리 차가 꼽힌다. 미국의 기준금리는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지속된 긴축 정책으로 22년래 최고 수준으로 올랐다. 반면 일본은 경기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금리를 매우 낮은 수준으로 억제하는 대규모 금융완화 정책을 고수해오고 있다. 이날은 미국의 견조한 고용 지표에 따른 고금리 정책 장기화 관측으로 달러 매수, 엔화 매도의 흐름이 강해진 것으로 풀이됐다.

한편 엔화 가치가 '심리적 저항선'으로 여겨지는 달러당 150엔을 터치한 직후 빠르게 회복되면서 당국의 개입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다. 엔·달러 환율이 고점을 찍은 뒤 불과 몇 초 만에 약 2% 하락해 147.43엔까지 떨어진 것이다. 이후 미국 국채 금리 상승 영향으로 엔·달러 환율은 다시 149엔대까지 상승했다. 시장에서는 엔화 약세가 급격히 진정됐던 움직임을 두고 당국의 개입 가능성을 점쳤지만, 간다 마사토 일본 재무성 재무관은 "외환시장 개입 여부에 대해선 언급을 삼가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일본은 작년에도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고 외환시장에 개입하는 이른바 '복면 개입'을 실시한 바 있다. 엔·달러 환율이 작년 10월 21일 달러당 151엔대 후반까지 상승했다가 144엔대 중반으로 7엔가량 급락한 적이 있다. 일본 정부는 당시 엔화 가치 방어를 위해 시장 개입 사실을 함구한 채 대량의 엔화를 매수하고 달러화를 내다 팔았다.

엔저 현상은 미국과 일본의 금리 차로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미국 경기는 1년 넘게 이어진 금리 인상에도 아직 잘 버티고 있으며, 대미 투자자금이 계속해서 유입되고 있다. 조사회사 EPRF 글로벌에 따르면 올해 미국 채권펀드에 유입된 금액은 약 1770억 달러(240조 7554억 원)에 달한다. 이에 따라 달러화가 독보적인 강세를 보이면서 엔화와 유로화 등 다른 통화 가치는 하락 압박을 받고 있다.

일본 당국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엔화 약세가 지속되면 수출 비중이 큰 기업들은 유리하지만,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가계가 지갑을 닫을 수도 있다. 일본은 식품의 약 60%, 에너지의 약 94%를 해외에서 들여오고 있기 때문이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오랫동안 물가가 정체되거나 하락하는 데 익숙했던 일본 가계가 이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허리띠를 졸라맬 수 있다"고 경고했다.

변효선 기자 hsbyun@



방글라데시 사상 최악 뎅기열… 사망 1000명 넘어 방글라데시 수도 다카의 한 병원에서 3일(현지시간) 뎅기열 환자들이 치료받고 있다. 방글라데시 보건서비스국은 "올 들어 지금까지 뎅기열 감염자가 20만9000명에 육박했으며 사망자는 최소 1017명으로 지난해의 약 4배 수준으로 사상 최다"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기후변화에 따른 기온 상승으로 예년보다 더 일찍 감염이 확산하면서 피해가 늘었다고 분석했다. 다카(방글라데시)/AFP연합뉴스

EU도 對中 디리스킹 본격화
반도체·AI 등 수출 제한 추진

양자컴퓨팅·생명공학 기술 등 검토
내년 IoT·우주기술 등 확대 전망

유럽연합(EU)이 중국을 겨냥한 '디리스킹(Derisking·위험 경감)'을 본격화하기로 했다. 미국에 이어 EU마저 중국과 거리를 두면서 중국은 비상에 걸렸다.

3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EC)는 성명을 내고 첨단 반도체와 인공지능(AI), 양자 컴퓨팅, 생명공학 등 4가지 기술 분야에 대한 위험성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집행위는 해당 기술과 관련한 상품과 서비스를 다른 국가로 이전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놓고 평가할 예정이다.

베라 요우로바 EC 가치·투명성 담당 부위원장은 "현재 기술은 지정학적 경쟁의 중심에 있고 EU는 놀이터가 아닌 플레이어가 되길 원한다"며 "플레이어가 되기 위해선 위험에 대한 공통된 평가를 기반으로 한 EU의 통합된 입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집행위는 27개 회원국과 협력할 것이고 어떤 조치도 예단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성명에 중국을 지칭한 표현은 없었지만, 사실상 미국의 대중국 수출통제에 동참하는 결정이라는 시선이 지배적이다. 3월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중국은 국제질서 체계의 변화를 꾀하고 있다"며 "점점 더 강경해지는 중국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경제안보 전략을 제안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후 6월 EC는 경제안보전략을 발표했고 지난달에는 중국 전기자동차 보조금 조사에 나섰다.

미국의 디리스킹과 싸우고 있는 중국으로선 EU까지 미국에 합세한다면 더 어려워질 수 있다. EU는 연말까지 회원국들의 의견을 수렴해 4가지 기술 분야를 평가한 뒤 내년부터 수출통제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내년 봄까지 사물인터넷(IoT)과 우주기술, 로봇 공학 등 6가지 기술이 추가로 포함될 것이라는 추측도 제기되고 있다.

도이체벨레(DW)는 "전염병으로 인한 공급망 혼란과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에너지 위기로 인해 EU는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성을 훨씬 더 경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고대영 기자 kodae0@

인텔, 프로그래밍칩 사업 분사… 파운드리 집중

최근 1.8나노 시제품 공개하고
TSMC·삼성전자 추격 본격화
프로그래밍칩 부문 IPO 추진

종합반도체기업으로 재건을 추진 중인 미국 인텔이 '프로그래밍 가능 칩 사업부(Programmable Solutions Group·PSG)'를 분사한다고 3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인텔은 한발 더 나아가 이 사업부를 2~3년 내 상장한다고 공언했다. 대만(TSMC)과 한국(삼성전자)의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사업을 빠르게 추격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인텔은 이날 성명에서 "PSG를 내년 1월부터 독립 법인으로 분리한다"고 밝혔다. 이어 "2~3년 이내에 기업공개(IPO)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과반의 지분을 보유하면서 투자자들과 함께 비즈니스 성장을 가속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10월 자율주행 기술 자회사 모빌아이에 이어 두 번째 IPO다.

PSG는 칩을 다양한 용도로 맞춤 제작할 수 있는 사업부다. 2015년 인텔이 칩 생산업체 '알테라'를 167억 달러(약 22조5000억 원)에 인수해 만든 조직이기도 하다.

블룸버그를 포함한 주요 외신은 인텔의 최근 경영 행보를 두고 "빠른 의사결정이 기업 체질 변환에 힘을 보태는 중"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인텔은 8월 이스라엘 파운드리 타워세미컨덕터의 인수를 미련 없이 포기했다. 작년 2월 인수계약을 마쳤으나 중국 규제 당국의 기업결합 심사가 기약 없이 미뤄진 탓이다.

과감한 인수 포기 배경에는 현지 생산설비 구축도 힘을 보탰다. 앞서 인텔은 3월 이스라엘에 250억 달러를 투입, 반도체 공장 건설에 나섰다. 이스라엘은 인텔의 4대 공급처 가운데 하나로, 새 반도체 공장에서는 웨이퍼를 생산할 예정이다.

과감한 사업구조 개편 배경에는 2021년 10여 년만에 인텔에 복귀한 팻 겔싱어 최고경영자(CEO)가 존재한다. 그는 복귀 후 파운드리를 앞세워 반도체 왕국 재건을 노리겠다고 수차례 공언했다.

글로벌 파운드리 시장점유율 10%대에 머무는 삼성전자를 제치는 한편, 압도적 선두인 대만의 TSMC를 턱밑까지 추격해 2위를 노리겠다는 각오다. 대만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기준 TSMC의 시장점유율은 56.4%, 삼성전자는 11.7%다.

기술력도 꾸준히 쌓고 있다. 첨단 반도체 위탁생산 공정인 2나노(㎚·10억 분의 1m) 이하 기술 선점을 놓고 인텔은 삼성전자와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인텔은 지난달 1.8나노 공정의 반도체 웨이퍼 시제품을 공개했다. 나노는 반도체 회로 선폭을 의미하는 단위다. 선폭이 좁을수록 소비전력이 줄어드는 것은 물론, 처리 속도가 빨라진다.

김준형 기자 junior@

노벨 화학상 발표 3시간 전 명단 유출 해프닝

현지 언론 "바웬디·에키모프·브러스 양자점 발견 3인 수상" 이메일 공개

올해 노벨 화학상 수상자 명단이 부주의로 공식 발표 약 3시간 전에 유출됐다고 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스웨덴 일간지 아프톤블라데트(Aftonbladet)는 올해 노벨 화학상 수상자를 모운지 바웬디 매사추세츠공대(MIT) 교수, 러시아 고체물리학자인 알렉세이 에키모프, 루이스 브러스 컬럼비아대 교수 등 3명으로 명명한 왕립과학원 이메일 사본을 공개했다.

또 다른 스웨덴 일간지 다겐스 뉘헤테르(Dagens Nyheter)는 왕립과학원에서 보낸 이메일을 인용해 "올해 노벨 화학상은 너무 작아서 크기가 그 특성을 결정하는 나노입자인 '양자점(Quantum Dot)'의 발견과 개발에 기여한 과학자들에게 돌아갔다"고 전했다.

왕립과학원 이메일에 따르면 나노입자와 양자점은 LED 조명과 TV 스크린 등에 쓰이며 암세포를 찾고 치료하는 등 의료적 용도로도 사용될 수 있다.

로이터가 이 소식을 최초로 보도한 시점은 한국시간으로 이날 오후 4시 5분이다. 노벨 화학상 수상자 공식 발표는 오후 6시 45분으로 예정됐는데 2시간 40분 전에 수상자 명단이 유출된 셈이다.

그러나 왕립과학원 노벨화학위원장인 요한 외크비스트는 "스웨덴 왕립과학원의 실수"라며 "아직 수상자는 선정되지 않았다. 노벨상을 결정하는 회의는 오전 9시 30분(한국시간 오후 4시 30분) 시작돼 아직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다"고 이를 부인했다.

배준호 기자 baejh94@

“아이폰 가격동결 대응”… 삼성, 80만원대 ‘갤 FE’ 출시

가성비 플래그십 승부수

2년 만에 보급형 프리미엄 전략
S23 시리즈 와이드 센서 탑재
핵심부품·플래그십 디자인 유지
美 599弗 출시… 국내가는 미정
스마트폰 점유율 1위 굳히기

삼성전자가 2년 만에 보급형 프리미엄 폰 ‘갤럭시 FE(팬에디션)’ 시리즈를 출시했다. ‘가성비 플래그십’ 폰으로 아이폰 15의 ‘가격 동결’ 카드에 응수하면서 글로벌 시장 점유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4일 삼성전자는 준프리미엄폰인 갤럭시 FE 시리즈를 선보였다. 삼성전자가 갤럭시 FE 신작을 선보인 것은 지난해 1월 이후 약 2년 만이다.

갤럭시S FE 시리즈는 프리미엄 제품군인 갤럭시S 시리즈의 디자인과 핵심 부품 사양이 동일하다. 다만 기존 재고 부품을 활용하고 부가 기능을 축소해 원가를 절감한 제품이다.

갤럭시S23 FE 카메라는 5000만 화소 고해상도 렌즈와 3배 광학 줌이 장착됐다. 플래그십폰인 갤럭시S23 시리즈에 탑재된 와이드 센서가 동일하게 적용됐으며 나이토그래피 기능도 탑재했다.

더욱 커진 베이퍼 챔버를 탑재해 열 조절을 통한 성능 유지를 지원하고 원활한 스트리밍을 제공한다. 배터리 용량은 4500mAh다. 고속 충전을 지원, 25W 충전 어댑터로 30분 만에 최대 50%까지 충전할 수 있다.

국내 출시는 미정이다. 출시 가격은 미국 기준 599달러(약 81만 원)다.



삼성전자는 4일 ‘갤럭시 S23 FE·갤럭시 탭 S9 FE 시리즈·갤럭시 버즈 FE’로 구성된 새로운 갤럭시 FE 시리즈를 공개했다. 사진제공 삼성전자

노태문 삼성전자 MX 사업부장(사장)도 “삼성전자는 다양한 소비자들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향상된 모바일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 사장은 그동안 고프리미엄 전략만 강조했다. 노 사장은 7월 삼성전자 간담회에서 “플래그십 스마트폰 3대 가운데 하나 이상을 폴더블폰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이런 프리미엄 전략만으로는 애플의 아이폰 시리즈를 꺾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이에 준프리미엄 폰으로 중간 수요층 공략에 나선 것이다. 최근 아이폰15 발열 논란이 나오면서 삼성전자는 스마트폰 점유율 1위를 굳히기에 적합한 시기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리서치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올 2분기 전 세계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22%로 1위를 유지했다. 2위인 애플과는 5%포인트(p) 차이다.

삼성전자는 2분기 실적 컨퍼런스에서 “플래그십 중심으로 판매를 확대하고 업셀링(상위 모델 판매) 전략을 통해 매출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유진의 기자 jinny0536@

‘두돌’ SK온, 6분기 만에 매출 3.5배 껑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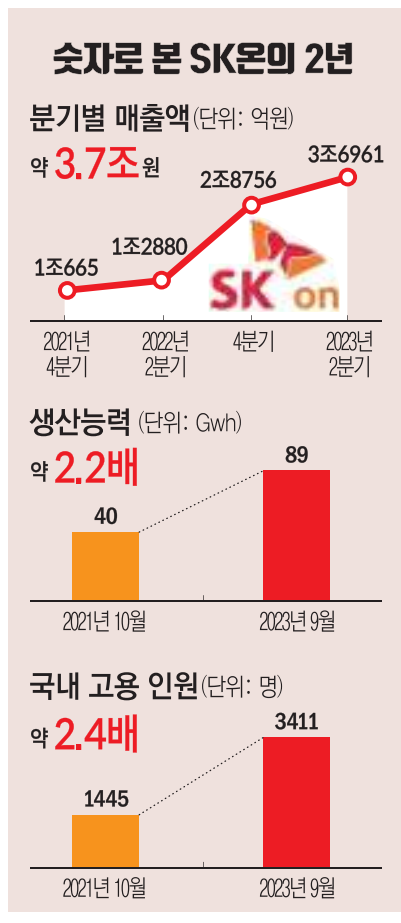
2분기 3.7兆 분기평균 23%↑
글로벌 생산능력 2.2배 쑥
국내 고용인원 2.4배 늘어

SK온은 출범 이후 2년 간 3배가 넘는 매출 성장을 기록하는 등 여러 지표에서 외형 성장을 이뤄냈다고 4일 밝혔다.

SK온에 따르면 회사 분기 매출액은 2021년 4분기 1조665억 원에서 올해 2분기 3조6961억 원으로 3.5배 증가했다. 출범 이후 6개 분기 연속 매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분기평균성장률(CQGR)은 23%다.

올해 상반기 매출액도 7조 원을 넘기며 지난해 연간 매출 7조6177억 원의 90% 이상을 반년 만에 달성했다.

글로벌 생산능력(CAPA)도 출범 당시 40기가와트시(GWh)에서 2023년 9월 말 89GWh로 대폭 증가했다. 같은 기간 글로벌 생산 공장은 5곳에서 8곳으로 늘어났다.



출범 당시 1445명이었던 국내 고용 인원도 지난달 기준 3411명으로 2.4배 늘었다.

또한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6월까지 4차례의 상장 전 지분투자(프리 IPO)를 통해 총 4조8000여억 원의 자금을 조달하며 발전 가능성을 인정받았다. SK온은 확보한 자금을 글로벌 배터리 공급망 구축과 재무 건전성 개선에 활용할 예정이다.

기술력도 인정받았다. SK온은 2년 연속 세계 최대 가전·IT 박람회 ‘CES’에서 혁신상을, 4월에는 미국 최고 발명상인 2023 에디슨 어워즈에서 ‘전기차(EV) 배터리 향상’ 부문 동상을 각각 수상했다.

SK온 관계자는 “지난 2년 간의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다가올 10년을 대비하기 위해 기술 개발 및 원천 기술 확보, 포트폴리오 다각화, 고객사 확보 등에 전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예슬 기자 viajeporlune@

SK하이닉스 사무직노조 “PI 기준 개선해야”

勞使, PI 조건·임금피크 개선 협상

SK하이닉스 기술사무직 노조가 회사 측과 생산성 격려금(PI) 지급 조건 및 임금피크 개선을 위한 협상에 나섰다.

4일 SK하이닉스 기술사무직노조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사측과 만나 PI는 생산성 임금이며 사무직노조와 새로운 지급 조건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노조는 “사측에서 PI지급 조건과 관련해 의견을 내놨지만, 만족할 만한 수준이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PI는 생산성 인센티브인데 왜 영업이익이 흑자일 때만 지급하냐가 이번 협상의 핵심이란 게 노조 측 입장이다. 이는 과거 사무직 설립 이전 회사와 전임직조합에서 합의한 것으로, 노조 측은 이번에 조건을 변경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회사 측은 영업이익 흑자 달성이라는 조건 이전의 경우, PI 지급 조건에 평균판매가격(ASP)과 기말 현금의 조건이 있었다고 밝혔다. 또 인센티브 자체가 자금 여력을 살펴야 하며, 이익이 없는 상황에서 PI를 지급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회사 측에) PI 지급 조건인 영업이익 흑자와 생산량 100% 달성, 그리고 100% 지급률과 관련해 회사가 납득할 수준의 여러 의견을 제시했다”며 “명절 이후 2차 협의 자리에서 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앞서 SK하이닉스 노사는 내년 1월 전 임금 인상 소급분을 지급하는 것에 합의하면서 올해 임금 협상을 마무리했다. 노사는 분기 영업이익이 흑자로 전환되는 시점에 올해 연봉 인상률인 4.5%에 대한 인상분을 소급해 지급하는 방식에 합의했다.

송영록 기자 syr@

LS마린솔루션, 2.5兆 대만 해저사업 진출 본격화

타이베이시에 영업거점 설립
해저 시공사업 수주 기반 마련

LS마린솔루션은 대만 타이베이시에 영업 거점을 설립하고 해저 사업에 본격 진출한다고 4일 밝혔다.

국내 해저 시공업체 중 첫 해외 거점이다. 거점 설립으로 약 2조5000억 원 규모로 추산되는 해저 시공 사업 수주 기반을 마련했다.

LS마린솔루션은 LS전선과 협력, 영업망을 구축하고 고객 대상의 마케팅을 강화하면서 협력업체 발굴에도 나선다.

조만간 대만은 2025년까지 5.5기가와트(GW) 규모의 풍력발전단지를 완공하고, 2035년까지 15GW를 추가 증설한다. 1GW급 원전 약 20기에 해당하는 규모다.

LS전선은 2018년부터 대만에서 발주된 약 1조 원 규모의 초고압 해저케이블 공급권을 모두 따냈다. LS마린솔루션 역시 2017년 대만 서해 펑후섬(Penghu)과 본토 사이 22km 해저케이블을 시공, 해저 공사에 중요한 기후·조류·지질 조사 등에 대한 노하우을 보유하고 있다.


LS마린솔루션의 해저케이블 포설선 GL2030. 사진제공 LS마린솔루션

LS마린솔루션은 최근 국내 해상풍력단지 프로젝트 ‘안마 해상풍력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는 등 LS전선과의 시너지를 강화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해상케이블 관련 대형 프로젝트 참여를 노리는 LS전선과 LS마린솔루션이 협력해 앞으로도 역대급 실적을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양사가 함께 쌓은 국내외 사업 경험이 수주 경쟁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평가다.

유진의 기자 jinny0536@

“올 스마트폰 OLED 패널 매출 역성장 전망”

中디스플레이 공격적 가격인하
전체 패널 매출 290억弗 11%↓

올해 스마트폰용 OLED 디스플레이 수요가 전년보다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OLED 디스플레이의 평균 판매 단가도 낮아지면서 매출 규모는 두자릿수 감소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됐다. 전체 OLED 디스플레이 가운데, 폴더블(폴더블) 디스플레이는 점유율을 확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4일 디스플레이 시장조사기관 DSCC에 따르면 2023년 스마트폰용 OLED 대수는 5억8500만 대, 패널 매출은 290억 달러로 2022년보다 각각 0.3%, 11%씩 감소할 것으로 조사됐다.

데이비드 나란조 DSCC 연구원은 “중국 디스플레이 업체들은 삼성전자의 OLED 점유율을 가져오기 위해서 공격적으로 플렉시블(휘어지는) OLED 가격을 인하했다”며 “이는 중국 기업들이 점유율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됐지만 재무적 측면에서는 좋지 않은 결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OLED 패널 공급업체들은 올해 4분기 플렉시블 OLED 가격이 약 5~10% 상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 계약의 유지 및 각 스마트폰 브랜드의 협상력 등을 감안하면 올해는 이 같은 목표 달성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플렉시블 OLED 패널 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어 내년에는 가격 상승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됐다.

스마트폰 내 플렉시블 OLED와 폴더블 OLED 탑재 비중은 점점 늘고 있다. 플렉시블 OLED 비중은 출하량 기준 2022년 66%에서 2023년 75%까지 증가할 것으로 분석됐다. 매출 비중도 2022년 80%에서 2023년 83%로 소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갤럭시Z폴드와 Z플립 등에 적용되는 폴더블 OLED 점유율도 점차 늘어날 전망이다.

DSCC는 “2024년에는 폴더블 올레드 출하량 점유율이 4%, 매출 점유율이 11%에 이를 것”이라고 밝혔다.

송영록 기자 syr@

금융으로 세상을 이롭게

Shinhan

자식들 다툼 없이 상속은 잘 될까?

내가 없어도 아내를 끝까지 책임질 수 있을까?

눈에 밟히는 자식에게 더 많이 물려줄 수 있을까?

나의 명예로운 인생
신한으로 신탁하다

신한 S Life Care 유언대용신탁

복잡하고 불안한 유산상속

신한 S Life Care 유언대용신탁으로

내 뜻대로 준비하고

남은 인생을 편하게 누리세요

신한은행

SOL 상담신청하기

내 자산 내 뜻대로 명예롭게 상속하는 신한 S Life Care 유언대용신탁

내 뜻대로 상속설계
고객 생전에
본인의 의지와 뜻을 반영한 상속설계

간편한 상속 절차
유언장 작성에 따른 공증 및
복잡한 상속 절차 생략

고객 맞춤형 컨설팅
다양한 신탁상품을 활용한
고객 맞춤형 자산증식 및 재산관리

믿음직한 상속 집행
신한은행이라 믿을 수 있는
신속하고 안전한 상속 집행

■ 당사는 이 금융투자상품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투자자는 투자에 앞서 그러한 설명을 충분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 신한 S Life Care 유언대용신탁의 경우에도 민법의 유류분 청구권이 보장됨에 따라 유류분 침해와 반환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신한 S Life Care 유언대용신탁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 신탁 계약은 자산가격 변동 등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0~100%)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계약서,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라며, 투자자는 반드시 영업점 직원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투자결정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 과세기준 및 방법 등은 향후 세법 개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이 광고는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관련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신한은행 영업점 또는 고객센터(1599-8000)에 문의 바랍니다. ■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23-03531호 (2023.09.25~2023.12.31) ■ 준법감시인 사전심사필 제2023-14365-1호 (2023.09.18~2024.09.18)

더 나은 내일을 위한 동행 신한은행

“불확실성 커졌다”… 재계 총수, 연말 인사·내년 전략 고심

삼성, 선대회장 기리며 쇄신 ‘취임 1년’ 이재용 메시지 주목

SK ‘딥 체인지’ 가속화 논의

현대차, 신사업 임원 승진 전망

LG, AI·바이오·클린테크 점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추석 연휴가 끝나고 4분기에 접어들며 재계는 내년 사업 전략 구상과 연말 인사 등을 본격화할 전망이다. 경기 불확실성이 더 커진 만큼 내년 사업 구상에 나설 재계 총수들의 머리는 복잡하다.

4일 재계에 따르면 오는 27일 회장 취임 1주년을 맞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경영 현안이 산적했다.

먼저 삼성전자의 실적 개선이 시급하다. 삼성전자의 3분기 영업이익 컨센서스는 2조5324억 원으로 한 달 전 2조9666억 원에 비해 14.6% 하향 조정됐다. 특히 반도체 사업의 경우 3분기에도 4조 원가량 적자가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스마트폰 시장 침체로 모바일 사업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실적 부진을 겪는 사업 부문을 중심으로 분위기 쇄신을 위한 고강도 인사 조치가 나올 가능성이 제기된다.

특히 25일 고(故) 이건희 선대회장의 3주기를 기점으로 ‘신경영 선언’ 정신을 되새기며 분위기를 다잡을 계획이다.

삼성은 18일 삼성 서초사옥에서 삼성글로벌리서치가 후원하고 한국경영학회가 주최하는 3주기 추모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한다. 로저 마틴 캐나다 토론토대 명예교수 등이 연사로 참석해 이 선대회장의 리더십과 삼성의 신경영을 재조명한다.

27일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취임 1주년이 되는 만큼 난국을 극복할 ‘뉴삼성’의 메시지가 나올지도 주목된다. 취임 1주년 행사는 별도로 열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삼성전자는 이후 12월 초 임원 인사를 단행하고, 주요 경영진과 해외법인장 등이 모이는 글로벌 전략회의를 열 예정이다.

SK그룹은 이달 16~18일 프랑스 파리에서 최고 경영진이 모여 경영 전략을 구상하는 ‘CEO 세미나’를 연다.

최태원 회장과 조대식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 각 계열사 CEO 등 30여 명이 모여 최근 SK그룹의 주요 화두인 ‘딥 체인지(근본적 혁신)’를 가속할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CEO 세미나가 끝나면 12월 인사를 위한 평가 자료 취합 등 준비 작업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현대자동차그룹은 통상 12월에 임원 인사를 단행한다. 올해 인사에서는 전기차, 목적기반차량(PBV), 미래항공모빌리티(AAM) 등 그룹 신사업을 담당 임원들의 약진 전망이 나온다.

LG그룹은 이달 하순부터 한달간 사업보고회를 열고, 경기 침체에 따른 수요 위축에 대응하기 위한 계열사별 전략을 점검할 계획이다.

또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미래 성장 동력으로 점 찍은 인공지능·바이오·클린테크 분야 등을 중심으로 한 사업 계획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토대로 11월 하순 조직 개편과 임원 인사를 할 전망이다.

한편 재계 총수들은 이달 하순 정관계 인사들과 함께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를 방문해 네옴시티 수주전 등에 나선다. 이재용 회장과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등이 함께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송영록 기자 syr@

한화 “젊은 리더 조기 발탁”… 솔루션, 25명 대거 승진

한화그룹, 신규 임원 인사

오션 12명 배치… 설계·R&D 다수

에어로스페이스 통합 후 20명 등용

한화그룹의 주요 계열사들이 4일 신규 임원 인사를 단행했다.

5월 출범한 뒤 처음으로 임원 인사를 실시한 한화오션은 조선해양 사업에 대한 업계 경험과 전문성을 겸비한 총 12명의 임원을 발탁했다. ▶관련인사 25면

이번 인사는 사업 본연의 경쟁력 강화와 경영의 조기 정상화에 방점을 두고 기술 인력을 등용했다. 12명의 임원 중 10명이 설계, 생산, 연구개발(R&D) 등 기술 분야 전문가들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도 4월 통합법인 출범 후 진행된 첫 임원 인사에서 20명을 임원으로 승진시켰다. 이번 인사에서는 미래 사업 강화를 위해 성장 가능성이 높은 인력 발탁에 초점을 맞췄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관계자는 “글로벌 사업 전략 실행 능력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잠재력을 갖춘 인물을 과감하게 발탁했다”고 설명했다.

한화솔루션은 신재생에너지 분야 신사업 등 전략 사업과 글로벌 시장 공략을 위한 기술 인력 및 현지 인력을 대거 임원으로 발탁했다.

1980년대생 4명을 포함해 총 25명이 승진했으며, 신규 보직 임원을 중심으로 조직 개편에도 나선다.

㈜한화는 사업 분야별 전문성과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8명을 임원으로 등용했다.

한화시스템에서는 7명, 한화정밀기계와 한화비전에서는 각각 5명, 2명이 신규 임원으로 승진했다.

아울러 △한화에너지 △한화임팩트 △한화토탈에너지스 △한화파워시스템 등 4개 에너지사도 총 13명의 신규 임원 승진을 단행했다.

한화 측 관계자는 “전문성을 보유한 젊은 리더를 조기 발탁해 미래 성장을 위한 주요 포지션에 전진 배치함으로써 변화와 도전을 가속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말했다.

김예슬 기자 viajeporlune@

포스코인터 “2025년까지 3.8조 투자”

에너지·소재·식량 등 밸류체인 구축

포스코인터내셔널이 핵심사업 포트폴리오 재편을 통해 플랫폼 플레이어(Platform Player)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를 내세웠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4일 서울 중구 더 플라자 호텔 서울에서 ‘사업 비전 및 성장 전략’을 설명하는 기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이계인 글로벌사업부문장(부사장) 등 사업 부문별 주요 임원진이 참석했다.

이 부문장은 “사업별 전문성과 투자를 기반으로 서로 다른 이종 사업 간의 시너지를 창출하고, 새로운 사업을 만들어내는 수준으로 사업을 추진하려 한다”고 밝혔다.포스코인터내셔널은 상사업을 넘어 에너지 전문 기업으로 포트폴리오를 확장하고 있다. 2025년까지 3년간 탐사 및 생산(E&P), 액화천연가스(LNG) 인프라, 발전, 친환경에너지 등 부문별 성장 전략에 맞춰 총 3조8000억 원을 투자한다.

올해 하반기 어려운 사업 환경을 고려해 에너지 부문에서는 세넥스 에너지(Senex Energy) 증산 등 천연가스 사업 확장 및 신재생에너지 사업 성장에 주력하고, 글로벌사업 부문에서는 시장 다변화와 친환경 고부가가치 제품 판매를 강화해 호실적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이 부문장은 “3대 핵심 사업인 에너지·소재·식량, 바이오 분야에서 밸류체인을 확고하게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동욱 기자 toto@

장애인고용, 함께하는 내일

장애인의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해,
장애인 고용 기업의 성공을 위해,
장애인과 기업이 **함께 만들어가는 내일**을 응원합니다.

고용노동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서비스
취업 전 준비부터 취업 후 적응까지 체계적 지원

직업능력개발
장애인이 능력을 키워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

기업서비스
기업의 장애인고용 준비부터 관리까지 체계적 지원

연구개발
장애인고용의 미래를 여는 연구개발 사업 수행

전국대표번호
1588-1519
www.kead.or.kr

“치솟는 기름값·교통비에 자전거 탈래”… 업계 화색

휘발윳값 1800원 진입 앞두고
‘자전거 추천’ 키워드 113%↑
부진했던 실적 개선 기회 오나

기름값의 고공행진이 이어지면서 자전거 이용자가 늘어날 전망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특수가 끝나면서 매출이 축소된 자전거 업계에 훈풍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자전거 추천’ 키워드 정보량은 전월 대비 113% 증가했다.

고물가가 지속하는 데다 택시,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 요금이 줄줄이 인상되면서 소비를 줄이고 교통비 절감을 위해 자전거를 선택하는 소비자가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전국 휘발유 판매 가격이 1L당 평균 1800원에 육박하는 등 기름값이 치솟은 영향도 크게 작용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사이트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전국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1796.33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8월 12일(1805.86원) 이후 14개월여 만에 1800원대 진입을 앞뒀다. 경유 평균 판매가격은 1700.23원으로 1700원대를 돌파했다. 석유수출국기구(OPEC)는 수요 증가에 따른 고유가 상황이 장기화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자전거업계는 고유가 상황이 매출 확대에 긍정적일 수 있다고 기대한다. 삼천리자전거는 올해 2분기 매출액 293억3500만 원, 영업이익 17억9700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다소 줄어든 실적을 기록한 바 있다. 코로나19 확산 시기에 전 세계적으로 자전거가 많이 팔린 영향이다. 교통 대안으로 자전거가 떠오르면서 위축된 수요가 조금이나마 회복되면 실적 반등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삼천리자전거는 전기자전거의 시장 확대와 첼로 등 선수급 자전거의 성장 등을 바탕으로 실적 개선을 꾀하고 있다. 수십 년간 자전거 시장을 이끌어 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2001년부터 20년 넘게 전기자전거를 생산 중이다. 라이프스타일 전기자전거를 비롯해 접이식, MTB 등 다양한 스타일의 전기자전거 라인업을 구축하고 있다. 공유자전거 납품 확대도 기대되는 대목이다.

또 전국 850여 개 전기자전거 지정 대리점과 250여 개 전기자전거 AS 지정점 운영으로 전국 어디서든 편리하고 쉽게 AS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전문 교육을 이수한 전문가가 전기자전거를 취급해 안전한 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삼천리자전거 관계자는 “최근 고물가 인플레이션이 지속하면서, 교통비를 절감하기 위해 대안 교통수단으로 자전거를 찾는 소비자가 크게 늘고 있다”며 “자전거는 장보기, 주말 나들이는 물론 출퇴근, 등하교 등 교통수단으로도 이용할 수 있는 만큼, 본인의 이용 목적과 라이프스타일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택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정수천 기자 int1000@


서울 강서구 가양대교 인근 자전거도로에서 시민들이 자전거를 타고 있다. 연합뉴스

골프웨어 기업 크리스에프앤씨 럭셔리 아웃도어 새 시장 개척

내년 伊브랜드 하이드로겐 론칭

골프웨어 기업 크리스에프앤씨가 내년 스포츠 아웃도어 시장을 확장으로 성장의 발판 마련을 꾀한다. 이탈리아 고급 의류 브랜드 하이드로겐을 통해 골프 의류 브랜드라는 인식을 넘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한다는 계획이다.

4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크리스에프앤씨는 내년 봄여름(SS) 시즌 하이드로겐의 스포츠 아웃도어 콘셉트 신제품 론칭으로 매출 확대를 꾀한다.

회사 관계자는 “스포츠 아웃도어로 내년 봄 시즌에 맞춰 론칭할 계획”이라며 “인원도 외부에서 영입하는 등 준비 중이다”라고 말했다.

크리스에프앤씨는 지난해 이탈리아 하이드로겐 지분 100%를 약 200억 원에 취득했다. 하이드로겐은 밀라노에 본사를 둔 이탈리아 럭셔리 스포츠웨어 브랜드로 2003년 테니스 선수 출신의 디자이너 알베르토 브레시가 출시했다. 캐주얼웨어를 비롯해 골프웨어, 테니스, 퍼포먼스 제품들을 선보였다. 최근 크리스에프앤씨가 골프 편중 비중을 타개하고, 새로운 의류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 브랜드 재정비에 나선 것이다.

크리스에프앤씨가 골프 관련 브랜드 외의 의류 시장을 찾는 이유는 지난해 금리인상 이후 소비심리가 얼어붙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 회사의 연결기준 상반기 누적 매출은 지난해 1953억 원에서 올해 1793억 원으로 8.9% 감소했고, 영업이익은 402억 원에서 246억 원으로 39% 줄었다.

크리스에프앤씨는 1998년 8월 설립 이후 1999년 12월 골프 브랜드 핑(PING)의 의류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해 핑 골프웨어를 국내에 출시했으며, 2008년 팬텀(FANTOM) 브랜드를 인수해 자체 브랜드를 확보했다. 이후 2011년 2월 파리게이츠(PEARLY GATES) 국내 독점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해 기존 골프웨어와는 다른 화려한 디자인의 제품으로 골프웨어 시장의 흐름을 선보이기도 했다.

지난달엔 골프장 사업도 본격 착수하면서 2026년 개장을 목표로 진행 중이다. 김우람 기자 hura@

현대리바트, ‘리바트 마이스터 컬렉션’ 출시

〈프리미엄 가구〉

현대리바트가 자체 브랜드로 프리미엄 가구 시장에 뛰어든다.

현대리바트는 프리미엄 가구 라인 ‘리바트 마이스터 컬렉션(이하 마이스터 컬렉션)’을 론칭한다고 4일 밝혔다.

마이스터 컬렉션은 현대리바트의 최상위 프리미엄 가구 라인이다. 기존 MDF·PB 등 합판을 주로 사용하는 국내 가구 업계에서 보기 힘들게 월넛(호두나무), 애쉬(물푸레나무), 버치(자작나무) 등 최고급 천연 원목을 적용한다. 특히 현대리바트의 프리미엄 가구 개발 연구실 ‘마이스터 랩’이 모든 제품의 개발과 생산을 책임진다. 현대리바트는 지난해 프리미엄 브랜드로의 도약을 제시하면서 마이스터 랩을 신설했다.

마이스터 컬렉션의 한 제품 생산에는 원목가공·패브릭·가죽 등 각 소재나 공정별 장인 10여 명이 참여한다. 전문가가 모든 생산 공정을 수작업으로 진행해 제품 완성까지 최소 3주 이상이 걸린다.

이번에 첫선을 보이는 마이스터 컬렉션 제품은 침대 및 소파 8종이다. 침대는 ‘노체’, ’플로랄‘ 등 4종이다. 현대리바트에 따르면 플래그십 침대 제품인 노체 침대는 헤드보드 양쪽 사이드를 최고급 수종인 천연 월넛 원목을, 플로랄 침대는 자작나무 통 원목을 사용한다.

현대리바트는 침대 프레임 및 소파 8종을 시작으로 연내 식탁·티테이블 등 총 15종의 신제품을 추가로 선보일 계획이다.

현대리바트 관계자는 “프리미엄 제작 인프라와 차별화된 디자인, 최고급 원자재 등을 접목한 고품격 가구 제품을 대거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효 기자 sorahosi@



기울어진 코인 운동장… 빗썸 "수수료 안 받겠다" 초강수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거래 수수료 전면 무료화'라는 초강수를 뒀다. 매출 대부분이 가상자산 거래 중개 수수료에서 발생하는 가운데, 매출을 포기하더라도 이용자를 끌어오겠다는 전략이다.

빗썸은 4일 오후 6시부터 빗썸에서 거래 지원하는 모든 가상자산에 대해 수수료 전면 무료화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수수료 변경 대상 가상자산은 원화 마켓 241종과 BTC 마켓 24종 등 총 265종이다. 이용자가 고객센터 메뉴 내 '수수료 무료 등록'을 클릭 후 등록 버튼만 누르면 수수료가 기존 0.04~0.25% 수준에서 0%로 변경된다. 수수료 면제 정책은 별도 공지 전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빗썸은 8월부터 거래량을 높이기 위해 일부 가상자산에 대한 수수료 무료 정책을 진행하고 있었다. 수수료 무료 적용 대상 가상자산을 1주일 간격으로 10종씩 추가하는 방식이었는데, 이번에 아예 전면 무료화를 택한 것이다. 빗썸 측은 이번 무료화 정책과 함께 거래소 앱 편의성 개선 등을 통해 이용자 사용성을 강화하는 등 더욱 공격적인 행보를 보인다는 방침이다.

업계, 업비트 독과점 갑론을박
중소거래소는 생존 문제 직면

빗썸, 8월부터 일부 수수료 면제
점유율 한자릿수서 점차 회복세
"265종 모두 무료" 공격적 행보
'빗썸 승부수' 통할지 이목 집중

빗썸의 수수료 면제 전략은 유동성 공급 및 점유율 상승 측면에서 효과가 있었다. 올해 상반기 한 자릿수 대까지 떨어졌던 빗썸의 국내 거래 점유율은 8월 중반 약 25%까지 치솟는 등 일정 성과를 보였다. 반면 한때 90%까지 치솟았던 1위 거래소 업비트의 거래 점유율은 낮아졌다.

한때 글로벌 1위 거래소로 꼽혔던 빗썸은 2020년 업비트에 그 자리를 빼앗긴 후, 거래 점유율이 지속 하락했다. 특히 지난해 5월 이후 가상자산 시장이 침체되며 하락폭이 커졌다. 시장 전체의 유동성이 적어질수록 이용자들은 거래가 활발한 1위 거래소로 몰렸다.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빗썸의 초강수 행보를 흥미롭게 지켜보고 있다. 크립토 윈터(가상자산 겨울) 여파 속에 1위 거래소 업비트를 제외하고 모두가 적자에 신음하고 있는 만큼, 빗썸의 공격적인 마케팅이 성공을 거둘지 주목하고 있다.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서는 업비트 독과점 여부에 대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국내 시장의 경우 은행실명계좌 연동을 통한 원화마켓 지원여부가 높은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특정 거래소의 과점 체제가 공고화되면서 다수 코인마켓의 생존 환경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결과적으로 거래량이 부족한 대부분 중소거래소는 이미 수수료 이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한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는 "매출의 대부분이 거래 수수료에서 나오다 보니 큰 결정이 아닐 수 없다"면서 "이전 일부 종목 수수료 무료 이벤트 통해서 유의미한 성과를 얻었다고 판단해 승부를 건 것 같다"고 평했다.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빗썸의 올해 상반기 매출 827억 원은 대부분은 거래 중개 수수료를 통해 발생했다. 1분기 영업이익은 162억 원, 상반기 영업이익은 127억 원을 기록했다. 2분기에는 영업손실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8월 이후 수수료 무료 정책을 도입한 만큼, 3분기에도 적자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수익을 완전히 포기한 것을 두고 우려가 나온다. 당장 거래 점유율을 높이더라도 이를 유지하는 것이 관건이란 분석도 나온다.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는 "무료 정책이 끝나더라도 확보된 점유율이 유지될 수 있을 지가 중요한 만큼, 이벤트 종료 이후를 더 주의깊게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빗썸은 내년 1월 창립 10주년을 앞두고 있다. 빗썸측은 이번 거래 수수료 제로화 정책이 다가오는 창립 10주년을 두 달여 앞두고 기획됐다고 설명했다. 이재원 빗썸 대표는 "내년 1월이면 빗썸이 거래소를 만든 지 10년이 되는 해"라며 "지속적인 혁신을 통해 고객에게 사랑받는 빗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유리 기자 inglass@

일일 입금한도 500만원 통일… 특색 잃는 코인 거래소

내년 '실명계정 운영지침' 도입

내년 1월 '가상자산 실명계정 운영지침'이 도입되기 전에 일부 가상자산 거래소는 선제적으로 기준을 적용하는 모양새다. 운영지침 도입으로 규정이 통일되면서 각 거래소 고유 영역이 허물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코빗은 내년 1월 본격적인 도입을 앞둔 가상자산 실명 계정 운영지침을 조기 도입했다. 가상자산 실명 계정 운영지침은 금융당국, 은행연합회, 가상자산 거래소 협의를 거쳐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및 자금세탁 방지 강화 등을 위해 제정됐다. 이에 따라 내년 3월부터 원화 거래소 입금 한도는 500만 원으로 통일된다.

원화 거래소 대상 내년 3월부터
코빗, 30만원서 큰폭으로 올라
업비트·빗썸·고팍스는 절반 축소
기존엔 입금한도 높을수록 인기

일각 "상장 기준까지 일원화" 우려

일일 입금 한도 500만 원은 한도 계좌에 적용된다. 코빗은 기존 일일 입금 한도가 30만 원이었지만, 운영지침에 따라 500만 원으로 크게 상향됐다. 다만, 코빗을 제외한 업비트, 빗썸, 고팍스 등의 일일 입금 한도는 10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절반가량 축소됐다.

각기 다른 입금 한도는 고객이 이용할 거래소를 고르는 유인이 되기도 한다. 거래소 이용 고객 입장에서는 일일 입금 한도가 높을수록 당장 거래 가능한 금액도 높아지기 때문에 입금이 간편한 거래소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케이뱅크로부터 실명계좌를 발급받고 있는 업비트는 지난해부터 일일 입금 한도를 1000만 원으로 제한하고 있다. 일일 입금한도가 1000만 원으로 제한되기 전까지 업비트는 일일 입금 한도를 5억 원까지 지원했다. 업비트가 국내 가상자산 거래량 대부분을 점유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가 타 거래소 대비 높은 입금한도였다는 분석도 나온다.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는 "입금 한도 방침을 세운 데에는 배경이 있을 것이고 우려하는 리스크들이 해소된다면 향후 한도를 조정할 방안이 있다면 좋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내부 규정에 따랐던 정책들이 하나둘씩 통일되면서 개별 거래소 고유 영역인 가상자산 상장 규정까지 통일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상장 기준 일원화에 대한 요구는 지난해 테라-루나 사태로 한 차례 수면 위에 떠오른 적 있다. 테라-루나 사태로 진행된 당정간담회에서 거래소들이 통일된 상장 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아 문제가 발생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당시 이석우 두나무 대표는 "(증권시장 상장 기준은) 한국 거래소에 하나의 기준밖에 없지만 코인 거래소는 여러 개가 있어 획일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현실적인 한계를 설명했다.

일단 거래소들은 협의체를 통해 상장 기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상태다. 닥사는 올해 3월 거래지원심사 공통 가이드라인을 공개하면서 기존에 적용 중이던 거래지원심사 시 외부 전문가 '최소 2인' 혹은 '최소 참여 비율 30%'를 지켜온 것에 더해 거래지원심사 시 '법적 위험성 평가위원 최소 1인'이 반드시 참여하도록 기준을 강화했다. 다만, 개별 거래소마다 적용되는 기준으로 상장되는 가상자산 자체가 모든 거래소마다 같아지는 것은 아니다.

업계 관계자는 "상장 기준이 완전히 통일된다는 것은 개별 거래소의 필요성이 없어진다는 것이기 때문에 완전한 일원화는 어려울 것"이라며 "현재 닥사 상장 기준 가이드라인에서 좀 더 구체화되는 방향으로 정책을 만들어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한다"고 제언했다.

윤희성 기자 yoonheesung@

삼성SDS,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 최고 디자인상 수상

통합경험 지식자산 플랫폼 'TX360°' 디자인 콘셉트 부문 최고 디자인상
브랜드·커뮤니케이션 본상도 받아

삼성SDS가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에서 최고 디자인상인 '베스트 오브 더 베스트'를 수상했다고 4일 밝혔다.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는 iF 디자인 어워드, IDEA와 함께 세계 3대 디자인상 중 하나로 △제품 디자인 △브랜드·커뮤니케이션 디자인 △디자인 콘셉트 등 3개 부문으로 나눠 시상한다.

삼성SDS는 통합경험(TX, Total eXperience)을 활용한 지식자산 플랫폼 'TX360°'으로 디자인 콘셉트 부문 최고 디자인상과 브랜드·커뮤니케이션 디자인 부문 본상(Winner)을 받아 2개 부문 동시 수상의 영광을 얻었다.

통합경험은 사용자경험(UX), 고객경험(CX), 임직원경험(EX), 다중경험(MX), 브랜드경험(BX), 제품경험(PX), 서비스경험(SX) 등 고객이 특정 제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발생하는 다양한 경험들을 하나로 통합해 관리하는 전략을 의미한다.


김지현(가운데) 삼성SDS CX팀장 등 관계자들이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에서 최고 디자인상을 받고 기뻐하고 있다. 사진제공 삼성SDS

삼성SDS는 고객경험 업무를 수행하면서 확보한 프로세스와 방법론, 디자인 자산 등 관련지식을 활용해 고객에게 최상의 통합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내부 플랫폼인 TX360°을 보유하고 있다.

삼성SDS는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 디자인 콘셉트 부문에 참가하면서 기존 TX360°에 생성형 AI 기술을 적용한 미래 콘셉트를 선보였다. 이 콘셉트는 고객 여정(Customer Journey)에 따라 발생하는 경험 데이터를 기반으로 개선이 필요한 디자인을 생성형 AI의 추천을 통해 자동 반영하는 등 디지털 경험의 혁신성을 더했다.

이를 통해 고객경험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지식자산을 활용해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웹사이트 관리자는 TX360°을 통해 고객들이 웹사이트를 사용하며 겪는 다양한 불만이나 문제점을 분석하고, 준비된 해결방안과 디자인 자산을 적용해 쉽고 빠르게 개선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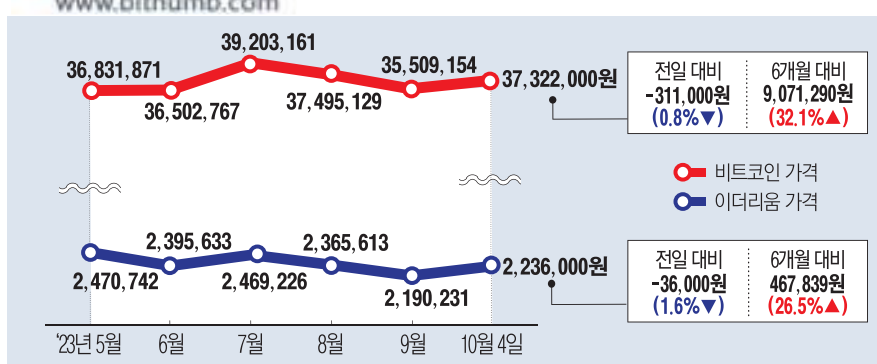
레드닷측은 "삼성SDS의 TX360°은 고객경험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혁신적 콘셉트에 생성형 AI 기술을 접목해 고객경험 업무의 미래 비전을 제시했다."며 최고 디자인상 선정 이유를 설명했다.

cal김지현 CX팀장(상무)은 "이번 수상으로 삼성SDS의 고객경험 디자인 역량과 경쟁력을 인정받게 됐다"며 "더 나은 고객경험을 만들고 관리하는데 도움을 주는 TX360°을 통해 고객에게 성공적인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유리 기자 inglass@

bithumb 빗썸 www.bithumb.com

빗썸 지수 (2023년 10월 4일 17:00, KST)



코인명	가격(원)	전일대비 등락(원)	코인명	가격(원)	전일대비 등락(원)
비트코인캐시	312,000	-17,400 (5.3%▼)	이오스	784	-39 (4.7%▼)
리플	723	27 (3.9%▲)	트론	122	2 (1.7%▲)
솔라나	31,490	-1,080 (3.3%▼)	스텔라루멘	154	2 (1.3%▲)
에이다	349	-10 (2.8%▼)	비트코인에스브이	50,200	-4,700 (8.6%▼)

국내 대표 가상자산 거래소

서울 뛰니 경기·인천도 들썩… 경매시장 훈풍 이어질까

9월 낙찰가율 100% 이상 24건
전달보다 3배 가까이 늘고
평균 낙찰가율 80% 안팎으로

최근 서울 낙찰가율 다시 내림세
아파트값 상승세도 둔화 조짐
전문가 "일시적 과열현상" 지적

서울아파트값 상승세가 본격화하자 경기와 인천지역 시장까지 달아오르고 있다. 지난달 경기와 인천지역에서 낙찰된 아파트 중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 100% 이상을 기록한 매물은 전달보다 3배 가까이 늘었다. 경기와 인천의 아파트 경매 관련 지표도 연내 최고 수준을 보였다. 다만 전문가들은 일부 과열 조짐으로 볼 수 있는 만큼 신중한 투자 판단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4일 부동산 경매정보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달 경기와 인천에서 낙찰가율 100% 이상을 기록한 매물은 총 24건으로 집계됐다. 낙찰가율은 감정가 대비 낙찰된 금액의 비율로, 낙찰가율 100% 이상에 매각된 건은 그만큼 응찰자가 몰려 높은 가격에 거래된 것을 의미한다.

지난달 경기·인천지역 아파트 낙찰가율 고공행진 현상은 상반기와 비교하면 더욱 뚜렷하다. 올해 상반기(1월 1일~6월 30일) 경기와 인천에서 낙찰가율 100% 이상을 기록한 아파트 매각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 하반기 들어서도 경매시장 침체는 이어졌다. 7월 경기지역에서만 2건이 낙찰가율 100% 이상에 매각됐고, 8월도 한 자릿수인 9건에 그쳤다.

하지만 지난달 경기와 인천지역 아파트 최고 낙찰가율은 치솟았다. 지난달 5일 수원지방법원 경매18계에서 진행된 경기 화성시 '더레이크시티부영 5단지' 전용면적 85㎡형은 낙찰가율 120%를 기록했다. 감정가는 5억8500만 원이었지만, 낙찰가는 7억290만 원으로 감정가 대비 1억1790만 원 비쌌다. 이 단지 같은 평형의 최근 실거래가는 지난달 16일 거래된 7억9500만 원으로 낙찰가보다 비싼 수준이다. 인천에서도 중구 '하늘도시우미린 2단지'과 남동구 'e편한세상 서창' 전용 85㎡형이 각각 낙찰가율 100%와 111%에 매각됐다.

이렇듯 경기와 인천지역 아파트 경매시장이 활황을 보이는 가운데 관련 지표도 연내 최고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지지옥션 집계에 따르면, 지난달 경기 아파트 평균 낙찰가율은 83.17%(매각건수 194건)로 올해 처음으로 낙찰가율 80% 이상을 기록하고 매각 건수도 가장 많았다. 인천 아파트 평균 낙찰가율은 지난달 77.91%로 8월(78.32%)보다 소폭 내렸지만, 8월을 제외하면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 인천 아파트 매각 건수는 지난달 52건으로 올해 가장 많았다.

서진형 공정경제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교수)는 "경기와 인천지역 경매시장 강세는 최근 서울 중심의 집값 상승세가 외곽으로 확산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경기와 인천지역의 아파트 경매시장 훈풍이 연말까지 이어지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당장 서울의 아파트 경매 낙찰가율이 내림세로 돌아섰다. 지난달 서울 낙찰가율은 85.2%로 8월(85.4%) 대비 소폭 줄었다. 또 아파트 시장 상승세도 둔화했다.

집값 추가 상승 동력도 부족하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9월 넷째 주(지난달 25일 기준) '주간아파트값 동향'에 따르면, 수도권은 0.11% 상승으로 전주(0.17%) 대비 상승 폭이 줄었다.

윤수민 NH농협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경기와 인천지역의 낙찰가율 100% 이상 기록은 시장 기대심리 상승에 따른 과열 현상으로 볼 수 있다"며 "경매의 목적은 주택을 저렴하게 구매하는 것인데 낙찰가율이 올라 시세 수준에 매각되는 상황은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용욱 기자 dragon@

현대건설, 한남3구역 기반시설 설계 세계적 건축기업 MVRDV에 맡긴다



현대건설이 한남3구역〈사진 조감도〉 정비 프로젝트를 위해 세계적인 건축·설계기업 MVRDV와 협력한다.

현대건설과 한남3재개발조합은 최근 서울 종로구 계동 현대건설 사옥에서 MVRDV와 '한남3재정비촉진구역 설계 디자인'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현대건설은 한강 수변 공간을 문화예술·여가 중심 공간으로 재편하는 등 지속가능한 도시 비전을 제시할 계획이다.

한남3재개발촉진구역은 한남·보광동 일대 38만6400㎡에 아파트 5816가구를 짓는 대규모 재개발 사업이다. 현대건설은 한남3구역을 특성에 맞게 △주거 지역존 △준주거지역존 △기반시설존 등으로 나눠 디자인 강점이 있는 해외 설계사를 투입할 계획이다.

MVRDV는 기반시설존에 해당하는 한남동에서 한강을 연결하는 브릿지데크, 전망대·공원, 나들목, 한강 변 주거동 등의 설계를 맡는다. 이번 프로젝트가 완공되면 이태원-남산-한강으로 이어지는 지역의 경관이 창의적으로 변모돼, 도시 이미지 개선과 가치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위니 마스 MVRDV 대표는 "서울에서 한강과 남산이라는 핵심 자연환경을 품고 있는 한남3재정비촉진구역의 정비기반시설 디자인 작업에 참여할 수 있어 기쁘다"며 "한강과 접한 재개발사업지의 워터프런트 사업을 MVRDV만의 스타일로 풀어내겠다"고 말했다.

1993년 설립된 MVRDV는 네덜란드 로테르담에서 시작해 상하이, 파리, 베를린, 뉴욕 등에 오피스를 두고 있는 글로벌 건축 디자인·설계사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남산, 한강 등이 어우러진 한남3구역에서 창의적이고 차별화된 경관 설계를 선보일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서울시가 제시하는 지속가능한 도시·건축 계획에 발맞춰 미래 도시의 청사진을 구체적으로 그려내겠다"고 말했다.

전보규 기자 jbk@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 3044가구 청약접수

LH, 올해 3차분 입주자 모집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023년 3차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을 위한 청약 접수를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LH는 이날부터 시작하는 3차 정기모집을 통해 전국에 총 3044가구를 공급한다. '매입임대주택'은 LH가 도심 내 신축 및 기존 주택을 매입해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매년 분기별로 입주자를 모집한다.

'청년매입임대주택'은 만 19~39세 청년 등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주택으로, 임대조건은 인근 시세의 40~50% 수준이다. 청년매입임대주택은 학업·취업 등의 사유로 이주가 잦은 청년층의 수요를 반영해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가전제품을 갖춘 상태로 공급된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등에게 공급되는 주택으로, 다가구주택 등을 시세의 30~40%로 공급하는 '신혼부부 I'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을 시세의 70~80%로 공급하는 '신혼부부 II'로 구분된다. 신혼부부 II의 경우, (예비)신혼부부 등 외에 일반 혼인가구도 신청할 수 있으며, 기본 임대조건의 80%를 보증금으로, 20%를 월임대료로 하는 준전세형으로 거주할 수 있어 매월 임대료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거주 기간은 청년매입임대주택은 최장 10년, 신혼부부 I 매입임대주택은 최장 20년, 신혼부부 II 매입임대주택은 최장 10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14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신홍길 LH 국민주거복지본부장 직무대행은 "이번 모집부터 청년과 신혼부부 II 유형의 최대 거주 기간이 6년에서 10년으로 연장돼 주거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LH 매입임대주택이 든든한 보금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LH는 다양한 수요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용욱 기자 drag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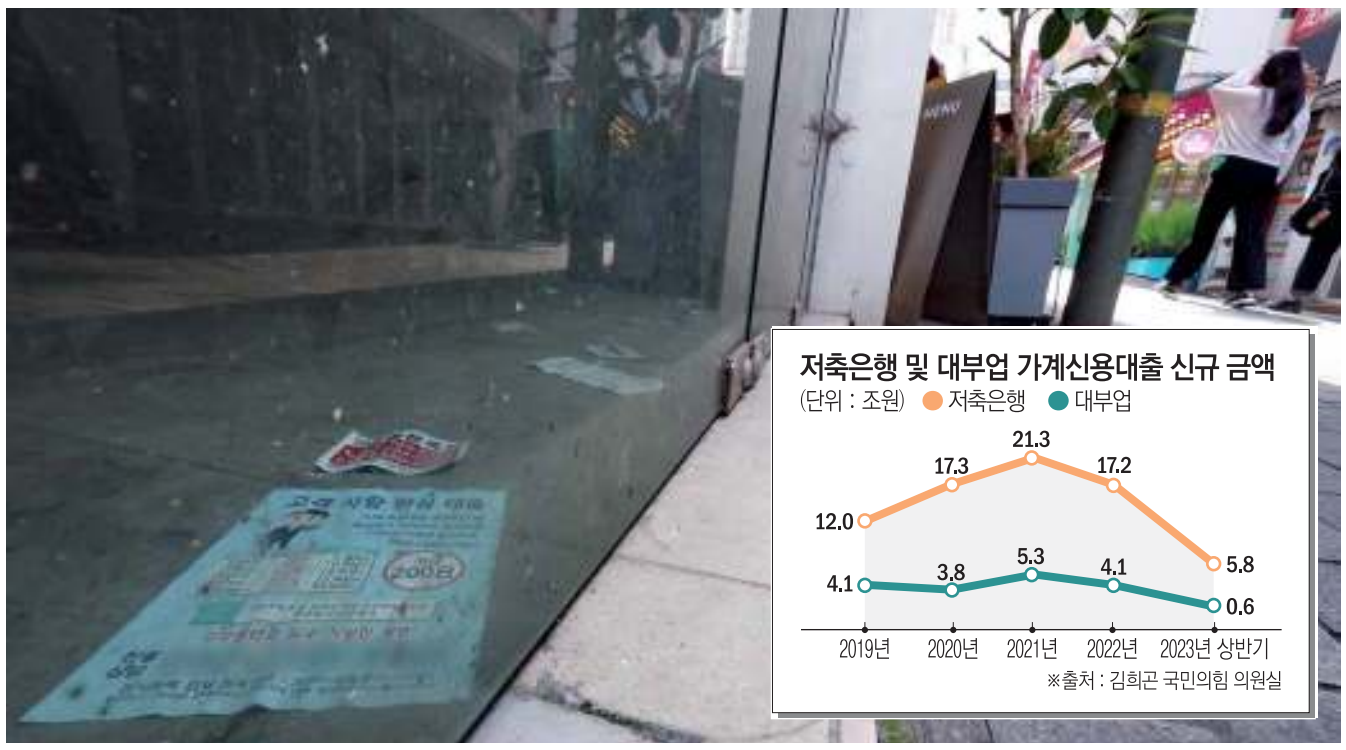
급전 필요한 서민들 '대출문턱' 갈수록 높아져…

최저신용자 '오픈런 대출' 5분만에 끝났다

〈특례보증〉

최대 1000만원 정책금융 상품
年15.9%… 성실상환시 금리인하
수요 느는데 공급처는 5곳 불과
서버마비로 이용자 혼선 빚기도

연체 확률 높아 대출창구 잠가
불법 사금융 내몰릴 위기에 놓여
"20%인 법정 최고금리 올려야"



서울 대출 전단지가 놓인 명동 빈 상점의 문이 닫혀 있다. 급전창구가 필요한 서민들의 대출 문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어 중저신용자들이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릴 위기에 처했다.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공급처가 광주·전북은행 등 5곳에 불과해 매달 오픈런 및 서버 마비로 이용자들의 불편이 커지고 있다. 연합뉴스

저신용자에게 최대 1000만 원을 빌려주는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이 매달 오픈런 중이다. 통상 한도 소진 기간은 1~2일 정도였지만 대출 창구가 점차 막히자 지난달부터는 한 시간 만에 한도가 마감되고 있다. 급전창구가 필요한 서민들의 대출 문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어 중저신용자들이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릴 위기에 처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4일 서민금융진흥원에 따르면 이날 오픈한 웰컴저축은행의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은 5분 만에 한도가 소진됐다. 오픈 시간에 맞춰 애플리케이션(앱)에 접속했지만, 서버가 마비돼 이용자들의 혼선을 빚기도 했다. 같은 날 한도가 풀린 광주은행, 전북은행도 한 시간 만에 마감됐다.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은 급전 수요가 커진 중저신용자들을 대상으로 지난해 9월 정부가 내놓은 정책금융 상품이다. 개인신용평점 하위 10%이면서 연 소득 4500만 원 이하면 6개월 간격으로 최대 500만 원씩 총 1000만 원을 빌릴 수 있다. 상품 금리는 연 15.9%로 성실 상환 시 1년마다 금리가 인하된다. 연체 이력이 있어 대출 심사에서 거절된 사람들도 이용이 가능해 '오픈런 대출'이란 별명으로 인기다.

그러나 늘어난 수요에 비해 공급처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서금원에 따르면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을 취급하는 금융사는 광주·전북은행, 웰컴·DB·우리금융저축은행 등 5곳에 불과하다. 올해 상반기까지 11개 금융기관에서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상품을 출시하겠다는 계획에서 크게 벗어났다.

취급 액수도 기대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당초 금융위원회는 올해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에 2800억 원을 공급하겠다고 했지만, 지난달까지 공급액은 약 1900억 원에 그쳐 공급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이 커졌다. 지난달부터 우리금융저축은행이 월 20억 원 한도로 공급에 동참했지만, 공급처가 더 이상 늘지 않는다면 연간 공급액은 약 2500억 원에 그치고 만다.

대부업체가 신규로 낸 가계대출 규모도 크게 줄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이 서금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대부업계의 가계신용대출 신규 금액은 6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추세라면 올해 가계대출 규모는 1조 원 안팎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전년 동기(4조1000억) 대비 25%에 불과하다.

이들이 대출 창구를 걸어 잠그는 이유는 역마진 우려 때문이다.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은 취약차주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연체될 확률이 높아 대부업체 입장에선 선뜻 공급에 나서기 어려운 상황이다. 서민금융의 마지노선이 무너지자 더는 빚을 낼 곳이 없어 신용회복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차주들도 급증했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신용회복위원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신용회복을 위해 채무조정을 신청한 20·30세대는 신규 3만7000건, 재조정 2만5000건으로 6만3000건이 넘는다. 2021년 연간 신청 건의 86%에 달하는 수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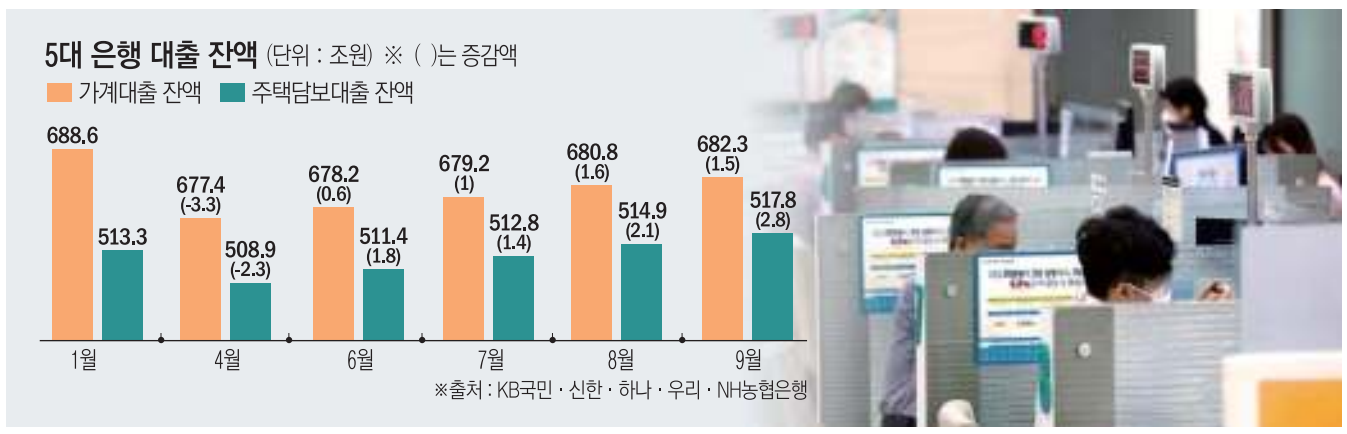
전문가들은 공급에 어려움이 있는 정책금융상품보다 근본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현행 법정 최고금리 20%는 오히려 서민들을 제도권 내 대출에서 불법 사채시장 등 제도권 밖으로 내몰고 있다"며 "제도권 내 대출이 활발히 이뤄질 수 있도록 법정 최고 금리를 올려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상원 기자 jsw@

'가계빚 죄기'에도 은행 돈 더 빌려 썼다… 지난달 주담대 2.8兆 '쑥'

5대 은행 가계대출 잔액 682.3兆
부동산 매수심리 회복… 1.5조↑
전세자금·신용대출 11개월째 감소



금융당국이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에 나이 제한을 두는 등 가계대출에 제동을 걸었지만 부동산 매수심리가 살아나면서 지난달 가계대출 잔액이 1조5000억 원가량 불어났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9월 말 가계대출 잔액은 682조3294억 원으로 전월(680조8120억 원)보다 1조5174억 원 증가했다.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해 1월부터 1년 4개월 연속 감소하다가 지난 5월 증가 전환했다.

가계대출 잔액이 늘어난 것은 한국은행이 올 1월부터 5회 연속 기준금리를 동결하자 자산시장이 회복세를 보이면서 부동산 매수 심리가 올라간 데 따른 영향으로 해석된다.

5대 은행의 주담대 잔액은 지난달 말 기준 517조8588억 원으로 전월(514조9997억 원) 2조8591억 원 증가했다. 6월(1조7245억 원)과 7월(1조4868억 원) 8월(2조1122억 원) 대비 증가폭이 커지며 2조 원대로 진입했다.

전세자금 대출과 개인신용대출은 모두 지난해 11월부터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9월 말 기준 전세자금 대출 잔액은 122조1756억 원으로 한 달 전(122조4540억 원)보다 2784억 원 줄었다. 같은 기간 개인신용대출 잔액은 8월말(108조4171억 원)보다 1조762억 원 감소한 107조3409억 원으로 집계됐다.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증가세를 완화하기 위해 은행권 규제를 강화했음에도 불구, 연내 금리 인하 기대감과 집값 반등에 대한 '막차 수요'가 몰리면서 대출 증가세가 지속된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당국은 가계대출 증가 주범으로 꼽힌 '50년 만기 주담대'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만기를 40년으로 단축하는 등 대출 문턱을 높였다.

기업대출은 9월 말 기준 756조3309억 원으로 전월 말(747조4893억 원)보다 8조8416억 원 증가했다. 기업 규모별로 보면 대기업 대출 잔액이 129조4044억 원에서 132조9906억 원으로 한 달 새 3조5862억 원 증가했다. 중소기업 대출 잔액은 618조849억 원에서 623조3402억 원으로 5조2553억 원 늘었다.

시중은행의 총수신 잔액도 8월에 이어 증가했다. 5대 은행의 총수신 잔액은 지난달 말 기준 1938조2617억 원으로 전월 1934조5651억 원에서 3조6966억 원 불었다. 정기예금은 감소했지만, 저원가성 요구불예금과 정기적금이 증가한 탓이다.

요구불예금은 지난달 말 기준 608조1349억 원으로 전달(597조9651억 원)보다 10조1698억 원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정기적금은 42조2814억 원에서 43조5287억 원으로 1조2473억 원 늘어났다. 반면 정기예금 잔액은 8월 말 844조9671억 원에서 9월 말 842조2907억 원으로 2조6764억 원 감소했다.

손희정 기자 sonhj1220@

내주부터 정무위 국감
금융지주 회장 다 빠져

김덕환 대표 등 증인·참고인 30명

국회 정무위원회가 10일부터 진행될 국정감사 일반 증인과 참고인 30명을 채택했다. 금융권의 내부통제 이슈로 국감에 불러들일 것으로 예상됐던 금융지주회장이나 은행장들은 명단에서 모두 제외됐다.

국회 정무위는 4일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일반증인 19명, 참고인 11명 등 총 30명에 대해 국감 출석을 요청하기로 했다.

이날 여야 간사간 협의를 통해 확정된 일반증인으로는 김덕환 현대카드 대표, 마크리 애플코리아 사장, 황국현 새마을금고중앙회 이사, 홍원식 하이투자증권 대표이사 등이 포함됐다.

김 대표와 마크리 사장은 애플페이 도입으로 과도한 비용부담이 금융소비자에 전가될 가능성과 애플페이 사용 오류로 인한 소비자 불편 등에 대한 입장을 청취하고자 부르기로 했다.

실제로 현대카드는 애플페이를 국내에 도입한 직후 신규 가입자 수가 급증했지만, 현재는 다소 시들한 상황이다. 특히 현대카드가 애플페이 건당 수수료로 0.15%를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지나치게 높은 비용을 지급하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 같은 수수료 때문에 다른 카드사들도 애플페이 도입을 망설이고 있고, 이번 국감에서도 타국에 비해 높은 수수료율 등을 놓고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최근 은행권에서 잇따라 발생한 내부통제와 관련해선 금융지주 회장이나 은행장 모두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소환되지 않았다.

이재영 기자 ljy0403@



당뇨·고혈압 있어도
고령자 암보험 가입

KB손보 '건강보험' 100세 보장

KB손해보험은 실버 고객들을 대상으로 당뇨와 고혈압 등 만성질환이 있어도 가입 가능한 'KB 실버암 간편건강보험 플러스'를 출시했다고 4일 밝혔다.

이 상품은 당뇨나 고혈압, 고지혈증이 있는 만성질환 고객도 가입할 수 있는 유병자 암보험으로, 10·15·20년 만기를 선택해 60세부터 90세까지 가입할 수 있으며, 최고 100세까지 보장된다.

해당 상품은 암을 9개 부위별로 세분화해 암 진단비를 최대 9번까지 지급받을 수 있는 '통합 암 진단비'가 탑재됐다. 기존 암 진단비는 암이 발생하면 보험금이 지급되고 해당 보장이 소멸됐다. 하지만 이 상품은 보험금이 지급된 해당 암에 대해서만 보장이 소멸되고, 나머지 부위의 원발암(암이 처음 발생한 기관의 암)은 보험 만기까지 계속해서 보장받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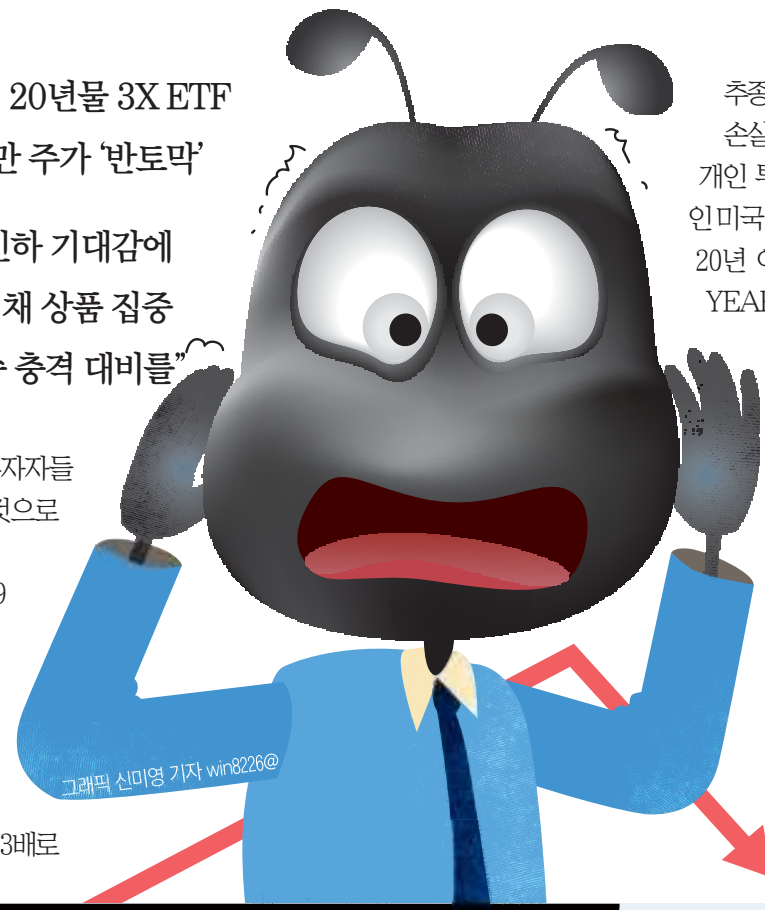
서지연 기자 sjy@

뉴노멀 고금리시대 쇼크

美국채금리 급등에 평가손 눈덩이… 채권개미 '악소리'

디렉시온 데일리 20년물 3X ETF
9.6억弗 담았지만 주가 '반토막'

채권개미, 금리인하 기대감에
2~3배 추종 장기채 상품 집중
증권가 "추가상승 충격 대비를"



10년물 5% 진입 가능성

미국 국채금리 급등에 국내 '채권개미'(개인 채권투자자)의 얼굴에 주름살이 한가득이다.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금리가 16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뛰면서(채권가격 하락) 평가 손실로 투자금이 묶여서다.

올해 초부터 많은 개인투자자가 '연내 미국 기준금리 인하'라는 장밋빛 기대를 품고, 미국 장기채에 투자하는 상장지수펀드(ETF) 등 채권 상품을 무더기로 사들였다. 상당수 투자자는 주가 상승의 2~3배를 추종하는 레버리지 상품을 담았다. 시장 전문가들은 미 국채금리가 5%를 넘어설 수 있다며, 리스크 관리를 주문한다.

4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올해 서학개미 1위 순매수 종목은 '디렉시온 데일리 20년 이상 미국채 3배 ETF(TMF)'다. 매수규모는 9억6528만 달러(약 1조3134억 원)다.

이 상품은 만기 20년 이상 미 국채로 구성된 지수(ICE US Treasury 20+ Year Bond Index)를 3배로 추종하는 초고위험 상품이다. 채권 가격은 금리와 반비례하는 만큼 기준금리가 하락할 경우 장기채 ETF를 통해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어 투자자들의 자금이 대거 몰린 것으로 풀이된다.

이 ETF는 올해 초 9달러대에 머물던 가격이 최근 4.3달러대로 거의 반토막났다. 올해 들어서만 주가가 43.6% 가량 내렸다. 특히 지수를 3배로 추종하는 특성 상 낙폭이 커지면서 손실액은 더욱 불어난 모습이다.

개인 투자자들은 만기가 20년 이상인 미국 국채를 운용하는 '아이셰어즈 20년 이상 미국채(ISHARES 20+ YEAR TREASURY BOND) ETF'도 2억8821만 달러 어치를 사들였다. 국내 투자자들의 미국 주식 순매수 4위에 해당하는 수치다. 아이셰어즈 20년 이상 미국채 바이라이트(ISHARES 20 + YEAR TREASURY BOND BUYWRITE)는 2억6062억 달러를 순매수해 5위로 집계됐다. 이 ETF들은 올해 약 14.6% 가량 내린 상태다.

채권개미들은 기준금리 인하에 베팅하면서 미국의 장기채 투자에 대거 뛰어들었으나 우울한 성적표를 받아들고 있다. 채권 가격은 기준금리가 하락할 경우 장기채 ETF를 통해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 특히 금리 인하 압력이 커질 때는 투자금 회수 기간(듀레이션)이 긴 장기채가 단기채보다 자본차익 효과가 크다는 장점이 있어 투자자들이 대거 몰렸다. 그러나 금리 인상 기조가 장기화 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기대와는 다른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

증권가에선 10년 만기 미국 국채 금리가 5%대에 진입할 가능성도 점치고 있다. 추가 상승 가능성이 있는 만큼 리스크 관리에 집중할 것을 조언한다.

윤여삼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기관들이 의미있게 보았던 4.3% 이전 고점이 깨진 이후 4.5%에서 상단지지를 확인하려 했으나, 단숨에 무너진 이후 투자심리가 급격히 위축됐다"면서 "미국채가 5%대에 진입할 가능성과 이 채권에 사상 최대 숏 포지션이 구축된 점을 동시에 고려해할 상황이다"라고 했다. 강대승 DB금융투자 연구원은 "현재 환경은 증시에 비우호적이며, 이러한 불안감은 증시 변동성 확대로 이어질 수 있기에 리스크 관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성욱 기자 sajikoku@

2023년 서학개미 미국 주식 순매수 상위 종목 (단위 : 달러)

			주가 등락률
❶	디렉시온 데일리 20년 이상 미국채 3X ETF	9억6528만	-43.6%
❷	프로셰어즈 울트라프로 숏 QQQ ETF	3억6452만	-61.9%
❸	슈왑 미국 배당주 ETF	2억8821만	-8.1%
❹	아이셰어즈 20년 이상 미국채 ETF	2억6062만	-14.6%
❺	아이셰어즈 20년 이상 미국채 바이라이트	2억4414만	-14.6%

회사채 시장 '큰손' 된 개미… "선별적 접근을"

올해 장외채권 28.1兆 순매수
회사채 7.5兆 전년比 1兆 늘어
부동산금융·석화·건설 등 주의

"지난 한 해 동안 판 물량을 이미 다 팔았다. 회사채부터 국채까지 개미(개인투자자)들의 수요가 다양하다." (A증권 WM솔루션총괄본부 상무)

미국의 채권 금리 금등 여파로 주식부터 암호화폐까지 금융 자산이 옆걸음하거나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도 개미들은 채권 투자에 열을 올리고 있다. 기관이나 외국인보다 더 많이 샀다. 원금이 보장되고 분기마다 들어오는 이자가 웬만한 투자처보다 낫다는 판단이다. 아예 장기 채권에 투자해 오른 금리를 오랫동안 연금처럼 받겠다는 투자자도 늘고 있다.

4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올 들어 1~9월 사이 개인이 사들인 장외채권 순매수액은 28조1368억 원 규모다. 지난해 같은기간 14조4393억 원보다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이 중 국채 순매수 액은 9조3914억 원이나 됐다. 지난해 1~3분기 1조9307억 원 대비 4배 넘게 늘었다.

특히 회사채 시장에서는 큰 손으로 자리했다. 올해 개인의 회사채 순매수액은 7조5161억 원이다. 지난해 같은기간 6조586억 원 보다 1조 원 이상 늘었다. 증가율은 높지 않지만, 은행(5조1493억 원), 기타법인(6조693억 원) 등 기관투자자보다 순매수액이 많다.

시장 영향력도 커졌다. 신용등급 BBB급 JTBC는 7월 1년물 400억 원 모집에 80억 원 미매각이 발생했으나 추가 청약을 통해 모집물량을 채웠다. 신용도 A+ 삼척블루파워는 이달 발행한 회사채 2050억 원 모집 수요예측에서 주문량 240억 원으로 1810억 원 대량 미매각이 발생했었다. 허나 추가 청약에서 2000억 원까지 투자 수요를 확보해 미매각 물량을 50억 원대로 크게 줄였다. 개인의 채권투자 수요가 늘면서 증권사 리테일 채널에서 삼척블루파워 회사채 물량 확보 경쟁이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채권 투자 대중화는 투자 증가율로도 확인된다. NH투자증권과 한국투자증권에 따르면 올 1~8월 채권에 투자한 일반 투자자(주식, 채권, 펀드 등 투자액 3억 원 미만) 수는 13만4343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3만6875명)의 3.6배로 급증했다.

김지만 삼성증권 연구원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를 너무 빠르게 반영했던 상반기 대비 채권을 매수하기 좋은 금리 상황"이라며 "계절적으로 연말에 채권 매수 규모가 줄어드는 경향이 있지만, 10월까지는 개인 채권 매수세가 꺾이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내다봤다.

전문가들은 선별적인 투자전략을 주문한다. 김기명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금융업종에서 주의가 필요한 업종은 부동산금융 익스포져가 큰 증권, 캐피탈업종"이라며 "비금융 기업 섹터에서는 석유화학, 건설, 반도체, 철강업종 등이 실적 저하가 우려돼 선별적 매수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한다. 실적 개선세를 보이고 있는 기계, 방산, 조선, 정유 업종 등은 우선적 매수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박민규 기자 pmk8989@

달리는 삼바… "연매출 20% 성장 자신"

매출 전망치 3.6兆… 751억 상향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거침없는 성장으로 글로벌 리딩 위탁개발생산(CDMO)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올해 예상 매출 규모를 3조6000억 원대로 끌어올리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23년 매출 전망치를 3조6016억 원으로 상향했다고 4일 공시했다. 이는 4월 제시한 3조5265억 원보다 751억 원 확대한 수치다.

4공장의 성공적인 가동률 상승에 따른 매출 증가가 전망치 상향의 배경이다. 글로벌 빅파마의 대형 위탁생산(CMO) 계약을 중심으로 4공장 가동률이 예상보다 빠르게 상승했기 때문이다. 4공장 매출은 3분기부터 본격적으로 반영된다. 또 1~3공장을 풀가동하면서 공정 효율을 극대화해 고품질 바이오의약품을 더 빠른 속도로 생산해 매출 기여도를 높였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4월 연매출 예상 상승률을 전년 대비 10~15%에서 15~20%로 높인 바 있다. 이번에는 20% 증가로 재차 조정해 고성장 기조를 강화했다. 현재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글로벌 상위 20대 빅파마 가운데 14곳을 고객사로 두고 있다. 올해 누적 수주액은 2조7000억 원으로, 역대 최고 수주액(1조9000억 원) 기록을 반년 만에 깼다.

존림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는 고객 만족도 극대화 전략으로 2020년부터 GSK, 일라이릴리, 아스트라제네카, 모더나, 노바티스, 화이자까지 주요 빅파마와 계약을 성사시켰다. 빅파마들은 계약 이후 제품을 확대하거나 생산 규모를 늘리는 등 파트너십을 강화했다.

유혜은 기자 euna@

강성묵 하나증권 대표 마약 근절 "노 엑시트"

하나증권은 마약 예방 '노 엑시트(NO EXIT)' 캠페인에 강성묵 대표가 동참했다고 4일 밝혔다.

'노 엑시트' 캠페인은 마약 중독의 위험성을 환기하고 마약 범죄를 예방하고자 경찰청과 마약퇴치운동본부가 합동으로 추진하는 범국민 캠페인이다.

강 대표는 9월 19일 김원규 이베스트투자증권 대표의 지명을 받아, 하나증권 공식 SNS에 마약 예방 캠페인 메시지와 사진을 업로드하며 캠페인을 적극 홍보했다.

다음 릴레이 챌린지 참여자로는 이승열 하나은행장과 조좌진 디와이피엔에프 회장을 추천했다.

강 대표는 "최근 불법마약이 사회의 심각한 이슈로 떠오른 만큼 이번 캠페인이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하나증권도 마약을 근절하고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일에 공감하고 관심을 지속하며 함께 성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권태성 기자 tskwon@



강성묵(가운데) 하나증권 대표이사와 하나증권 임직원들이 마약 예방 '노 엑시트' 캠페인을 홍보하며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제공 하나증권

전통 간식부터 비건식까지… K푸드, 유럽인 '입맛 사냥'

韓기업 100곳 '아누가' 출격

동원, 식물성 참치·만두 등 소개
SPC, 'K디저트' 약과 12종 선봬
롯데칠성 '처음처럼 새로' 홍보전





SPC삼립이 세계 최대 규모의 식품 박람회 '아누가(ANUGA)'에 'K디저트'를 주제로 참가한다. 오른쪽은 동원그룹 부스. 사진제공 각사

국내 식품 기업들이 독일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규모 국제 식품박람회 '아누가(ANUGA)'에서 K푸드 홍보전을 펼친다. 유럽은 K콘텐츠 붐에 힘입어 꾸준히 한국 식품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 곳으로, 국내 식품기업들은 이번 행사 참가를 통해 전통 간식과 육식을 대체하는 식물성 제품 등을 다양하게 선보일 계획이다.

4일 식품업계 등에 따르면 7일부터 11일까지 독일 쾰른에서 열리는 아누가에 참가하는 국내 기업은 100여 개사다. 식품 대기업 중에서는 동원, SPC, 롯데칠성음료 등이 참여한다. 아누가는 매년 독일 쾰른에서 열리는 식품업계 국제 행사로, 올해 107개국에서 8000여 개에 달하는 업체들이 박람회 참가 티켓을 끊었다. 우리나라 식품 기업들이 앞다퉈 아누가에 출사표를 던진 이유는 최근 유럽 현지에서 K-푸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유럽 식품시장 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식품 수출액은 전년 대비 28.3% 증가한 7억1089만9000달러로 집계됐다. 주력 수출국은 영국, 프랑스, 독일이며 주요 품목은 라면(10.0%), 김(6.2%), 기타 음료(4.3%), 김치(2.1%) 순으로 나타났다.

국내 기업들은 올해 아누가에서 한국식 전통 간식과 소스를 집중적으로 알릴 방침이다. 대안식으로 주목받는 식물성 제품들도 선보일 계획이다. 세계적으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이 강조되면서 유럽 식품 시장도 지속가능성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동원그룹의 동원F&B는 식물성 대체식 브랜드 '마이플랜트'의 식물성 참치·만두·캔햄 등을 소개한다. 마이플랜트는 동원이 지속가능성에 주목해 올해 3월 선보인 식물성 대체식 브랜드다. 여기에 37년 전통 한식 가정간편식(HMR) 브랜드 '양반'을 앞세워 죽, 김부각, 떡볶이 등을 선보일 계획이다. 동원홈푸드는 국내 유명 프랜차이즈에 납품하는 K소스를 비롯해 시즈닝, 파우더 등을 소개할 방침이다. 건강 관리와 비건에 대한 주목도가 높은 유럽 시장 바이어를 공략하기 위해 저칼로리·비건 소스도 선보인다.SPC삼립은 K디저트를 주제로 박람회에 참여한다.

특히 최근 '할매니얼' 열풍을 타고 인기를 끄는 한국식 디저트 약과를 전시 주력 제품으로 정했다. 미니꿀약과, 궁중꿀약과를 비롯해 프리미엄 제품인 조청 모약과, 약과 쿠키, 약과 타르트 등 12종의 제품을 소개한다. 세계 25개국에 수출 중인 삼립호빵도 선보인다. 수출용으로 개발한 '불닭호빵', '김치치즈호빵' 등 10종을 전시한다. 동원과 마찬가지로 식물성 소시지를 활용한 핫도그 등 비건 제품들도 선보인다.

SPC삼립 관계자는 "이번 전시 참가를 계기로 본격적인 해외 수출 확대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음료 업체 중에는 롯데칠성음료가 행사에 참가한다. 롯데칠성음료 관계자는 "수출 주력 제품인 밀키스, 칠성사이다를 비롯해 주류 처음처럼, 처음처럼 새로 등을 선보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지영 기자 kjy42@





'로얄살루트 한정판' 세계 첫 공개 페르노리카코리아는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누디트 익선에서 영국 패션 디자이너 리차드 퀸과 협업한 '로얄살루트 21년 리차드 퀸 에디션2'를 전 세계 최초로 공개했다. 새로 출시한 한정판 제품은 리차드 퀸의 시그니처 패턴인 장미 꽃잎과 하얀색 물방울 도트가 검은색 보틀에 '오렌지 로즈', 진한 녹색 보틀에 데이지 플라워 패턴이 새겨진 '데이지' 등 두 가지다. 망고, 바나나의 풍부한 과일 향에 더해진 딸기잼, 배, 복숭아의 달콤함, 여기에 스파이시하고 스모키한 풍미가 더해져 조화로운 균형을 이루는 점이 특징이다. 사진제공 페르노리카코리아

이커머스 '집토끼 모시기' 총력전

카드 제휴로 할인·적립 혜택 강화
자체 상품권 발급… 신규고객 유치도

온라인 쇼핑 시장이 폭증하면서 이커머스업계가 잇달아 자체 상품권과 전용 카드를 선보이고 있다. 상품권을 통해 신규 고객을 창출하는 동시에 할인·적립 혜택을 강화한 전용 카드로 고객 충성도를 강화하기 위한 전략이다.

4일 이커머스업계에 따르면 쿠팡은 최근 KB국민카드와 제휴를 맺고 연내 '쿠팡 와우 카드'를 선보인다. 이 카드는 쿠팡의 유료멤버십인 와우 회원만 가입할 수 있는 PLCC(Private Label Credit Card)다. PLCC는 한 개 카드사와 한 개의 제휴사가 단독 계약을 맺고 제휴사 혜택만을 제공한다.특히 매월 쿠팡에서 구매 시 4%, 쿠팡 외 구매 시 1.2%의 쿠팡캐시를 적립해준다. 전월 실적이 상관없다는 것이 최대 강점으로, 매월 최대 5만2000원까지 쿠팡캐시로 되돌려 받을 수 있다.

새벽배송 업체 컬리도 올해 4월 BC카드와 손을 잡고 'BC바로 컬리카드'를 내놨다. 이미 발급 2개월 만에 3만 좌를 돌파할 정도로 인기다. 자체 결제시스템인 컬리페이에 연계해 결제하면 사용액의 5%가 포인트로 적립된다. 컬리 회원 등급에 따라 1~7% 적립 혜택도 추가 제공된다. 컬리는 최근 상품권도 론칭했다. 구매한 상품권 금액만큼 컬리캐시로 충전할 수 있는 온라인 교환권으로, 3만~50만 원권으로 총 6종이다. 받는 사람의 휴대전화번호와 이름만 입력하면 선물하기도 된다.

SSG닷컴도 올해 8월 자체 상품권을 내놨다. 현금처럼 쓸 수 있는 전자화폐 'SSG머니' 기반의 모바일 상품권으로, 1만~50만 원권·총 7종이다. 신세계그룹 관계사 가맹점을 비롯해 모든 SSG머니 온·오프라인 사용처에서 사용할 수 있다. SSG닷컴도 컬리와 동일하게 상품권 선물하기 기능을 제공한다.

이커머스업계의 이 같은 움직임은 고객 유치전의 일환이다. 이커머스 시장이 성숙단계에 접어들면서 신규 고객 창출과 단골 고객 이탈을 중요해진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한 때 유행했던 PLCC가 최근 유통업계에서 집토끼를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 재조명 받고 있다"고 말했다.

유승호 기자 peter@

계약 위반 후 다른 학원 간 강사… 法 "2억 배상하라"

프라임에듀넷, 손배소 청구
3년 강의 계약 뒤 연장 요구
강사 측 "학원, 종신 계약 강요"
法 "시점 명시, 종신 계약 아냐"

소속 강사가 계약을 위반하고 다른 학원으로 옮겨 강의한 행위에 대해 법원이 총 2억여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4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6민사부(재판장 이원석 부장판사)는 교육 콘텐츠 개발업과 학원 운영업 등을 영위하는 프라임에듀넷(원고)이 소속 강사 A 씨(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프라임에듀넷과 A 씨는 2019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총 3년의 강의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서 제2조 제2·3항에 따르면, 계약 종료 1개월 전까지 둘 중 한쪽이라도 상대방에게 본 계약과 같은 내용(계약 기간과 계약금은 제외)으로 재계약을 요구할 수 있다. 아울러 한 쪽의 재계약 의사 표시만으로 계약은 연장된다.

이 같은 조항에 따라 프라임에듀넷은 2021년 11월 A 씨에게 재계약을 요구했다. 하지만 A 씨는 이를 거절했고, 다른 학원과 강의 계약을 체결한 뒤 5급 공채시험 및 국립외교원 채용시험의 경제학 과목을 강의했다.

이에 프라임에듀넷은 "계약서에 따라 A 씨와의 강의 계약 기간은 2022년 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한 차례 연장됐다"며 "그러나 A 씨는 다른 학원과 강의 계약을 체결하고 원고에 대한 강의 제공을 중단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A 씨 측은 "이 사건 강의 계약 제2조 제2·3항은 일방의 의사 표시에 의해 3년씩 무한정 계약 기간 연장이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서 종신 계약을 강요하는 것"이라며 "피고가 다른 학원에서 더 좋은 조건으로 강의할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2022년 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강의 계약 기간이 연장됐다는 프라임에듀넷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어 "종신 계약을 강요하는 것"이라는 피고의 주장도 배척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강의 계약 제2조 제3항은 일방의 재계약 요구에 의해 연장된 계약 기간을 단순히 '3년'이라 하지 않고 시점과 종점을 명시해 '2022년 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로 하고 있다"며 "피고의 주장과 같이 계속된 갱신으로 인한 종신 계약 강요의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방의 의사 표시에 의해 재계약이 이뤄지므로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계약 체결 여부에 관한 의사결정의 자유가 제한되기는 한다"면서도 "피고로서도 다른 학원에서 더 좋은 조건으로 강의할 기회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재계약을 요구해 추가로 3년 동안 안정적인 강의 기회를 얻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한 쪽의 의사 표시에 의한 재계약 체결권이 실질적으로 원고에게만 이익이 되는 조항이라고 할 수도 없다는 취지다.

송석주 기자 ssp@

번듯한 직장 있는데, 韓 왜 떠났을까 '한국이 싫어서' 청년 처한 현실 조명

부산영화제 개막작 시사회

20대 후반에 들어선 계나(고아성)는 한국 생활을 접고 뉴질랜드로 떠나기로 결심한다. 이유는 복잡하지만, 정리하자면 간단하다. '한국이 싫어서'.

4일 오후 부산 해운대 영화의 전당에서 열린 제28회 부산국제영화제 개막작 기자 시사회를 통해 공개된 장건재〈사진〉 감독의 신작 '한국이 싫어서' 이야기다.

장 감독은 이날 상영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주인공 계나는 직장이 있고 말이 제법 잘 통하는 오랜 파트너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삶의 환경을 바꾸려 한다"면서 "무엇이 그녀를 계속해서 한국이라는 사회를 탈출하게끔 만드는지, 젊은이들이 왜 한국 사회를 힘들어하는지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고 연출 배경을 전했다.

'한국이 싫어서'는 2015년 출간된 장강명 작가의 동명 소설을 영화화한 작품이다. 극심한 경쟁 체계와 가부장적인 문화 등 고질적인 사회 문제를 날카롭게 들춰내며 주목받았다. 영화 속 '한국이 싫어서'의 주인공 계나는 서울에서 4년제를 졸업한 뒤 남 보기에 번듯한 금융회사에 취직해 한국 사회가 원하는 표본처럼 성실히 살아가던 20대 주인공으로 묘사된다.



그의 삶은 녹록지 않다. 인천에서 강남으로 편도 2시간의 대중교통 출근길을 버티며 악착같이 모은 돈으로 학자금 대출을 상환하지만, 부모님의 주거비로 또다시 수천만 원을 분담해야 한다.

같은 대학을 나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던 남자친구 지명(김우겸)은 결혼을 원하지만,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그의 집 가족이 자신을 탐탁지 않아 한다는 사실을 안 뒤에는 마음이 거북스럽다.

한국 사회에 태어난 청년 누가 겪더라도 이상하지 않은 '일상적인 부담'이지만, 계나는 모두가 당연한 듯 같은 종류의 부담을 지고 동일한 방식으로 살아가기를 요구받는 사회의 분위기를 못내 견디기 어려워하는 인물이다.

이날 기자간담회에 자리한 남동철 집행위원장 직무대행은 "(프로그래머로서) 영화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는 얼마나 정직하게 우리 삶을 반영하는가"라면서 "'한국이 싫어서'에는 미래에 대한 큰 불안감을 지닌 젊은 친구들이 나오고 그들이 처한 현실의 문제를 다양하게 드러낸다"고 개막작 선정 이유를 들었다.

제28회 부산국제영화제는 13일까지 10일간 부산 해운대 영화의 전당 등 4개 극장에서 269편의 영화를 상영한다.

부산=박꽃 기자 pgot@



한글문화산업전시회 4일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열린 '한글문화산업전시회'에서 참석자들이 한국 전통 공예 체험을 하고 있다. 인공지능(AI), 챗봇, 기계번역, 교육·출판, 한글 기업 등 36개 기업이 참여한 '한글문화산업전시회'는 한글문화와 한글산업을 통합, 올해 처음 열리는 행사로 챗GPT로 대표되는 생성형 AI 기술이 가져올 변화에 대응할 산업적 기반을 활성화하는 장이다.

신태현 기자 holjjak@

특목고·자사고 42%가 서울 출신… '강남3구·양천·노원'이 절반 차지

전국 기준으론 5명 중 1명꼴
'사교육 중심지' 학생들이 진학
의대 쏠림으로 과학고는 줄어

당초 2025년 폐지할 예정이던 외국어·국제 고등학교 등 특수목적고(이하 특목고)와 자율형 사립고(자사고)를 현 정부가 존치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전체 특목고·자사고 진학생 중 서울 출신이 절반 가까이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중에서도 대형 학원가가 형성돼 있어 일명 '사교육 중심지'로 불리는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양천구, 노원구 출신이 절반 가량을 차지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교육부로부터 '2018~2022년 전국 중학교 졸업생 진로 현황'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과학고·외고·국제고·자사고에 진학한 중학생의 42.3%(7910명)가 서울 출신이었다.

서울중에서도 강남·서초·송파·양천·노원 출신은 46.5%(3682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전국 중학교 졸업생을 기준으로 보면 지난해 특목고·자사고에 진학한 학생 중 19.7%가 강남·서초·송파·양천·노원 출신이다. 5명 중 1명 꼴인 셈이다.

매년 서울 출신 특목고·자사고 진학생 중 강남·서초·송파·양천·노원 출신 비중은 꾸준히 높아졌다. 2018년 41.3%에서 2019년 44.1%, 2020년 44.5%, 2021년에는 45.2%를 기록하고 지난해에는 46.5%까지 높아졌다.

전체 특목고·자사고 진학생 중 서울 출신의 비율은 꾸준히 40%대 초반을 유지 중이다. 2018년 44.5%를 기록한 이후 매년 42%대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자사고만 놓고 보면 강남·서초·송파·양천·노원 출신 졸업생들이 크게 증가했다. 2018년 전체 진학생 중 강남·서초·송파·양천·노원 출신은 24.3%였지만, 지난해 28.2%까지 증가했다. 다만 과학고의 경우 강남·서초·송파·양천·노원 출신이 2018년 12.6%에서 지난해 8.0%로 하락했다.

서 의원은 "강남3구와 양천·노원 출신 중학교 졸업생의 자사고 진학 비율이 증가하고 과학고 진학이 줄어든 것은 최근 '의대 쏠림' 현상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과학고 재학생이 의대에 진학할 경우 재학 중 지급된 장학금을 회수하는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것은 2018학년도 이후이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실제로 과학고는 재학생이 의약학계열 진학을 택할 경우 교육비·장학금 등 지원금을 전액 환수하며 추천서 작성도 금지된다.

정유정 기자 oiljung@

임대차 계약 직후 경매 法 "임대인·중개사 책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직후 건물이 경매가 넘어간 상황에 대해 임대인과 공인중개사들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96단독 이백규 판사는 임차인 A 씨 등이 임대인 B 씨와 공인중개사 C·D 씨 및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제기한 보증금 반환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A 씨 등은 2021년 11월 C·D 씨의 중개로 B 씨와 이 사건 건물 중 303호를 임대차보증금 7500만 원, 임대차 기간을 2021년 12월 9일부터 2023년 12월 8일로 하는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이 사건 건물 및 그 부지에 관해 2021년 12월 24일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고, 이어 중복경매절차가 진행됐다. 이에 A 씨 등은 경매절차가 진행되고 있던 2022년 3월 8일 경매법원에 배당요구를 했지만, 배당받지 못했다.

이에 A 씨 등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일로부터 한 달도 안 돼 이 사건 경매절차가 진행됐다"며 "이에 원고들은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했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그 무렵 해지됐다. 따라서 B 씨는 원고들에게 임대차보증금 75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B 씨와 C·D 씨는 곧 경매절차가 진행되리라는 것을 고지하지 않고 기망했으므로 공동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B 씨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차보증금 75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C·D 씨는 원고들에게 권리관계에 관한 자료 확인의무 및 설명의무 등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고 설명했다.

송석주 기자 ssp@

창간 13주년을 축하합니다

꿈을 향해 함께 나아가자!

국민대학교 KOOKMIN UNIVERSITY
덕성여자대학교 DUKSUNG WOMEN'S UNIVERSITY
서강대학교 SOGANG UNIVERSITY
서울시립대학교 UNIVERSITY OF SEOUL
숭실대학교 Soongsil University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이화여자대학교 EWHA WOMANS UNIVERSITY
중앙대학교 CHUNG-ANG UNIVERSITY

〈가나다 순〉

족쇄 벗은 로톡…"3년 안에 리걸테크 유니콘 될 것"

김본환 로앤컴퍼니 대표

AI 쓰지 않는 변호사와 경쟁 신규 서비스 개발 최우선 과제 규제가 얼마나 많은 잠재력을 옭아매는지 증명하고 싶어



김본환 로앤컴퍼니 대표가 4일 서울 강남 사옥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법무부 징계위 결정의 의미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 로앤컴퍼니

"모든 족쇄를 벗은 만큼 3년 안에 국내 최초 리걸테크 유니콘으로 거듭나겠다."

김본환 로앤컴퍼니 대표는 4일 서울 로앤컴퍼니 강남사옥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달 26일 법무부가 법률 플랫폼 '로톡' 가입 변호사 123명에 대한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의 징계를 취소한 뒤 관련 입장과 향후 계획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본환 대표는 "변협이 내부 광고 규정을 개정해 변호사들이 온라인 플랫폼에 가입만 해도 징계할 수 있도록 만든 날부터 꼬박 829일 만에 나온 징계 취소"라며 "장기간 숙의를 거쳐 합리적 판단을 내려준 법무부 징계위원회에 감사를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법무부가 로톡과 같은 법률 플랫폼이 법률 시장의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고, 국민의 사법 접근성을 제고해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데 기여하는 점을 공감했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그러나 "마냥 기쁘지만은 않다"며 "로톡과 변협이 항상 대결구도로 그려졌으나, 규제와 싸우는 투사이고 싶진 않았다"고 했다. 그는 "2012년 로앤컴퍼니를 창업할 당시 10년 뒤 로톡 서비스의 미래를 상상했지만, (현재) 30%도 구현하지 못했다"며 "우리가 벤치마킹했던 (일본의 리걸테크 기업) 벤고시닷컴의 출시 1년차 때 지표와 자사의 같은 시기 지표로 보면 로앤컴퍼니가 더 앞섰는데도 현재 벤고시닷텀의 기업가치는 3조8000억 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법률시장의 디지털 전환은 지연됐고, 눈부신 기술 성장과의 시너지는 가로막혔다"며 "로톡의 이야기는 스타트업 코리아가 극복해낸 현실이자, 우리 사회가 겪어낸 성장통"이라고 평가했다.

로앤컴퍼니는 법무부가 로톡 플랫폼 운영과 관련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 사항에 대해 빠른 시일 안에 검토를 완료하겠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로톡이 특정 변호사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는 서비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지만, 광고비를 낸 유료변호사를 '액티브 변호사', '플러스 변호사' 등으로 표시해 특정 변호사와 연결 가능성을 높이는 데 대해선 개선이 필요하다고 봤다. 광고비 구간이 0~2750만 원으로 넓게 형성된 데 대한 지적도 있었다. 법무부가 요청한 개선사항은 모두 13개다.

3년 안에 국내 첫 리걸테크 유니콘(기업가치 1조 원 이상 비상장기업)이 되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김본환 대표는 "가까운 미래에는 인공지능(AI)을 쓰는 변호사와 AI를 쓰지 않는 변호사가 경쟁하게 될 것"이라며 "서비스를 고도화 하고, AI 기술에 기반한 신규 서비스를 개발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국내에서 리걸테크의 가치를 끌어올리는 데에 집중한 뒤 글로벌 시장에도 진출할 예정이다. 또 청년 변호사들이 법률시장에 안정적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개업 첫 6개월 간 로톡 광고비를 면제하고, 법률 소외 계층을 위해 연 매출액의 3%를 법률상담 지원 비용으로 투입하기로 했다.

김 대표는 "규제로 신음하는 스타트업이 너무 많다"며 "로앤컴퍼니가 국내 첫 리걸테크 유니콘이 돼 규제가 얼마나 많은 잠재력을 옭아매는지 증명하고 싶다"고 말했다. 김동효 기자 sorahosi@

대한의학회 의학공헌상 이성낙 가천대 명예총장



대한의학회와 부채표 가송재단은 제9회 대한의학회 의학공헌상 수상자에 이성낙〈사진〉 가천대학교 명예총장을 선정했다고 4일 밝혔다.

부채표 가송재단이 후원하는 대한의학회 의학공헌상은 우리나라 의학 발전 기반 조성에 헌신적으로 공헌한 개인 또는 단체에 수여한다. 이성낙 명예총장은 의학교육에서의 의료인문학 교육 도입 및 의료인의 사회적 역량 강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올해 수상자로 선정됐다.

이 명예총장은 독일 마르부르크대학교를 졸업하고 베체트병의 연구와 진료체계를 확립해 1996년 베체트병의 원인이 단순포진 바이러스임을 확증시킨 바 있다.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초대 학장과 한국의학교육학회 회장을 역임하면서 의학 발전을 위한 의학교육에 뜻을 두고 후학 양성에 노력을 기울였으며, 의학적인 지식과 능력은 물론 인문학적 소양 함양의 필요성을 중시하여 의학교육에서의 의료인문학 교육 도입 및 강화에 이바지했다. 또한, 미술에도 조예가 깊어 독일연방공화국 대통령이 서훈한 십자공로훈장을 수상한 바 있다.

시상식은 10월 6일 열리는 대한의학회 창립 57주년 기념식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유혜은 기자 euna@

카카오 떠나는 남궁훈 "교육가·AI 사업가로 새출발"

모교 서강대 초빙교수로 강단에



남궁훈〈사진〉 카카오 전 대표가 이달 말에 카카오를 떠난다. 2015년 카카오 공동체에 합류한 지 8년 만이다.

남궁 전 대표는 4일 페이스북을 통해 "8년간 함께해온 카카오와 10월 말 이별하고 새로운 삶을 살고자 한다"고 밝혔다.

남궁 전 대표는 최근 모교인 서강대학교 초빙교수로 근무하고 있다. 그는 "일하면서 얻은 지식을 학생들에게 전달하며, 직무에 대한 고민부터 사회인으로서 갖춰야 할 자세 등을 교육하며 선생님이라는 꿈에 다가가고자 한다"며 "장학재단을 설립하거나 장학기금 기부 사회환원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했다.

인공지능(AI) 사업에 대한 관심도 드러냈다. 남궁 전 대표는 "그동안 개별적으로 성장해왔던 음악, 영상, 게임 산업의 경쟁력이 이 시대에 AI와 만나 크게 폭발할 것"이라며 "예비 사업가로서 시장 진입 기회를 지켜보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한게임 창립 멤버인 남궁 전 대표는 2015년 8월 게임업체 엔진이 카카오에 인수되면서 카카오 공동체에 합류했다.

김나리 기자 nari34@

KB라이프 이환주 대표, 자회사 편입 '골든라이프케어' 방문

요양사업 강화…직원들과 소통



KB라이프생명은 이환주〈사진 앞줄 가운데 왼쪽〉 대표이사 사장이 4일 KB골든라이프케어 본사와 서초빌리지를 방문해 현장 근무자들과 임직원들과 만남의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KB골든라이프케어의 자회사 편입을 기념해 마련된 이날 행사에서는 이 대표가 직원들을 직접 만나 일일이 악수를 하며 건의 사항을 듣는 등 양사가 시너지를 만들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현장을 방문한 후 직원들과 함께 티타임을 함께하며 소통 행보를 이어갔다.

KB라이프생명은 적극적인 인프라 투자를 통해 KB골든라이프케어의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오는 12월에는 노인주택 서비스 확장을 위해 '평창카운티'를 개소하고, 2025년에는 요양시설인 '은평빌리지(가칭)', '광교빌리지(가칭)', '강동빌리지(가칭)'를 차례로 개소할 예정이다.

서지연 기자 sjy@·사진제공 KB라이프생명

대보건설, 권오철 대표이사 선임



대보그룹의 건설 계열사인 대보건설은 이달 1일 부로 권오철〈사진〉 건축사업본부장을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했다고 4일 밝혔다.

권 신임대표는 경북 상주 출신으로 대구고등학교와 충북대학교 건축공학과를 졸업했다. 지난 1993년 남광토건에 입사해 공공영업 업무와 현장소장 등을 거쳐 2017년부터 대보건설에서 아파트, 대학 캠퍼스 등 현장소장을 역임하고 건축사업본부장을 맡아 왔다.

대보건설 관계자는 "권오철 대표는 현장형 경영자로서 건설업계가 처한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진리 기자 truth@

한국GSK 마우리찌오 보가타 사장



한국GSK는 10월 1일자로 마우리찌오 보가타〈사진〉를 신임 사장에 선임했다고 4일 밝혔다.

마우리찌오 보가타 사장은 2015년 GSK에 입사해 비즈니스 리더십, 직원중심 전략과 함께 다양한 질환 영역 사업부의 지속적인 성장 주도에 있어 성과를 인정받아 왔다. 그는 GSK 입사 전 9년간 다국적 소비재 기업(FMCG)의 라틴아메리카, 유럽, 그리고 아시아 지역에서 여러 직무를 역임한 바 있다.

한편, 2020년부터 최근까지 한국GSK를 이끌어왔던 톱 켐프턴 사장은 유럽 백신마켓 총괄(Head Vaccines Market Lead, Europe)로 임명됐다.

노상우 기자 nswreal@

인사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국장급 전보 △기획총괄정책관 김용수 △일반행정정책관 노혜원 △규제심사관리관 장원석

◆**기획재정부** ◇서기관 승진 △기획조정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박칠군 △예산실 예산정책과 원선재 △예산실 국토교통예산과 이은숙 △세제실 재산세제과 김준하 △경제정책국 종합정책과 신동현 △미래전략국 미래전략과 박준백 △국고국 국고과 배경화 △재정관리국 재정관리총괄과 이해인 △공공정책국 인재경영과 이승민 △국제금융국 국제금융과 진승우

◆**고용노동부** ◇과장급 인사교류 △중앙노동위원회 심판2과장 임선정

◆**공정거래위원회** ◇국장급 승진 △기업거래결합심사국장 김문식 ◇과장급 전보 △운영지원과장 음잔디 △경쟁정책과장 정희은 ◇과장급 파견 △고용노동부 파견(인사교류) 임선정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전무 △회원지원본부 총괄 이재혁 ◇상무 △회원지원본부 본부장 윤정재 ◇상무보 △경영관리본부 본부장 김성현 △정책1본부 본부장 김춘현 ◇팀장 승진 △회원팀 팀장 김성광 ▷기업법제팀 팀장 강택신 ◇팀장 전보 △연수팀 팀장 이병철 △총무팀 팀장 강재석

◆**신영증권** ◇전무 신임 △헤리티지·패밀리오피스 솔루션 홍성혜 ◇부서장 보직 △APEX 대구 손명화 △정보보호팀 정찬준 ◇차장 승진 △헤리티지솔루션부 이영훈

◆**한화그룹** 〈신규 임원 승진〉 ◇㈜한화 △김남욱 △김윤석 △박광호 △오동욱 △정재효 △정진호 △차상민 △황규헌 ◇한화솔루션 △구자호 △김경민 △김규철 △김근호 △김기홍 △김지현 △김진명 △노승준 △류현철 △박수경 △박희라 △송광영 △신정두 △유선필 △이관석 △이광진 △이신범 △임종수 △전영식 △전효진 △정성현 △진준희 △최종형 △프란시스코 바렐라 △한용수 ◇한화에너지 △최영선 △신동욱 △임성빈 ◇한화임팩트 △방정석 ◇한화토탈에너지스 △김민수 △노성주 △배영규 △이진우 △전민성 △최권식 △허순규 ◇한화파워시스템 △도기훈 △조성효 ◇한화시스템 △김성철 △김용진 △류승우 △반 왕 △박매훈 △신상호 △장보섭 ◇한화비전 △전철민 △정원영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김경환 △김호중 △이명헌 △이인희 △조성원 △최병호 △한세정(이상 전략부문) △김중석 △안종기 △윤용상 △이경훈 △이승두 △이우진 △이창수 △이희창 △전대근 △정선용 △최명환 △최연진 △황동규(이상 사업부문) ◇한화정밀기계 △강태우 △김성구△ 박영민 △이만희 △이태영 ◇한화오션 △강상돈 △구홍진 △김대식 △김신형 △김일홍 △서행명 △오세영 △오현길 △이동권 △이창근 △조종우 △허철은

◆**메디톡스그룹** 〈이사 승진〉 ◇메디톡스 △국내·글로벌 RA팀 박상민 △경영기획실 손성희 ◇뉴메코 △영업본부 이상윤

◆**커리어케어** △헬스케어본부 H&S 팀장 곽훈희

부음

▲**이민자** 씨 별세, **이학상**(교보생명 상임고문·전 교보라이프플래닛 대표) 씨 모친상 = 4일, 미국 볼티모어, 010-5245-5780

▲**박원자** 씨 별세, **최훈**(글로벌세아 그룹 부사장)·**영훈** 씨 모친상, **김효진** 씨 시모상, **최하은** 씨 조모상= 3일, 서울성모장례식장 21호실, 발인 6일 오전 8시, 02-2258-5973

▲**백경열**(KIST 책임연구원) 씨 별세, **백지현** 씨 부친상, **백기열**(포스코 E&C 부장) 씨 동생상 = 3일,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21호실, 발인 6일 오전 10시30분, 02-3010-2000

▲**윤진혁**(홍익항공 기장) 씨 별세, **김몽주** 씨 남편상, **윤승현**(트래블월렛 COO)·**지영**(서울아산병원 약제팀 대리) 씨 부친상, **권선화**(엔씨소프트 아이온캐릭터팀 근무) 씨 시부상 = 3일,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32호실, 발인 6일 오전 9시, 장지 국립서울현충원, 02-3010-2000

▲**이정자** 씨 별세, **지한수**(성남FC 경영지원팀장) 씨 모친상 = 4일, 성남시의료원 장례식장 7호, 발인 6일 오전 5시 30분, 031-738-745

▲**박희자** 씨 별세, **강수웅** 씨 부인상, **강근식**(스포츠조선 재경팀장) 씨 모친상 = 4일, 수원시 성빈센트병원장례식장 3호실, 발인 6일 오전 6시, 031-249-8463

▲**이범수** 씨 별세, **정금자** 씨 남편상, **이정님·지연·성주** 씨 부친상, **이정근·황성준**(뉴스1 CMU 부장) 씨 장인상 = 4일 오전 7시 59분,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장례식장 7호실, 발인 6일 오전 11시30분, 031-900-0444

마감 후



조남호
중소중견부 부장대우

선박 부품을 제조하는 중소기업 A사(수탁기업)는 2012년 12월 1일 대기업 B사(위탁기업)로부터 50억 원의 대금에 하도급(납품) 생산 계약을 체결했다. 2년 뒤인 2014년 12월 1일 A사는 B사와 합리적인 이유로 단가 인하에 합의했다.

문제는 B사가 인하된 단가를 합의 시기보다 1년 앞선 2013년 12월 1일부터 소급적용해 지급하면서 발생했다. 애초 계약한 대금보다 5억 원이 적은 45억 원만 지급한 것이다. 그동안 단가가 너무 높았다는 게 이유였다.

원청-하청 간 합리적 이유로 단가 인하에 합의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합의 이후 발주분부터 적용하는 게 상식적이다. 설령 A사가 인하한 단가를 소급 적용키로 합의했다 하더라도 B사의 일방적 행위는 법률상 부당한 대금 감액에 해당하는 위법 행위다. 그럼에도 A사는 냉가슴 앓듯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납품 계약을 이어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기 때문이다.

대기업과의 계약 관계에서 '을'의 위치에 있는 중소기업의 이러한 속앓이가 차츰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계가 바라던 '납품대금 연동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이 4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계약 기간에 주요 원재료 등의 가격이 변동하면 이를 납품대금에 반영하도록 조정하는 것이 골자다. 2008년 금융위기 때 해외 원자재 가격이 급등했다. 당시 대기업이 이를 중소기업 납품대금에 제대로 반영해주지 않아 중소기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되자 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그로부터 14년이 걸려서야 상생협력법이 개정됐다. 올해 6월에는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을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제도의 실효성을 더욱 높일 것으로 기대됐다.

제도 도입의 제기부터 시행까지 소요된 시간이 보여주듯 과정은 순탄치 않았으며 중소기업계의 불공정 계약 관행은 계속됐다. 일각에선 납품대금 연동제가 시장경제에 무리하게 개입해 수탁기업의 도덕적 해이나 기업 경쟁력을 오히려 약화시킬 것이란 우려를 내비쳤다. 다른 한쪽에선 이 제도가 도입되면 공장의 해외 이전을 비롯해 상승한 납품대금 반영에 따른 제품 가격 인상으로 결국 소비자 피해로 이어지리란 논리를 내놓기도 했다.

대·중견기업계의 우려가 있음에도 법안은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됐고 시행에 이르렀다. 대·중소기업 '상생'이라는 시대적 소명에 참여하는 기업들도 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기준 납품대금 연동제를 자율적으로 실천하는 동행기업에 신청한 기업은 6533개사에 이른다. 이들 중 위탁기업은 327개사, 수탁기업은 6206개사로 애초 연말까지 목표로 한 것보다 3개월 앞서 6000개사를 돌파했다. 이를 달성하기까지 중기부는 8개월간 기업 현장을 일일이 찾아다니는 한편 143회의 로드쇼를 개최하며 연동제를 현장에 알리는 것에 집중했다고 한다. 납품대금 연동제 주무부처인 중기부의 역할이 중요한 이유로, 목표치 달성에 안주하지 않고 동행기업 모집에 더욱 힘쓸 필요가 있다.

이 제도가 대·중소기업 간 기울어진 운동장이 조금이나마 개선될 수 있는 초석이 되길 바라본다. spdran@

기대·우려 섞인 '납품대금연동제'

이투데이, 말투데이

☆ 마야 린 명언

"날기 위해서는 저항이 있어야 한다."

미국 건축가, 조각가, 환경운동가다.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여성 크리에이터 중 한 사람이다. 그녀는 예일대 재학 중인 21세 때 학생 신분으로 디자인 경연에서 우승해 워싱턴DC의 베트남 참전용사 기념관 설계를 맡아 유명해졌다. 오늘은 그녀의 생일. 1959~.

☆ 고사성어 / 병귀신속(兵貴神速)

용병(用兵)은 한순간도 머뭇거리지 말고 신속하게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 출전 삼국지(三國志) 위서(魏書) 곽가전(郭嘉傳). 요서(遼西)의 선우(單于)를 칠 때 조조(曹操)는 병사, 말, 식량, 물의 더딘 수송이 고민되자 책사 곽가에게 방책을 물었다. 그가 "병귀신속입니다. 먼저 경기병(輕騎兵)만을 보내십시오"라며 내놓은 전술을 받아들인 조조는 경기병의 특성을 적절히 사용해 순식간에 선우의 군대를 전멸시켰다. 병력은 큰 차이가 났지만, 상대의 의표를 찌른 돌격으로 대승을 거뒀다. 군대의 일은 신속함을 숭상한다는 병상신속(兵尙神速)은 같은 말이다.

☆ 시사상식 / 인덱세이션(indexation)

물가연동제라고도 한다. 임금·금리 등을 정할 때 일정한 방식에 따라 물가에 연동시키는 정책으로 '물가지수에 맞춘다'는 말에서 생겨났다. 인플레이션으로 생기는 명목가치와 실질가치의 차이를 메우고 인플레이션이 실질경제에 미치는 나쁜 영향을 중화시키는 중립정책의 대표적인 방식이 인덱세이션이다. 임금 인덱세이션, 금융상품 레이트 인덱세이션, 세율 인덱세이션, 환율 인덱세이션 등 4가지가 있다.

☆ 한자가 변한 순우리말 / 해장(解腸)

본디 숙취를 해소한다는 뜻인 '풀 해(解)'에 '숙취 정(酲)'을 쓴 '해정(解酲)'이 '장을 풀다'라는 지금의 해장으로 변했다.

채집/정리: 조성권 국민대 경영대학원 객원교수, 멋있는 삶 연구소장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37 폴란드 리더십의 한계

총선 앞두고 '우크라 지원중단' 선언
집권당 지지기반인 농민票心이 변수



폴란드 동부 도로후스크에서 우크라이나의 곡물 유입에 반대하는 농부들이 국경 근처 도로를 차단하고 시위를 벌이고 있다. EPA연합뉴스

'폴란드 리더십은 여기까지인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최전방에 서 오던 폴란드가 이달 15일 총선을 앞두고 기존 정책을 갑작스럽게 바꿨다. 우크라이나에 기존 공약을 제외하고는 더 이상 무기를 지원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또 우크라이나산 곡물 수입 금지를 두고 두 나라는 무역 분쟁 중이다. 폴란드는 왜 갑자기 이렇게 정책을 변경했을까?

폴란드·발트3국, 對러 강경책 주도

지난해 2월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전격 침공한 후 폴란드와 발트 3국은 대러시아 강경정책을 주도했다. 2차대전 후 소련의 압제를 겪었던 이들 나라는 러시아의 푸틴을 결코 신뢰하지 않았다. 반면에 독일은 러시아산 원유와 천연가스에 더욱 의존하며 이런 상호의존이 푸틴의 모험적 행동을 줄일 수 있다고 공언해 왔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 후 독일은 외교정책의 극적 전환을 발표해 국방비를 대폭 증액하고 푸틴의 제국주의적 침략전쟁에 강경 대응하기에 이르렀다.

폴란드는 전쟁발발 후 자신들의 러시아 진단이 정확했다며 대러시아 제재를 주도해왔고 180만 명이 넘는 우크라이나 난민을 수용했다. 발트 3국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폴란드의 모라비에츠키 총리는 지난달 20일 우크라이나에 기존에 공약한 무기를 공급하고 더 이상 무기를 지원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EU 내 극우정당 지지도 꾸준히 올라

우크라이나 전쟁 후 유럽의 새로운 리더로 부상한 폴란드가 대외적인 이미지와 명성에 금이 가더라도 우크라이나에 대해 강경 방침으로 급변한 것은 오는 15일 총선 때문이다.

법과정의당(PiS)은 2015년부터 집권해 왔고 이번에 3연승을 노린다. 지난달 20일 '폴리티코.EU'(Politico.eu)의 여론 조사에 따르면 여당인 법과정의당의 지지율(38%)이 야당인 '시민연정'보다 9%포인트 높다. PiS는 민족주의적 포퓰리스트 정당인데 더 극우적인 자유와독립연맹당(연맹당)과 연립정부를 구성할 것으로 보인다. 이 연맹당은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에 반대한다. 따라서 연맹당을 견제하고 지지층을 단단히 묶어두기 위해 이런 극단적인 정책 변화를 표명했다. 연맹당은 10% 지지를 얻고 있다.

법과정의당의 주요 지지층은 도시가 아니라 시골 지역 거주자이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폴란드가 왜 우크라이나 곡물 수입 금지에 그렇게 사활을 걸고 있는지가 이해된다.

문제는 아무리 국내 총선용 정책과 발언이라지만 그 여파가 너무 크다는 것. 내년 6월 초 유럽의회 선거가 예정돼 있다. 독일을 비롯한 유럽연합(EU) 27개 회원국에서 극우 정당의 지지도가 계속 오르고 있다. 이들은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중단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그런데 대러시아 강경정책 선봉에 섰던 폴란드가 갑자기 방향을 선회해 침략전쟁에 맞서 자유의 투사가 된 우크라이나에 추가로 무기를 지원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울고 싶은 사람의 뺨을 때려준 격으로 극우 정당에는 호재다.

영국의 일간지 파이낸셜타임스는 지난달 23일 사설에서 폴란드의 이런 입장선회는 푸틴을 도와주는 셈이라고 일격을 날렸다. 푸틴은 미국과 유럽의 분열을 노리며 장기전에 돌입했다. 그런데 푸틴이 가만히 앉아있는데도 폴란드에서 이런 분열이 처음 나왔으니 말이다.

이런 정책 선회에다가 폴란드가 우크라이나 곡물의 수입을 일방적으로 금지하자 우크라이나는 지난달 20일 폴란드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후 EU는 폴란드와 헝가리 등 동유럽 국가로의 우크라이나 곡물의 무관세 수출을 허용했다. 값싼 우크라이나 밀과 옥수수, 해바라기 씨 때문에 손실을 본 이곳의 농부들이 격렬한 시위를 벌였다. 할 수 없이 EU의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지난 5월 폴란드와 헝가리, 슬로바키아, 루마니아, 불가리아에 우크라이나산 곡물의 수입 금지를 잠정 허용했다.

이 금지가 지난달 15일 만료돼 이들 5개국은 또다시 값싼 우크라이나 곡물 수입에 노출됐다. 우크라이나는 수출업자에게 허가증을 받게 하는 등 자발적인 수출 제한을 제시했지만 폴란드와 헝가리, 슬로바키아는 일방적으로 수입을 재금지했다.

EU 회원국의 농민을 지원하는 공동농업정책은 회원국이 아니라 집행위원회의 권한이다. 즉 폴란드를 비롯해 5개 국가가 일방적으로 수입을 금지할 수도, 농민을 지원할 수도 없다. 슬로바키아는 며칠 뒤 수입 금지를 해제했지만 폴란드는 불법 조치를 해제하지 않고 있다.

우크라産 곡물수입 금지로 분쟁 악화

EU 집행위원회는 회원국이 조약 등의 법을 위반하면 시정을 요구하고 응하지 않으면 EU 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에 제소한다. 폴란드가 법을 위반했기에 집행위원회는 폴란드에 최근 시정을 요구했다. 또 WTO에서 우크라이나와 협의 절차를 개시했다.

국제무대에서 통상정책도 EU 집행위원회가 행사한다. EU 법과 WTO의 통상 규범을 위반한 폴란드와 헝가리를 대변해야 하는 EU의 입장이 참 난처하다.

지난 36회 '유러피언 드림'에서 우크라이나의 EU 가입 가능 여부를 진단했다. 여기서 '폴란드가 양보할 수 있을까?'를 제시했는데 이번 분쟁에서 보듯이 쉽지 않다. 농민 비중이 높고 이들이 주요 지지층인 주요 정당이 버티고 있는데 우크라이나를 위해 최소 몇천억 원의 이익을 포기할 수 있을까?

대구대 교수(국제정치학)
'하룻밤에 읽는 영국사' 저자
팟캐스트 '안쌤의 유로톡' 제작·진행자

중견기업, 도약 발판 마련됐다

논현로



이 호 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

언제나 부족하다 여기면서도 끊임없이 법과 제도, 정책을 다뤄야 했다, 인생 1막이라며 다소 감상적으로 농을 주고받지만, 30년의 나날은 심야와 새벽녘의 가로등 불빛으로 가득찼다. 산업과 기업의 성장을 위한다고 공언했지만 그 많은 보고서의 숫자와 그래프들이 과녁에 적중했는지, 묻는다면 여전히 두렵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으로 취임한 지난해 8월, 예의 '공무원스러운' 질문이 다시 고개를 들었다. 건강한 산업생태계 조성, 튼튼한 성장사다리 구축이라는 목적에 비춰볼 때, 사정이 있었겠지만 10년 한시법이라는 중견기업 특별법의 부칙조항은 이해할 수 없었다. 답이 필요했다.

중소기업법에따른 '중소기업'이아니고,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의 '대기업'이 아닌 기업, 전체 기업 수의 1.4%(5480개)에 불과하지만, 총 고용의 13.1%(159만 명), 수출의 17.3%(1109억 달러), 매출의 15.4%(853조원)를담당한다는 사실은 선명했지만 충분치 않았다.

'중견법' 한시법 벗고 상시화 전환
역동성 제고할 법률연계 강화하고
기업애로 해결하는 법적틀 갖춰야

평균100건 이상의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2000여 개 제조 중견기업 중 1700여 개사가 핵심 산업인 소재부품장비 분야 기업이며, 산업부 선정 세계일류상품의 3분의 1 이상이 중견기업이라는 설명 또한 마찬가지다. 같은 기준이라면 대기업이 더 우위다.

답은 중견기업 너머에 있었다. 명확한 숫자로 표시되는 놀랄 만한 성취를 벗어나, 대한민국 산업과 경제 전반의 성장을 연결하는 상징이자 실체로서 중견기업은 진짜 가치를 드러낸다. 상시법으로 전환된 특별법의 당위가 확인되는 지점이기도 하다. 중견기업을 거치지 않고 대기업이, 글로벌 전문기업이 될 수는 없다. 청년을 건너뛴 장년이 불가능한 것과 같은 이치다. 특별법은 중견기업만을 위한 것이 아닌, 모든 기업의 어제와 내일을 지탱하는 보루다. 파랑새는 언제나처럼 그 자리에 있었다.

한시법의 꼬리표를 뗀 중견기업 특별법이 10월 19일 마침내 시행된다. 지난 3월 30일, 본회의장을 온통 녹색으로 물들이며 여야의 폭넓은 합의로 국회를 통과한 바다. 그리고 이제, 특별법의 전면 개정을 준비한다. 답을 얻어서일까, 가파른 길 앞에서 몸은 충분히 풀려 있다. 모두의 수고에 미력을 보탤 뿐이지만, 나름 '놀던 물'이다.

초기중견기업에 집중된 특별법의 성격을 일신하고, 구체적인 지원 체계 구축은 물론, 중견기업의 역동성을 극대화할 법률 간 연계성을 강화해야 한다.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공급망 재편, 탄소중립 및 디지털 전환 대응이라는 거시적 처방과 함께 가업승계, 세제, 금융, R&D, 인력, 규제 등 제반 분야의 고질적인 애로를 해결하는 법적 준거로서 디테일을 갖춰야 할 것이다. 신성장동력 발굴을 위한 기금과 펀드, 지식재산 보호 등의 새로운 근거 규범도 포함해야 한다. 중견기업 정책의 실효성을 대폭 끌어올릴, 믿기지 않지만 아직 존재하지 않는 중견기업 종합통계시스템의 설치 및 운영도 특별법이 품어내야 할 시급한 과제다.

수없이 되뇌지만 결국 기업이 움직여야 경제가 돌아간다. 법이든 제도든 혹은 인식이든, 일부의 잘못을 일반화해 기업 전부를 매도하는 철지난 관성에 휘둘릴 때가 아니다. 몰이해와 외면은 공동체에 균열을 일으키고, 풍요와 쇠락은 순간에 갈린다. 단단하게 꾸려질 새로운 중견기업 특별법이 커다란 변화의 전기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분의 공감과 응원을 청한다.

연금개혁, 적기는 '최대한 일찍'

노트북 너머



김 지 영
정치경제부

이달 말이면 연금개혁 정부안 격인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이 발표된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로선 고민이 깊을 수밖에 없다. 국회 논의는 제자리걸음이다. 이달 말 종료가 예정됐던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활동기한은 내년 5월까지로 연장됐다. 복지부의 선택지는 좁다. 9%인 보험료율을 18%로 인상하자는 재정계산위원회 권고를 아예 무시할 순 없다. 그렇다고 권고안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여론의 반발이 우려된다. 내년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둔 시점에 정부가 여당의 '표 떨어지는 정책'을 밀어붙이긴 어렵다. 현실적으로 가능한 대안은 5년 전처럼 다수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재정계산위원회 권고안을 1안, 현상 유지안을 2안, 재정계산위원회 권고안에 소득대체율 강화방안을 조합한 3안을 내놓는 식이다.

이는 현실적으로 '최선의 대안'이지만, 개혁 성공 가능성 측면에선 '최악의 대안'이다. 선택지가 다수일 때 결정장애는 국회의 고질병이다. 특히 내년 상반기엔 총선이 있다. 총선이 끝나면 전반기 원구성 이슈가 있다. 이후엔 국정감사, 예산안 심사가 이어진다. 어영부영 내년을 넘기면 또 동시지방선거가 1년 앞으로 다가온다. 타이밍 잡기가 참 어렵다.

사태를 이렇게 만든 일차적인 책임은 국회에 있다. 지난해 7월 연금특위를 만들어놓고 지금껏 한 게 없다. 올해에는 열 차례 민간자문위원회 토론회를 개최한 게 전부다. 구조개혁에 집중하겠다더니,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간 관계조차 정리하지 못했다. 민간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된 재정계산위원회에선 위원회 운영을 놓고 내부 갈등이 계속됐다. 그러던 중 소득대체율 강화를 주장하던 전문가들이 위원회에서 사퇴하는 상황까지 발생했다.

3개 전국단위 선거가 반복되는 현실에서 연금개혁은 적기가 없다. 재정건전화에 초점을 둔 개혁은 언제 추진하든 그 주체에 부담이다. 그럼에도 적기가 있다면 '최대한 일찍'이다. 연금개혁은 미룰수록 미래 가입자의 보험료율 부담이 커진다. 그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이는 길은 개혁을 1년이라도 앞당기는 것이다. jye@

사설

HUG 전세보증, '눈덩이 부담' 감당할 수 있나

집주인에게 떼인 전세금을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신 갚는 보증사고액이 향후 3년간 10조 원에 이를 것이라고 한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을 운용하는HUG가 국회에 제출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 현황 분석 보고서'를 보면 올해 사고 예상액은 3조7861억 원이다. 올해 하반기 전세보증 만기 도래액 25조2000억 원에 최근 3개월간 사고율을 적용해 이 금액을 산출했다고 한다. 내년 사고 예상액은 3조5718억 원, 2025년은 2조665억 원이다.

사고액 급증은 전세 사기 사건이 범람하고, '영끌'·'빚투'족이 장사진을 친 기형적 세태의 필연적 결과다. '빌라왕', '건축왕' 무리가 속속 사법처리되고 있지만, 상당수 재무적 부담은 HUG로 이전되고 있는 것이다. HUG가 보증사고를 당한 세입자에게 지급한 대위변제액은 3년간 8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됐다. HUG는 올해 보증사고·대위변제 추정액이 작년보다 각각 3.2배, 3.4배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HUG가 사고 손실을 메워주는 것은 피눈물을 흘리는 세입자들에겐 불행 중 다행이다. 문제는 사고 규모와 대위변제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HUG 재정이 급격히 나빠지고 있다는 점이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제가 장기적으로 존속하려면 HUG가 집주인으로부터 종잣돈을 회수할 수 있어야 한다. 대위변제권 행사다. 하지만 이것이 어려우니 아킬레스건이 따로 없다.

HUG 노동조합은 최근 8월 말 기준 대위변제액이 사상 처음(연간 기준) 2조 원을 넘었다면서 "회사가 망한다는 소문이 돈다"는 성명을 냈다. "올해 대위변제액은 공사가 추정했던 3조 원을 훌쩍 넘은 4조5000억 원으로 예상한다"고도 했다. 이를 두고 노사 간 입씨름이 계속되고 있지만, 올해 1~8월 대위변제액 누계가 2조48억 원으로 2조 원을 넘은 것만은 분명한 사실이다. 대위변제 회수율이 지난해의 반 토막 수준인 14.4%에 그치는 것도 사실이다.

HUG의 지난해 당기순손실액 1126억 원은 올해 1조7558억 원, 2024년 1조4688억 원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한다. 지난해에도 곤란한 처지였는데 점점 더 미래를 기약하기 어려운 부실한 경영 상태로 내몰리는 것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관련 보고서를 유념해야 한다. KDI는 최근 보증료를 올리고 보증보험 가입 문턱을 높여야 한다고 했다. 전세보증제를 유지하려면 적어도 재무적 보완은 더 늦춰서는 안 된다는 권고였다. 지극히 타당한 권고다. 전향적 검토와 실행이 필요하다. 유병태 HUG 사장은 지난달 악성 임대인이나 다주택 채무 임대인에 대해 유예기간 없는 경·공매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이 또한 빠르고 단호한 실천이 답이다.

국가적으로 회피할 수 없는 중장기적 과제도 있다. 국민 혈세가 사금융 시스템에 흘러들어가 부동산 거품을 키우는 불합리한 현행 구조는 지속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는 점을 직시하고 출구를 찾아야 한다는 점이다. 전세제도는 장단점이 얽혀 있는 만큼 과격한 손질은 삼가되 사회적 중지를 모아 해결책을 찾을 일이다.

특허, 톡!

IPO 막는 중국의 '특허전쟁'



게티이미지뱅크

상하이증권거래소는 올해 제612호 문서를 통해, 지난 9월 안신(安芯)전자의 기업공개(IPO) 및 상장 심사를 종료하기로 결정하였음을 발표하였다. 안신전자는 2012년 설립된 반도체 부품 제조 및 판매 회사로 주요 제품으로는 FRD/FRED, TVS 및 고성능 STD 등이 있다.

안신전자가 IPO를 진행하면서 제출한 투자설명서에 따르면, 2022년 1월 28일 지에리(杰利) 반도체가 허페이(合肥) 중급인민법원에 안신전자를 상대로 2건의 특허(ZL201310530282.1 및 ZL201410822269.8)에 대한 침해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한다. 현재 허페이 법원은 지에리 반도체의 청구를 기각했고 이에 지에리 반도체는 최고인민법원에 불복한 상태이다.

그럼에도 상하이증권거래소는 해당 소송의 추이에 주목하며 안신전자의 IPO를 종료하게 된 것이다. 결과적으로 지에리 반도체는 특허소송을 통해 경쟁사인 안신전자의 IPO를 저지할 수 있었다.

중국에서 이처럼 IPO를 지원한 경쟁사를 저지하기 위해 특허 침해소송이 제기되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니다. 리튬배터리 분리막 업계 선두주자인 ㈜은지에(恩捷)는 지난 8월 8일 재차 자회사를 통해 IPO를 지원한 ㈜진리(金力)를 상대로 특허소송을 제기할 것을 발표한 바 있다. 관련된 ㈜은지에의 특허는 ZL201380061102.8 및 ZL201810710744.0이다. 현재 중국 내 리튬 배터리 분리막 업계에서는 ㈜은지에가 시장 점유율 1위, ㈜진리가 4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로 인해 ㈜진리의 IPO 프로세스가 지연되고 상장에 변수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또한, ㈜티앤셩(天晟新材料)은 지난 3월 1일 선전증권거래소에 사업설명서를 제출한 ㈜비사이트에 대해 칭다오시 중급인민법원에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비사이트가 자사 특허 ZL200910033041.X를 침해했다는 것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특허소송을 ㈜비사이트의 IPO 저지를 위한 특허공격으로 간주하고 있다.

첨단기술 분야에서 야기되고 있는 중국에서의 치열한 특허전쟁은 결과적으로 중국 특허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IPO 프로세스에서 특허의 중요도가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다만, 현재 기업의 기술과 매칭되는 주요 특허의 획득뿐 아니라 경쟁사 특허침해 가능성에 대한 검토도 신중히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김세윤 아이피리본 대표·변리사

이투데이 社是 正道言論 經濟報國 未來指向
발행·인쇄인 김상우 | 편집인 김덕헌 | 주필 이승현 | 편집국장 박성호
2010년 10월 4일 창간<일간> | 홈페이지 www.etoday.co.kr | 주소 우편번호 06044 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556
대표전화 (02)799-2600 | 팩스 (02)784-1003 | 광고문의 (02)799-2668 | 구독·배달 (02)799-2684
구독료 월 1만5000원 1부 800원 2006년 4월 27일 등록번호 서울 가 00344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국민의 평생 금융파트너

세상을 바꾸는 금융



KB 금융그룹